팔꿈치 어깨관절
W병원
053)550-5000

每日新聞
매 일 신 문
2023년 2월 28일 화요일 (음력 2월 9일 丁巳) 제24165호
imaeil.com 구독 신청 080-711-2002

www.hdpark.co.kr
재단법인 현대공원
고품격 추모의집 1묘원 053)312-1755 2묘원 054)972-6375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 같은 부결'

찬 139 반 138 무효 11 기권 9
31~38표 무더기 이탈 분석
'이재명 민주당' 격랑 속으로
"총선 필패" 퇴진 요청 가능성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 상정에 대한 신상발언을 마친 뒤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국회에서 부결됐다. 당초 큰 표차로 부결이 예상됐지만 반대표보다 찬성표가 더 많이 나와 이 대표가 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입게 됐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이 대표 체포동의안(가결요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은 여야 의원 297명의 무기명 투표 결과 찬성 139명, 반대 138명, 무효 11명, 기권 9명으로 찬성이 과반(149명)을 넘지 못해 부결됐다. 3면

민주당은 지난 21일 의원총회에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야 한다는 데 총의를 모으고 표결에 임했다. 이 대표는 의원 전원에게 전화 연락을 하는 등 표 단속에 나섰고, 친명계 지도부는 '단일대오'라면서 압도적 부결을 자신했다.

그러나 뚜껑을 열자 10명만 더 이탈했으면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을 수 있었던 아슬아슬한 상황이 연출돼 지도부와 친명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 대표가 구속은 면했지만 상당수 이탈표가 나오면서 민주당은 격랑에 빠지는 분위기다. 30여 표가 훌쩍 넘는 것으로 추산되는 이탈표 규모에 당 내부는 향후 이 대표의 대표직 사퇴 등을 두고 대혼돈으로 접어들 전망이다.

이번 표결로 비명계의 불만이 수치로 확인된 이상 이 대표 리더십에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비명계의 '의중'이 점차 세를 불려가기 시작한다면 국회에 추후 다시 체포동의안이 올 경우 부결을 장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미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쌍방울 대북 송금이나 백현동 개발 등 이 대표와 관련한 추가 의혹에 대해 재차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표결 결과로 이 대표가 심각하게 거취를 고민해야 할 국면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당장 비명계를 중심으로 현 체제로는 총선을 치르기 어렵다는 주장과 함께 이 대표 퇴진을 강하게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이 대표 측은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는 모습이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가결과 부결 시나리오에 모두 대비하고 있었고, 어떻든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는 데 의미를 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매일신문과 통화에서 "이 대표가 버티기 힘든 상황에 온 것 같다"며 "사실상 끝났다고 본다. 다음에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할 경우 버티지 못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이번 결과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존망을 걱정하는 민심이 그대로 반영됐다"면서 "이재명 방탄은 허물어졌다. 동의안 찬성표가 반대표보다 많았다"고 강조했다.

이우호 기자 uho@imaeil.com

대구 MBC네거리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 'MBC네거리' 새 이름
벤처밸리네거리
지명위 만장일치로 최종 후보

대구 'MBC네거리'의 새 이름 후보로 '벤처밸리네거리'가 확정됐다. 2021년 9월 대구MBC가 수성구 범어동에서 욱수동으로 사옥을 옮긴 후 1년 6개월여 만에 새 이름이 나왔다.

대구시는 27일 오후 산격청사에서 시 지명위원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벤처밸리네거리'가 최종 후보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날 지명위원회에는 10명의 지명위원 중 6명이 참석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MBC네거리 일대가 2001년에 벤처촉진지구로 지정됐었고, 관련 업체들도 많이 들어와 있다"며 "향후 대구시의 미래를 생각했을 때 벤처밸리네거리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미에서 지명위원의 선택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지명위에 안건으로 오른 지명은 지난해 11월 약 2주간 시민 공모를 통해 선정된 '동대구세무서·벤처·한골·새뜰·범어신천' 등 5개였다. 하지만 지명위원들이 논의하는 과정에서 '벤처'를 '벤처밸리네거리'로 수정하자는 의견이 반영됐다.

앞서 대구시는 지난해 10월 산격청사에서 시 지명위원회를 한 차례 열었지만, 최종 후보를 선정하지 못했다.

새 지명은 지방 지명위원회의 심의와 국가지명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지리정보원의 고시로 최종 확정된다.

신달영 대구시 토지정보과장은 "벤처밸리네거리가 최종 후보로 선정된 만큼, 관련 내용을 정리해서 3월 안으로 국토지리정보원 국가지명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주원 기자 kjw@imaeil.com

달성 하빈이냐 북구 팔달이냐

매천시장 최종 이전지 내달 선정
조기 확정해 용역 결과 전 발표
축산물 도매시장 확장안도 담아

대구시가 북구 매천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이하 매천시장) 이전 건립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다. 27일 현재, 이전 후보지를 두 곳으로 압축한 가운데 대구시는 다음 달 최종 이전지를 조기 확정해 용역 결과 전에 선(先)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대구시는 이날 오전 매천시장 관리사무소에서 유통 종사자를 대상으로 '매천시장 이전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설명회를 개최했다.

용역을 맡은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은 이 자리에서 매천시장 이전 후보지가 달성군 하빈면 대평지구(29만753㎡)와 북구 팔달지구(28만6천211㎡) 두 곳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부터 8개 구군에 이전 후보지를 추천받은 결과다.

김경철 산업관계연구원 이사는 "팔달지구는 매천시장에서 1㎞ 거리로 도심지라는 장점이 있다. 부지 안에는 비닐하우스, 빗물펌프장 등 시설이 있다"며 "대평지구는 매천시장에서 3㎞ 정도 떨어져 있으며 상대적으로 외곽지다. 부지는 비닐하우스, 논 등으로 구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관계연구원은 ▷접근성 ▷확장성 ▷민원 발생 가능성 ▷사업 용이성 ▷구군 경제적 지원 등 모두 20개 항목을 기준으로 분석·평가한 뒤 전문평가단 의견을 수렴해 이전지를 확정할 계획이다.

산업관계연구원은 오는 9월까지 8개월 동안 용역비 1억6천만원을 들여 도매시장 이전 건립의 경제성 등 효과를 분석하고 첨단 도매시장 건립 기본계획, 종합 활성화 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전 후 기존 부지를 활용할 방안도 마련한다.

이번 용역이 주목되는 또 다른 이유는 시장 이전과 함께 '농수축산물 도매시장'으로 확장하는 방안까지 담았다는 점이다. 대구시가 북구 검단동 축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폐쇄를 결정한 가운데 이번 용역을 통해 축산물 도매시장도 문을 닫고 매천시장과 통째로 이전하는 방안을 포함시킨 것이다. 도축 물량 감소, 시설 노후화, 금호워터폴리스 조성 등으로 인한 주변 환경 변화 때문에 '축산물 시장의 시설 유지가 어려워졌다'는 게 대구시 측 설명이다.

정은빈 기자 bean@imaeil.com

尹대통령, 교육부에 '학교폭력 근절' 지시

정순신 여론 악화에 대응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교육부는 지방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조속히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4,5면

이는 검사 출신인 정순신 변호사가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아들의 과거 학교폭력 문제로 하루 만에 낙마한 것을 두고 인사 검증 실패 비판이 이는 등 악화하는 여론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 변호사가 공직 후보자) 사전 질의서를 작성할 때 조금 더 정확하게 기재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또 만약 자녀와 관련된 문제가 있었고, 또 본인도 그런 소송에 관련돼 있었다면 굳이 공직에 나서는 것이 옳았는가 하는 아쉬움, 그런 얘기가 있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연세대 학위 수여식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만나서도 "교육부가 중심이 돼 교육청 등 관련 부처와 잘 협의해 종합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어 "산업 현장에 법치를 세우는 것처럼 교육 현장에도 학생, 학부모, 교사, 학교 간의 질서와 준법정신을 확고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참모진에게 "고물가 고금리 과점 체제 부작용으로 서민이 많이 어렵다"며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범경제 부처가 협의해 내수 활성화를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호준 기자 hoper@imaeil.com

사회공헌 경영 ♥ 따뜻한 동행 ▶13~18면

2023년 가정용 친환경
저녹스 보일러 설치(교체) 지원사업!
알고 계셨나요?
자유와 활력이 넘치는 파워풀 대구 POWERFUL DAEGU
가정용 친환경 저녹스 보일러 지원이란?
가정의 난방 사용환경 개선과 맑고 깨끗한 공기를 위해 가구당 최대 6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대구시 내 가정용 보일러를 친환경 저녹스 보일러로 교체(설치)하는 가구
지원금액 일반가구 10만원, 저소득층(수급권자, 차상위 계층) 60만원
잠깐 "저소득층은 경동나비엔·귀뚜라미의 지원도 있어요!"
실제 신청자 부담(0원) = 정부 보조금(60만원) + 제조사 나머지 차액 지원
[문의처] 경동나비엔 ☎1588-1144 / 귀뚜라미 ☎1588-9000 ※ 조기 종료될 수 있으므로 확인필요
지원기간 2023. 2. 6 ~ 예산소진 시까지
신청방법 보일러를 설치하는 지역의 구·군청 환경부서 또는 인터넷 신청
구비서류 및 자세한 사항은 구 · 군 환경부서 및 보조금 신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https://www.greenproduct.go.kr/boiler)
구·군청 환경부서 (*지역번호 053)
중 구 661-2740 동 구 662-4116 서 구 663-2596 남 구 664-2582
북 구 665-2608 수성구 666-2588 달서구 667-2594 달성군 668-2597
가정용 보일러 인증시스템
열효율 12% ↑
이산화탄소 534kg ↓
난방비최대 13만원 ↓
친환경 저녹스
대구광역시 DAEGU METROPOLITAN CITY

모발의 자신감!! 반월당 5번출구
모발이식
경대 뉴보자르의원 053.427.1106

"경북대 북문에" "엑스코 앞으로" 역 변경 요구 거세

공청회서 노선 개선 목소리

AGT 교각 구조물 우려도 "인근 일조권 침해 불 보듯" 모노레일·재추진 의견 나와

27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도시철도 엑스코선 건설사업 기본계획 공청회에서 대구종합유통단지 상인들이 공청회 시작에 앞서 노선 변경을 촉구하는 현수막을 펼쳐 보이고 있다. 우태욱 기자 woo@imaeil.com

대구도시철도 엑스코선 기본계획안 공청회에서 역사 위치를 변경해 경북대, 엑스코 접근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쏟아졌다.

철제 차륜 AGT 도입은 도심 미관, 일조권 문제 등을 고려할 때 득보다 실이 많을 것이란 우려도 컸다. 기본계획안에 대한 시민들의 수용성을 가늠하는 사실상 첫 시험대에서 기대보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 향후 사업 추진이 매끄럽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경북대역사 '북문 인근' 한목소리

현재 경북대 서문 인근에 두기로 한 가칭 '경북대역'은 북문 근처로 이동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경북대 김병수 교수는 "대구시 버스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경대 북문 쪽 승하차 인원이 월 평균 8만 명 정도인데 서문 쪽은 1만 명 남짓으로 8배 차이가 난다"며 "이용자 확보 측면에서라도 북문에 역을 두는 게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경북대 한 재학생은 "수성구 일대에 사는 학생들은 937번 버스로 통학하는데 매우 혼잡하다. 교통 문제를 안고선 학교가 발전하기 어렵다. 지방 소멸 대응 차원에서라도 문제를 풀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엑스코역도 엑스코 접근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문이 빗발쳤다. 종합유통단지 상인들은 공청회 시작 전부터 행사장 앞에서 엑스코 없는 노선에 반대한다는 현수막을 든 채 시위에 나섰다. 한 북구 주민은 "엑스코선은 엑스코 동관이나 서관 앞에 내릴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며 "종합유통단지 일대 도시철도 사각지대 해소라는 취지를 살려달라"고 요청했다.

◆AGT 교각 구조물에 대한 우려 커

폭 8m 보와 슬래브(상판)가 올라가는 등 육중한 AGT 교각 구조물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대현로 등 도로가 협소한 상습 정체 구간의 차로 축소 가능성, 일조권 침해, 미관 훼손 등에 따른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클 것이라는 것이다.

경북대 엄정희 교수는 "AGT는 도시환경과 부조화가 심각하게 우려된다. 특히 노선 북쪽 지역이 하루 2시간 일조시간을 확보하려면 구조물 높이 2배까지 이격거리가 필요하고, 3시간 일조시간을 확보하려면 2.57배를 확보해야 하는데 일조권 문제가 뻔하다"고 했다. 또 "주요 도시들은 고가 구조물을 지하화하는 중인데 대구는 추후 더 많은 돈을 쓰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했다.

수성구 한 주민 역시 "상판 폭이 8m나 되면 역사 인근 주민을 제외하곤 모두 반대할 것"이라며 "오래 걸리더라도 모노레일이나 지하철을 도입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대구교통공사는 AGT 도입에 대한 우려를 받아들이면서도 현재로선 철제 차륜 AGT 도입이 최선이라는 답변을 내놨다. 이광모 대구교통공사 기술본부장은 "소음 문제는 흡음판, 방음 터널 등으로 해소할 수 있다. AGT 구조물이 경관은 나쁘지만 유사시 대피로로 쓰거나 유지 보수가 쉬운 장점이 크다"고 설명했다. 권용일 대구한의대 교수(도시환경디자인학과)는 "문제가 복합적이라 한 가지를 해결하려면 다른 문제를 안게 되는 상황이다. 모노레일 도입 불가가 알려진 이후로도 시민의사를 공론화하는 과정이 부족했는데 앞으로 보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400명 이상이 참석하는 등 열기가 뜨거웠다. 28일 오전에는 수성구청 대강당에서, 오후에는 동구청 민방위교육장에서, 내달 2일에는 북구청 대회의실에서 주민설명회가 예정돼 있다.

총사업비 7천805억원을 들여 수성구 민운동장에서 이시아폴리스까지 12.5㎞ 구간을 오가는 대구도시철도 엑스코선은 2025년 착공, 2029년 준공 및 개통이 목표다. 대구교통공사는 내달 중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국토교통부에 기본계획안 승인 신청을 할 계획이다.

김윤기 기자 yoonki@imaeil.com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은 적법" 고준위방폐장 특별법 동력 얻나

탈핵단체 대법 상고 않아 확정
주민보호·지역 지원 위한 법안
정부 입장에 힘 실리는 모양새

경주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인 맥스터 전경. 매일신문 DB

포화 상태에 이른 경북 경주 월성원전에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을 추가로 건설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항소심 판단이 최종 확정됐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유치지역지에 관한 특별법'(고준위방폐장 특별법)은 주민보호와 지역 지원에 관한 것이라는 정부 입장에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27일 지역 정치권 등에 따르면 '월성 1~4호기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운영변경 허가 처분 무효 소송'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이 지난달 원고 패소로 낸 판결이 최근 확정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던 경주 지역 탈핵단체 등(원고)이 대법원을 상대로 상고하지 않아서다.

원안위는 2020년 위원 8명 중 6명이 찬성해 월성원전 부지에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을 건설하도록 운영변경을 허가했다. 기존 임시 저장시설 용량이 포화상태에 이르자 한국수력원자력이 추가 건설을 신청했고 이를 원안위가 받아들였다.

탈핵단체 회원 등은 "사용후핵연료는 재처리가 불가능해 사실상 고준위 방사성폐기물로, 이를 저장하는 시설은 관련법상 건설이 제한되는데, '핵연료물질 취급시설 또는 저장시설'로 보고 건설을 허가한 처분은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2심 재판부는 "사용후핵연료는 재활용 또는 재처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폐기하기로 해야만 '방사성폐기물'이 된다고 봐야 한다"며 "폐기 결정이 이뤄지지 않은 핵연료는 방사성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또 "기존 임시저장시설이나 새로 허가받은 저장시설이 '핵연료 물질 취급시설 또는 저장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면 원자로 연료로 사용되고 폐기 결정이 이뤄지기 전의 핵연료 물질을 보관할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할 법적 근거가 없어지는 부당한 결론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기존 국내 원전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을 추가로 건립하는 것에 대한 적법성 논란은 사실상 일단락된 셈이다.

이번 판결이 고준위방폐장 특별법 제정에 속도를 내고 있는 정부 측 주장에 힘을 실어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탈핵단체 등은 고준위방폐장 특별법이 원전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건설을 공식화하는 근거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법원 판결 확정으로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도 문제가 없게 됐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법원 판결 확정으로 고준위방폐장 특별법이 주민보호를 위한 의견 수렴, 지역 지원을 위한 것이라는 점이 더 선명해졌다"면서 "탈핵 시민단체는 진정 주민을 위한 선택이 무엇인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했다.

박영채 기자 pyc@imaeil.com

"한발 빠른 뉴스"
안드로이드용 매일신문앱 아이폰용

한 총리 참석, 63주년 2·28민주운동 기념식

2018년 국가 기념일 지정돼
내달 5일까지 특별 사진전

제63회 2·28민주운동 기념식이 한덕수 국무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자유를 그리다'라는 주제로 28일 오전 10시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다.

올해로 63주년을 맞는 2·28민주운동 기념식은 지난 2018년 국가 기념일로 지정된 이후 매년 국가보훈처가 주관해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 기념식으로 격상되어 처음으로 치러진 지난 2018년 행사에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참석하기도 했다.

2·28민주운동은 대구 지역 고등학생들이 1960년 당시 자유당 정권에 항거하며 일으킨 자발적이고 민주적인 학생 저항 운동이다. 학생들의 야당 유세장 참석을 막기 위해 대구 시내 8개 공립학교를 대상으로 내린 '일요 등교 지시'가 계기가 됐다.

당시 대구 지역 언론이 2·28민주운동을 크게 보도하면서 전국적으로 학생시위가 퍼져나갔다.

학생들이 주도한 대한민국 민주화운동의 효시이자 대전 3·8민주의거, 마산 3·15의거, 4·19혁명의 도화선이 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날 기념식은 2·28민주운동 기념탑 참배 후 기념공연, 기념사, 2·28찬가 제창 순으로 진행된다. 기념탑 참배에는 2·28민주운동 참여 주역과 2·28 참가 학교 학생 대표가 나란히 참석한다. 지역 고등학생이 중심이 된 2·28정신을 후배들이 이어간다는 다짐과 메시지를 전한다.

대구시민주간을 계기로 2·28의 정신을 알리는 2·28민주운동 기념 특별 사진전도 5일까지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다.

구민수 기자 msg@imaeil.com

每日新聞과 함께하는 나눔문화 캠페인

나눔의 기적을 믿는 사회

나와 너를 변화시키고 함께하는 사회에
아름다운 향기를 채워주는 **나눔의 힘**을 믿습니다.
기부문화! 우리가 먼저 실천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가장 소중한 가치입니다.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아름다운 기부바이러스가
골고루 퍼질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

킹스대학교 前명예총장 최광영연구실

2023년 2월 28일 화요일 每日新聞

즉시 임플란트는 대구뉴욕치과
진료과목
임플란트, 틀니
심미보철, 신경치료
잇몸치료
뉴욕치과 (구. MBC방송국 네거리) T. 053)252-0500

민주당서 최소 31표 "찬성"…'李 리더십' 치명상

野 일부 "매우 심각하고 아파" 주호영 "사실상 가결로 봐야"

정치권 "현 대표 체제 회의론 거취 결단 압박 더 심해질 듯"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은 가결 요건인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 149명에 10명 모자란 139명의 찬성표로 부결됐다.

이로써 이 대표에 대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는 무산됐지만 국민의힘과 정의당을 제외하고 최대 175명으로 예상됐던 반대표 가운데 대거 이탈표가 발생, 실제로는 138명만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 대표가 정치적 치명상을 입었다는 분석이다.

단일대오를 자신했던 민주당은 이날 '박빙' 부결이 나오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당초 민주당은 당 내 전체 의원 169명에 무소속 의원 5명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1명을 더해 최대 175명의 반대표를 기대하던 상황이었다. 무소속 5표와 용 의원 1표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하더라도, 민주당 내에서 반대가 아닌 찬성·기권·무효 등의 이탈표가 최소 31표에 달한 것이다.

민주당 한 다선 의원은 "이 정도면 매우 심각하고 아픈 상처다. 당이 더 혼란스러워질까 걱정스럽다"며 "이재명 대표 체제로 내년 총선을 치르는 게 그만큼 불안하고 불만스럽다는 얘기다. 이 대표도 고민이 커질 것"이라고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당연한 결과다. 윤석열 검사 정권이 더 이상 정적 제거에 국력을 낭비하지 말고 민생을 살리는 데 오롯이 집중하길 바라는 뜻도 담겼다고 믿는다"며 "물론 당내에 다양한 의견이 있다는 것도 확인했다. 향후에 좀 더 많은 의견 수렴을 통해 크게 하나로 묶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사실상의 가결이라면서 야권 내 이탈표를 높이 평가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사실상 가결이나 마찬가지"라며 "오늘 표결 결과가 민주당에 아직 공당으로서의 의무감과 양심이 일부는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를 향해 "정치적 책임을 지고 대표직에서 깨끗하게 사퇴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사법절차를 통해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 바란다"며 "민주당 주류도 이제 방탄 국회와 불체포특권을 통해 이 대표를 보호하려는 시도를 오늘부로 그만두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치권에선 이 대표의 리더십에 치명상이 갔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날 결과가 이 대표에 대한 사실상의 '비토'로 해석되는 만큼, 이 대표의 거취 결단에 대한 압박이 극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다.

정치·선거 컨설팅업체 엘엔피파트너스의 이주엽 대표는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대표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과연 내년 총선 정국에서 유리할 것이냐는 회의론이 분출된 것으로 봐야 한다. 조만간 당 일각에서 대표직을 내려놓으라는 주장이 나오기라도 하면 권력 누수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진행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169석으로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방어했지만 리더십이 붕괴되면 이 대표와 친명계 등 20~30명의 핵심 그룹으로만 대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 대표에 대한 거취 압박에 따라 이낙연 전 총리, 김부겸 전 총리, 정세균 전 총리 등의 역할론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김병훈 기자 kbh7133@imaeil.com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뒤 모든 법률안을 표결하고 나서 국회를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비명계 "李대표·지도부에 경고 시그널"

사법 리스크 우려 무더기 이탈표 이재명 "檢 영장청구 부당함 확인" "당내 소통 확대·의견 수렴 힘쓸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것에 대해 "검찰의 영장 청구가 매우 부당하다는 것을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확인해줬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본회의 안건 처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체포동의안을 부결하게 해 주신 많은 분께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이 정적 제거, 야당 탄압, 전(前) 정권 지우기에 들이는 에너지를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살리는 데에도 좀 더 써주시길 당부한다"며 "이런 일로 정쟁하기엔 세상일이 너무 힘들지 않으냐"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당내와 좀 더 소통하고, 많은 의견을 수렴해 힘을 모아 윤석열 독재정권의 검사 독재에 맞서 싸우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표결에서 예상보다 많은 '이탈표'가 나온 것을 의식해 당내 소통에 힘쓰겠다는 의사를 피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이 대표는 "이탈표가 많이 나올 것을 예상했느냐" "비(非)이재명계에서 거취 표명을 요구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탈표가 비토의 의미라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등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대거 이탈표를 예상하지 못한 민주당은 표결 결과에 당황스러운 기색이 역력하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민주당의 무더기 이탈 표심에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지도부 전체가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당이 이 대표와 지도부에 대해 경고의 시그널을 보낸 것"이라고 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당내 다양한 의견이 있다는 것도 확인했다"며 "향후 많은 의견을 수렴해 크게 하나로 묶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광준 기자

한동훈 "대장동, 성남시민에 천문학적인 피해"

체포동의안 가결 촉구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7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으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혐의를 조목조목 거론하며 가결을 촉구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 대표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 "성남시민의 자산인 개발 이권을 미리 짜고 내정한 김만배 일당에게 고의로 '헐값에' 팔아넘겨 개발 이권의 주인인 성남시민에게 천문학적인 피해를 준 범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개발 같은 대형 부동산 개발은 '땅 작업'(토지확보)과 '인허가'가 사실상 전부"라며 "만약 이 두 가지를 '관'(官)에서 책임지고 해결해 주고 경쟁자도 확실히 제거해 준다면 민간업자 입장에서는 아무런 리스크도 없는 '땅 짚고 헤엄치기'사업"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장동 이익 9천606억원 중 성남시가 가져간 돈은 1천830억원에 불과해 성남시가 일은 다 해놓고 이익은 이재명 당시 시장 측과 유착된 김만배 일당이 독식하게 한 것이 이 범죄의 본질"이라고 부연했다.

한 장관은 또 성남FC 뇌물 범죄 혐의에 대해 "해결해야 할 현안이 있는 만만한 관내 기업체를 골라, 이재명 시장 측이 먼저 흥정을 걸고 뇌물을 받았다는 것이 본질로 기업체들이 먼저 접근한 것이 전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그룹, 푸른위례 등 기업명을 거론하면서 "이 시장이 실제로 (현안을) 다 들어줬고 그 대가가 133억원이 넘는 현금 뇌물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성남FC 사건은 이재명 시장이 인허가권을 사유화해 현안이 있는 기업들을 타깃으로 노골적인 '인허가 장사'를 한 것"이라며 "범죄가 장기간에 걸쳐 공적 외형을 갖춘 채 진행돼 성남시와 그 상대인 대기업들의 범죄 혐의를 입증할 내부자료, 물적증거가 많이 남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장동 사건, 위례 사건, 성남FC 사건은 죄질과 범행의 규모 면에서 단 한 건만으로도 구속이 될 만한 중대범죄"라고 단언했다.

강영훈 기자 green@imaeil.com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요청 이유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심의필 제190813-중-97996호
대구연세안과
레이저백내장 노안수술 · 라식
수성보건소 맞은편 T_053.626.8881

"텃밭서 인정 받겠다"…오늘 TK 합동연설회 총력전

국힘 당권 전대 종반전

김기현 '결선 없다' 표심 다져
안철수·천하람 지역 인연 강조
당원 직접 보고 평가할 기회
수도권으로 바람 몰이 준비

종반으로 치닫고 있는 국민의힘 당권 경쟁이 28일 열리는 대구경북 합동연설회를 기점으로 승부의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보수정당의 텃밭인 대구경북의 당원들이 각 후보들의 면모를 직접 확인하고 마음을 정할 경우 상당한 바람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역대 전당대회에서도 대구경북의 당심이 출향인사들에게 전달되면서 수도권으로 확산하기도 했다.

지도부 경선에 나선 후보들도 보수의 심장에서 인정받은 후보라는 훈장을 확보하기 위해 합동연설회 이후 지역에서 한동안 표밭을 다지는 등 총력전을 준비하고 있다.

정치권에선 대구경북 합동연설회가 여당 당권경쟁의 핵심 관건인 결선투표 실시 여부와 2위와 3위 후보 순위 역전 등의 가능성을 타진할 수 있는 무대가 될 것으로 보고 지역 당원들의 반응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을 등에 업고 당권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김기현 후보는 27일 오후 본회의를 마친 후 곧장 대구로 향했다. 내달 1일까지 머물며 표밭갈이에 집중할 예정이다.

특히 김 후보는 28일 합동연설회에 나경원 전 원내대표와 함께 등장한다. 아울러 연설회를 전후로 진행되는 청년·여성 당원 행사 등에도 나 전 원내대표와 동행해 '김나(김기현·나경원)연대'를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후보 캠프 측 관계자는 "결선투표 없이 전당대회를 마무리하기 위해선 당의 심장인 대구경북에서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안철수 후보도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지난 2020년 계명대학교 대구동산병원에서 의사인 부인과 함께 봉사활동을 한 경험과 본향이 경북 영주인 점을 강조하며 지역 당원들의 성원을 기대하고 있다.

안 후보 캠프 관계자는 "아무래도 대구경북은 자신과 어떤 인연으로든 관계가 있는 인사에 대해 더 관대한 곳이 아니겠느냐"며 "정책비전과 총선 승리공식을 강조하면서도 대구경북과의 인연을 어필하는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3일 출마선언 이후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지지층을 확산해온 천하람 후보도 고향 까마귀에 대한 애정을 부탁할 예정이다.

당 안팎에선 각 주자들이 당의 텃밭에서 인정받은 후보라는 이른바 '타이틀'을 확보하기 위해 합동연설회에 총력을 쏟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대구경북 당원들의 경우 응집력이 강하고 특정 후보에 대한 쏠림현상도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전부가 아니면 전무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각 후보들이 큰 실수를 하지 않는 전략이 아니라 득점을 위한 승부수를 띄울 공산이 크다"고 내다봤다.

지역정치권에선 당원들이 각 후보들의 '깜냥'은 물론 지역의 숙원과제인 대구경북신공항건설을 위한 특별법 처리, 낙동강 수계 수질개선, 대형 국책사업 유치 등 선물보따리의 크기도 살펴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이번에는 ○○○라 카더라', '△△△는 실제로 보이 별로 찐 맛없네', '우리 동네 출신이라 그런가 시선이 가네!' 등 현장에서 당원들이 주고받는 품평이 경선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유광준 기자 june@imaeil.com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에서 열린 2023년 2월 학위수여식에서 축사를 마친 뒤 졸업생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득권 카르텔 깨고 공정 시스템 만들자"

尹, 연세대 학위수여식 축사

"3대 개혁 청년들 희망·꿈 위한 것"
자유·인권·법치 보편적 가치 강조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혁신은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다. 기득권 카르텔을 깨고 더 자유롭고 공정한 시스템을 만들고 함께 실천할 때 혁신은 이뤄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낮 연세대에서 열린 학위수여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혁신에는 기득권의 저항이 따르게 돼 있다. 이를 극복할 의지와 용기를 가지고 있을 때 혁신을 실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자유와 공정을 담보하는 법이 짓밟히고 과학과 진리에 위배되는 반지성주의가 판치고 기득권 카르텔의 부당한 지대추구가 방치된다면 어떻게 혁신을 기대하고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특히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의 공유와 실천에 미래가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와 창의가 존중되고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는 곳에서,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의 연대와 국제 협력에서, 또 정부와 민간 각 분야 지도자들의 전략적 리더십이 돋보이는 곳에서 혁신이 탄생했다"며 "우리보다 앞서간 나라들의 혁신 사례를 치밀하게 연구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했다.

이런 맥락에서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부각시켰다. 윤 대통령은 "3대 개혁은 우리 사회를 더욱 활기차게 하고 여러분의 꿈과 도전에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어 주기 위한 것"이라며 "여러분이 미래를 꿈꾸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를 더 자유롭고 공정하게 바꾸고 개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아울러 우리 사회의 약자에 대한 따뜻한 배려, 세계시민의 자유와 인권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책임 있는 기여가 미래세대의 꿈과 도전, 그리고 미래를 더욱 풍요롭게 한다는 점도 기억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눈부신 성장과 새로운 도약이 여러분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 달라"며 "여러분이 자유롭게, 멋진 꿈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뒷받침할 만반의 준비를 해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역대 대통령 중 연세대 학위수여식에 참석해 축사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제한됐던 대면 학위수여식이 재개되면서 졸업생들을 비롯한 청년들을 직접 격려하기 위해 참석했다"고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축사 모두에 "무엇인가를 성취하는 것만큼 의미 있고, 영광스러운 일은 없다. 거기에는 좌절, 도전, 용기, 이 모든 것이 담겨있기 때문"이라며 "졸업생 여러분의 성취를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면서 졸업 축하 인사를 전했다.

이호준 기자 hoper@imaeil.com

저마다 인연으로 지지 호소

金, 특별법 통과 약속
安, 코로나 의료 봉사
千, 유일한 대구 출신
黃, 강성 보수층 결집

28일 '보수의 심장' 대구경북(TK)을 찾은 국민의힘 당권주자들은 각자 TK와의 인연과 공약을 앞세워 텃밭 표심을 다진 뒤 내달 2일 수도권에서 최종 승기를 굳힌다는 전략이다.

TK에서 '어대현'(어차피 대표는 김기현)을 확인한 후 동남풍을 타고 수도권 공략에 나서려는 김기현 후보는 1989년부터 1991년까지 대구지법에서 초임판사로 근무한 연고가 있다.

김 후보는 TK 친윤계의 조직적인 지원을 받고 있지만 최근 당 대표 당선 시 차기 총선에서 'TK 물갈이'를 앞장서 단행할 것이란 의심도 받고 있다. 아울러 '울산 KTX 역세권 땅 시세차익 의혹'이 확산하면서 TK 표심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김 후보는 TK 합동토론회에서 TK 물갈이론과 울산 땅 의혹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토론회에 앞서 TK 신공항 대구시민추진단 초청 간담회에 참석, 지역 최대 현안인 TK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통과를 약속하며 표심 단속에도 공을 쏟는다.

안철수 후보는 지난 2020년 TK에서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할 때 대구동산병원에서 의료봉사에 참여하며 시도민들에게 큰 감동을 남겼다. 안 후보에 대한 TK 당원들의 평가는 코로나19 의료봉사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이에 안 후보는 자신에 대한 TK 시도민들의 보은 정서를 집중 공략할 것으로 보인다. 또 차기 총선에서 '시스템 공천'을 공약, TK 물갈이론에 대한 TK 정치권과 당원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전망이다. 김 후보와 같이 TK 신공항 특별법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안 후보도 이날 대구에서 특별법 통과를 거듭 약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권주자 4인방 가운데 유일한 TK 출신인 천하람 후보는 지난 2021년 불었던 '이준석 돌풍'의 재현을 기대하고 있다. 대구초와 경신중을 졸업한 천 후보는 부친이 대구 출신이었던 이준석 전 대표보다 TK와의 인연이 더욱 깊다는 분석이다. 고향이자 텃밭인 TK를 택하지 않고 험지인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당협위원장을 맡은 청년 정치인 이미지로 TK 당원들에게 어필할 전망이다.

황교안 후보는 2009년 대구고검장을 지낸 것 외에는 TK와 연고가 사실상 없다. 그럼에도 상대적으로 강성 보수층이 많은 TK 당원 일부의 지지를 받고 있다. 최근 김 후보의 울산땅 의혹을 집중 공격하고 있는 황 후보는 TK 합동토론회에서도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김병훈 기자 kbh7133@imaeil.com

부동산

상가

일반상가

업무용 빌딩 수익성 물건 강추! 매100억
건4,900㎡ 월세+관리비9700
신세계아파트163㎡ 7층 초급매6.7억
매물구함 053) 766-6333
No. 27260-2022-00163 수성구 왕건부동산 박상언

만촌동 시설 깨끗한Ⓐ상가 주위 통행다수 66㎡
현.성업중 장사 잘 됨, 월 해도 좋은
상가 급매 대학가 주변 보2000 月
110만 기술전수미 010-6491-8854

공짜로 드리는물건
신축 요양병원 대출안고 인수
1. 대436, 건1800 보6억, 월4500만
2. 보2억8천, 월1800만 053) 552-5000
No. 27170-2019-00025 서구 대농부동산 김영기

모텔

모텔매매 20억
대1120㎡ 객49 (세·융 별도)
9억 대1065㎡ 객35/ 5억 대340㎡ 객30 053) 521-4949
No. 27170-2019-00025 서구 대농부동산 김영기

대지/임야/공장

싼 공장 매매 임대
661㎡~9,917㎡ (200~3000)
땅,공장 매물 접수 합니다
010-4513-3888
No. 27290-2019-00075 달서구 삼인부동산 김주호

우사·돈사·계사
전문 매매(매수,매도) 전국물량 취급
신속중개 안전거래보장
010-8242-4406

공장 창고 매매
장동 준공업지역 10m도로접
대지503㎡(152) 건389㎡ 매매13억
010-3549-0555
No. 27290-2016-00175 달서구 청마중개사 우병훈

※ 성서공장 매매
대지 500 건350
당600만 053) 581-7733
No. 27290-2017-00023 달서호림 청림부동산 안중석

명당묘터 및 가족 묘터 분양 100~300 (330~991㎡)
※부동산사절 개인 010-4554-4984

카페·캠핑장 부지
진인동 5,332㎡ 당90만원
자연녹지, 보존녹지
010-4643-6770
No. 27200-2021-00065 남구 시원공인중개 류길하

공장부지 고령 성산 (투자200%)
7933㎡(2400중 대1300) 당35만
몽땅8억4천 2차선접 계획관리
010-4538-4590

하빈 봉촌 (버스 도로접) 대4872㎡(1474)
건972㎡(294) 고물상 적지 현.임대
23년6월말 만료 크레인5t 매당 180만
010-3528-3307
No. 가-17-261 달서구 동아부동산 정동섭

※스타벅스 신축 부지
유동인구 바글바글 대지450
당2500만원 전속중개물건
역세권(사전내사 예약必) 521-0418
No. 27170-2020-00012 서구 온누리부동산 양현석

토지 상인동 대도로 3,000㎡
급매 100억 / 남구 대형 E/V
원룸 12m접 대도로 2번째 대370㎡
보5억 융자9억 인수가 8억 月850
매물 구함 010-9008-5582
No. 27260-2022-00163 수성구 왕건부동산 박상언

성주군 땅 문덕리10, 525㎡
계획관리 도로접,
단독 진입, 성주읍 경계, 급매2억6천
주인직접, 귀농귀촌 추천
직불금 150만 010-3506-3930

나대지 급매 (경산 남천) 전원주택지
다용도미 마을끝, 위치최상 토목완료
전기, 수도, 오폐수관 설치, 즉시
건축可 419㎡/472㎡ 010-8594-8662

(급매) 북구 2종일반 지구 용도
대5289㎡ 빌라,공장,창고부지
010-3509-2066

군위 땅 투자 계획관리 1919㎡
KTX 예정지 인근
1억6천 010-8678-2269
No. 27290-2018-00072 달서구 이곡역부동산 설태우

부동산교환

※교환 전문 상담
대지·상가·모텔·
임야 다량보유 010-8825-3413

분실공고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2478번지 일원 청라힐스자이 109동 1605호(계약자:강윤순) 아파트 분양계약서 분실, 이 공고 이후 무효임.

경산시 공고 제2023 - 448호

경산 도시관리계획 (삼북동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결정(안) 열람공고

경산시 삼북동 270-16번지 일원의 주택건설사업에 따라 「주택법」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되는 경산 도시관리계획(삼북동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결정"안"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주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2월 28일

경 산 시 장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프런티어 주식회사
   - 대구광역시 수성구 상록로 15, 근린생활시설동 301호 (범어동, 범어센트럴푸르지오)
2. **사업예정지 :** 경산시 삼북동 270-16번지 일원
3. **열람 및 의견제출기간 :** 2023. 2. 28 ~ 2023. 3. 20 (14일이상)
4. **열람 및 의견제출장소 :** 경산시청 건축과(053-810-5556)
5. **열람내용 :** 경산 도시관리계획(삼북동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결정 "안"

건 명	위 치	내 용	비고
경산 도시관리계획 (삼북동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안"	경산시 삼북동 270-16 번지 일원	• 삼북동 주택건설사업승인관련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결정 -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계획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계획 -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계획	

6. **열람도서 :** 게재생략 (열람장소에 비치하여 열람기간 내에 일반인에게 보임)
7. **기타 상세한 사항은 경산시청 건축과(☎053-810-555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관광문화협동조합
『팔공산 왕건길 바로알기 제9기』
수강생 모집

□ **교육기간 :** 2023. 3. 9 ~ 5. 25 (12주)
□ **교육방법 :** 이론 및 답사
□ **모집인원 :** 10명 (무료, 단, 교재비 제외)
□ **접수기간 :** 2. 21 ~ 3. 8
□ **신청방법 :** 전화 및 사무실방문 원서제출
□ **교육장소 :** 영진관광문화협동조합 (수성구 지산동 961-9번지) (3호선 황금역부근)

구분	일시	교육내용	강사	비고
1회차	3. 9(목) 10:00~12:00	**동수전투** 및 왕건길 1코스에서 본 **파계사**	이상국	영진관광문화협동조합이사장 (문학박사, 전통사찰 전공)
2회차	3. 16(목) 10:00~12:00	왕건길 2코스에서 본 **부인사**	〃	〃
3회차	3. 23(목) 10:00~12:00	**현장답사**	〃	〃
4회차	3. 30(목) 10:00~14:00	**달구벌전투** 및 왕건길 3코스에서 본 **동화사**	현태덕	전) 안동대 사범대학장
5회차	4. 6(목) 10:00~12:00	왕건길 4코스에서 본 **북지장사**	이상국	영진관광문화협동조합이사장 (문학박사, 전통사찰 전공)
6회차	4. 13(목) 10:00~14:00	왕건길 5코스에서 본 **갓바위**	〃	〃
7회차	4. 20(목) 10:00~12:00	**현장답사**	〃	〃
8회차	4. 27(목) 10:00~12:00	왕건길 6코스에서 본 **용암산성**	정상수	(재) 다온문화재 연구원장 (문학박사, 고고학전공)
9회차	5. 4(목) 10:00~18:00	7코스에서 본 **웰다잉 (관음사)**	변태현	현) 대구수성문화재단 이사
10회차	5. 11(목) 10:00~18:00	**현장답사**	〃	영진관광문화협동조합이사장 (문학박사, 전통사찰 전공)
11회차	5. 18(목) 10:00~12:00	팔공산의 서원 및 유학자	권병도	현) 동양예학회 교수 (문학박사, 퇴계학전공)
12회차	5. 25(목) 10:00~18:00	주역으로 본 팔공산 및 수료식	강성호	전) 대구미래대학 학장

※ 전화신청은 우선 성명, 생년월일, 주소, 직업을
010-3527-9787로 문자요망

학폭·인사검증 실태 野 "조사 나서겠다"

민주 "검사 하나회 연상" 맹폭
"검증 라인 반드시 문책해야"
尹 "학폭근절 방안 마련" 지시
교육부 "대입 불이익 꼭 반영"

정순신 변호사가 아들의 학교 폭력(학폭) 문제로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것과 관련해 야당이 학폭과 인사검증 실태를 조사하겠다며 나섰다. 이어 대통령실과 교육부도 학폭 근절과 대입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혀 논란이 확산되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측근 검사를 요직에 등용하려다 인사에 실패한 것과 관련해 '검사 하나회'를 연상시킨다며 날 선 비판을 내놨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최악의 인사 참사"라며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라는데 이 정권의 인사는 온통 망사(亡事)"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순식 전 검사가 대통령 측근 검사이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과 사법 연수원 동기라는 점을 거론하며 "검사들이 요직을 독식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특정 기수 중심으로 국가 권력을 장악하는 '검사 하나회'까지 등장한 것이냐"고 꼬집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무리하게 검찰 편향 인사로 사정기관을 채운 부작용이 결국 '역대급 인사참사'로 증명됐다"며 "온통 검사로만 채워진 대통령실 인사검증 라인은 반드시 문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정 변호사 아들의 학폭 사태에 당시 검찰 고위직이었던 정 변호사가 개입했는지, 또 서울대 입학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조사하겠다며 '정순신 (아들) 학폭 및 인사검증 실태 조사단'을 출범시킬 방침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정 변호사의 아들의 학폭의 서울대 입학시 생활기록부 반영 여부에 대해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학교 처분이 있으면 생활기록부에는 바로 기재된다. 서울대 입시에서도 생활기록부가 그대로 활용됐다고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학교폭력 가해자가 대입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실질적 대책을 마련이 필요하다는 야당 측 지적에 대해 "정시에서도 (학폭 조치사항을) 꼭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잘 듣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장 차관은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대책이 수립된 지 10년이 넘었다'며 "정 변호사 아들의 학폭 사건 등을 사회적 요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학폭 근절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교육부는 교육청 등 유관 기관과 협력해 학폭 근절 대책을 조속히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민호 기자 lmh@imaeil.com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의 '선거제도 개혁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초당 개혁모임 '중·대선거구제 도입' 논의

승자독식·지역주의 해소 다뤄
日 중의원 파벌 정치 반면교사
비례 비율 개선·권역별 비례 등
지역대표성 쥐 소멸위기 대응

국회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이 27일 경제사회연구원과 함께 '선거제도 개혁 방안 모색'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열고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국회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는 현행 소선거구제의 문제인 승자독식 정치, 지역주의 해소를 위한 대안으로써 언급되는 중·대선거구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특히 지역소멸위기 대응을 위해 지역대표성을 부여한 권역별 비례제 도입 등도 논의됐다.

첫 발제자로 나선 한의석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중선거구제와 관련해 일본의 사례를 들어 중선거구제 도입 시 장단점을 설명했다.

한 교수는 장점으로 "사표가 적고 인물 선택의 폭이 넓다. 전국적 대표 선출에 유리하고 소수정당의 진출이 용이하다"면서도 단점으로는 "다당제로 인한 정치적 불안정, 선거비용 증가와 보궐선거·재보궐선거의 어려움, 유권자의 후보자 파악 어려움 및 도일 정당 내 후보경쟁 과열화가 있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일본 중의원(하원)의 경우 파벌 정치 심화와 금권정치, 이익유도 정치, 개인 중심 선거, 야당의 통합 저해 등 비판점을 제시했다. 이어 한국 소선거구 비례대표제의 문제점에 대해선 양극화된 대결적 양당 경쟁체제와 공천을 위한 맹목적 지지, 지역주의 지속, 비례대표제에 대한 불신 등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중선거구제 채택 시 예상 효과로는 다당제와 갈등 완화, 지역주의 완화 가능성을 말했다.

조원빈 성균관대학교 교수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워크숍의 성과와 국회의장 산하 정치제도 개선 분과 활동 등을 언급하면서 비례제도 개선과 중·대선거구제 도입 효과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조 교수는 비례제 개혁 관련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비율 개선 및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통해 지역대표성을 부여하는 방안이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하는데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국민의힘 김학용, 이종배, 최형두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김두관, 윤관석 의원 및 정의당 심상정, 강은미 의원 등 20여명의 의원이 참석했다.

강영훈 기자 green@imaeil.com

"김기현 공개 지지" 권영진 정치 재개 기지개

국힘 TK 특보단 관리 역할 맡아
내년 총선 염두에 둔 행보 해석
權 "과거의 인연 각별해 돕는 것"

잠행을 이어가던 권영진(사진) 전 대구시장이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김기현 의원을 공개 지지하면서 정치 보폭을 넓혀가고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본격적인 몸풀기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권 전 시장은 최근 대구경북에서 김 의원의 지지세 몰이에 총력을 기울이는 등 정치 활동에 기지개를 켜고 있다. 그는 이달 1일 김 의원의 '대구경북 특보단 임명장 수여식'에서 임명된 약 200명 규모의 특보단을 관리하는 역할도 맡고 있다. 다만 김 의원 캠프에서 공식적인 직책을 맡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권 전 시장은 지난 8일 국민의힘 당대표 예비경선(컷오프) 여론 조사가 시작되자 '나는 왜 김기현을 지지하는가'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려 김 의원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그는 "김기현 당 대표 후보를 적극 지지하고 응원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 우리 당을 서민들과 함께하고 지방을 살리는 진정한 국민의힘으로 거듭나게 할 적임자"라고 호소했다.

한동안 정치 활동을 자제하던 권 전 시장이 김 의원 당선을 목표로 정치 행보에 나서면서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둔 움직임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김 의원이 당 대표가 되면 공천 국면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어서다.

권 시장이 지난 2014년 대구시장에 당선됐을 당시 김 의원도 울산시장으로 당선돼 4년간 광역자치단체장으로서 인연이 겹친다. 앞서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시절에도 친분이 깊었다.

게다가 권 시장은 다음 달 중순 과거 지방선거 출마 당시 캠프 인사들이 주축이 된 '분권과 통합' 포럼이 발기인 대회를 연다. 선거를 염두에 두고 조직 정비에 나선 모양새다. 실제 권 시장의 출마 지역구를 두고 대구 중구남구, 동구갑, 수성구을 등 여러 시나리오가 흘러나오고 있다.

권 전 시장은 "김 의원은 과거 저와의 인연이 각별하고 당 대표 적임자라서 자원봉사 격으로 돕는 것이다. 내년 총선에 대해서도 출마 의사를 결정하지 않았고, '분권과 통합' 포럼 역시 뜻이 맞는 사람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한 학술 모임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수현 기자 sontag@imaeil.com

나희승 코레일 사장 해임안 의결

오봉역 사고·영등포역 탈선 물어
文정부 임명 기관장 첫 사례될 듯
尹대통령 이르면 이번 주 내 결정

정부가 나희승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에 대한 해임 절차에 들어갔다.

27일 열린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서 국토교통부가 올린 나 사장 해임 건의안이 의결됐다.

국토부는 오봉역 코레일 직원 사망 사고, 영등포역 무궁화호 탈선 사고 등 철도 사고가 잇따르자 코레일에 대한 감사를 벌였고 기관 운영·관리 부실 책임을 물어 나 사장 해임을 건의했다.

나 사장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11월 임명됐다. 나 사장 해임이 확정될 경우 문 정부에서 임명한 공기업·공공기관 사장에 대한 첫 해임 사례가 된다.

국토부는 공운위에서 철도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나 사장이 져야 한다는 뜻을 피력했으며, 나 사장도 변호인과 함께 출석해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공운위 의결에 따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나 사장 해임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청하게 된다.

통상 해임 제청 3, 4일 후 대통령 재가로 해임이 이뤄진 전례를 고려하면 나 사장 해임 결정은 이번 주 안에 나올 가능성이 크다.

다만 나 사장이 해임 결정에 불복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 윤 대통령 재가가 나면 징계 효력 가처분 소송을 걸고 본안 소송도 함께 제기할 가능성이 나온다.

앞서 나 사장은 지난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진 사퇴를 압박하자 "공사의 안전 체계를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끝까지 소명을 다해야 한다"며 사퇴 거부 의사를 밝혔다.

강은경 기자 ekkang@imaeil.com

"한발 빠른 뉴스"
안드로이드용
매일신문앱
아이폰용

칠성시장 주차장 건설, 위치도 못 정했다

함께 추진 수성구 신매시장과 대조

전자주방상가~신천둔치 사이
대구시·인근 상인 반대로 표류
자재비 인상 여파 예산도 부족
북구청 "곧 변경안 결론 짓겠다"

올 하반기 완공 예정이었던 칠성시장 지하주차장 사업이 난관에 빠져 있다. 함께 추진됐던 수성구 신매시장은 지난달 착공에 들어간 반면 칠성시장은 아직 정확한 주차장 위치도 못 정한 상태다.

26일 북구청에 따르면 애초 주차장 건설 위치는 칠성시장 전자주방상가와 신천둔치 사이 도로로 예정됐다. 북구청은 이곳 왕복 8차로 도로 중 4차로를 입체화하고, 지하에 연면적 4천㎡ 규모로 주차면 110개를 조성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인근 상인들이 거세게 반발했고, 도로 소유권을 가진 대구시도 교통 혼잡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했다.

북구청은 결국 신천둔치공영주차장 인근 공간을 활용하는 새로운 안을 마련해 칠성시장 상인회 및 대구시 등과 협의를 거치는 중이지만, 실제 착공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새로운 위치도 대구시가 추진하는 신천 프로젝트와 사업공간이 맞물려 있어서다. 30면 정도의 기존 노면 주차장을 없애야 하는 탓에 사업성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부족한 예산도 지하주차장 착공을 어렵게 하고 있다. 북구청은 지난 2020년 관련 사업 예산 95억 3천만원을 중소기업벤처부로부터 교부받아 설계비 5억원 등을 사용하고 남은 90억원을 건설비용으로 책정해 둔 상태다.

하지만 최근 물가 상승 등으로 건설자재 비용이 늘어났다. 지난해 포항 지하주차장 참사로 침수방지 설비에 대한 규정이 까다로워져 관련 예산 반영 항목도 늘어났다.

새로운 설계안에 대해 상인회와 대구시의 동의를 얻어내더라도 실제 착공 시기는 더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 예산을 교부 받았던 중기부로부터 사업 변경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칠성시장 지하주차장 사업은 지난 2019년 칠성시장상인연합회가 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가운데 주차환경 개선사업에 선정되면서 본격화됐다.

당시 함께 선정된 신매시장은 지난달 16일 지하 2층, 지상 1층 규모로 착공에 들어갔다. 총사업비 184억원을 투입해 내년 11월까지 연면적 5천298㎡ 규모로 주차면 132개를 조성할 계획이다.

북구청 관계자는 "기존에 있던 녹지지역에 지하주차장을 건립하는 신매시장과 달리 칠성시장은 신천둔치나 도로 등을 활용해야 하는 탓에 시간이 더 걸리고 있다"며 "조만간 상인회, 대구시 등과 변경안에 대한 결론을 짓고 착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현 기자 shine@imaeil.com

40대女에 발길질 한 중학생
112 신고 당하자 보복 폭행

출동 경찰에 "안 때렸다" 거짓말
2차 범죄 공모, 여성 찾아 또 때려
경찰 "당시 가해·피해자 분리시켜"

길을 걷던 40대 여성을 폭행하고 이를 SNS에 올려 공분을 산 대구 중학생들의 무차별 폭행 사건은 112신고에 앙심을 품은 보복 폭행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8일 새벽 4시 30분쯤 중학생 A군과 B군은 대구 서구의 한 골목길에서 혼잣말하며 지나가던 40대 여성에게 "왜 욕을 하느냐"며 시비를 걸었다.

피해 여성이 현장에서 벗어나려 하자 B군이 여성의 몸을 발로 차 넘어뜨렸고, A군이 일어나려는 피해자를 등 뒤에서 발로 찼다. 이 때문에 피해 여성은 갈비뼈 골절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폭행당한 여성이 112에 신고하자, 가해 학생들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때리지 않았다"고 거짓말했다. 경찰이 돌아가자 A군 등은 근처 무인 아이스크림 점포에서 보복 방법을 논의했다.

가해 학생들은 보복하기 위해 피해 여성을 찾아다니던 중 우연히 골목에서 피해자를 다시 맞닥뜨렸고, 피해 여성의 얼굴 등을 무차별 폭행했다. 이들과 함께 있던 C양은 휴대전화로 피해자가 폭행당하는 장면을 촬영하기도 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2월 가해 학생들이 SNS에 폭행 영상을 올리면서 범행이 드러났다. 사건 당시 112신고가 있었다는 사실이 추가로 확인되자 경찰 대응이 부실했던 것 아니냐는 논란도 일었다.

이에 경찰은 초동 수사에 문제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당시 현장에 출동해 가해 학생들의 인적 사항을 파악했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시켰다는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 갔을 때 피해 여성이 흥분한 상태로 대화가 잘 안 됐고 어디 다쳤냐고 물어도 대답을 잘 못했다"며 "피해 여성에게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했지만 혼자 가겠다고 해서 철수했다"고 말했다.

지난달 A군 등 3명은 길 가던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되거나 소년원에 넘겨진 상태다. 특히 A군은 지난해 11월에도 길에서 우연히 만난 후배 D군과 이야기하던 중 "눈빛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도 오후 10시 20분쯤 대구 서구의 한 아파트 계단에서 D군이 존댓말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뺨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윤수진 기자 jjin@imaeil.com

바닷속 그물 걸려 선장 사망
외국 국적 선원 1명도 실종

경북 포항 앞바다에서 6톤(t)급 어선 선장이 바닷속 그물에 걸려 숨진 채 발견되고 선원 1명이 실종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27일 포항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27분쯤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북동쪽 1.2㎞ 떨어진 바다에서 선장과 선원 1명이 타고 나간 연안자망어선 A호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다.

신고는 A호 선장 B(40대 남성) 씨의 아버지가 했다.

수색에 나선 해경은 어선 아래에서 그물에 걸려 축 늘어진 B씨를 발견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B씨는 끝내 숨졌다.

외국 국적 선원 C(30대 남성) 씨는 아직 실종 상태로, 포항해경은 수색 인력을 동원해 C씨를 찾는 데 주력하고 있다. 어선은 바다에 별다른 이상 없이 떠있으며, 여기서 C씨는 발견되지 않았다. 해경 경비함정 4척, 연안구조정 3척, 구조대 1척, 헬기 1대와 민간구조선 4척이 동원돼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실종자를 한시라도 빨리 구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배형욱 기자 ship@imaeil.com

이륜차 집중 단속 27일 대구 달서구 진천네거리에서 달서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찰관이 이륜차 법규위반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대구경찰청은 3·1절을 앞두고 이날부터 내달 5일까지 이륜차 불법행위 집중 단속에 나서고 있다. 안성완 기자

상품권 판매 미끼, 4천만원 챙긴 40대 집유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이영숙 부장판사)은 인터넷에서 백화점, 주유, 모바일 상품권 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다며 사람들을 속여 돈만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9)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공범 B씨와 함께 2012년 8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상품권을 15~20% 할인한다는 글을 올렸다. 이들은 사람들에게서 상품권 대금을 받았지만 상품권을 싸게 구매할 능력이나 자금은 없는 상태였다.

A씨는 초기에 상품권을 구매한 사람들에게 나중에 상품권을 구매한 사람들에게서 받은 자금으로 상품권을 구매해 제공했다. 결국 시간이 지날수록 상품권을 판매하면서 생긴 적자가 누적돼 구매자들에게 상품권을 제공할 수 없었다.

A씨는 피해자 77명으로부터 1억2천여만원을 송금받아 일부 금액만 지급하는 방식으로 4천690만원의 경제적 이득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윤기 기자 yoonki@imaeil.com

신청사 준공 두 달만에 누수, 원인은 부실 시공

울진군, 업자에 무관용 원칙 대응

경북 울진군은 지난해 8월 준공한 죽변면사무소 신청사 누수(매일신문 2022년 10월 7일 보도)의 원인이 부실시공 때문이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관련자를 제재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죽변면사무소는 2022년 8월 3층 규모(연면적 1천380㎡)로 준공했으나 두 달여 만에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 직원들과 민원인들이 우산을 쓰고 업무를 보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이에 군이 감사를 벌인 결과, 지붕과 천장에 사용돼야 할 합판과 비닐시트가 방수재가 아닌 일반합판과 아스팔트로 시공돼 비가 오면 누수를 일으킨 것으로 확인됐다. 이곳엔 바닥에서도 물이 고였는데 이 역시 주변 인도 포장이 건축물보다 높아 물이 건축물로 흐르도록 잘못 시공해 청사 내로 빗물이 흘러들게 한 것으로 밝혀지는 등 시공 전반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울진군 관계자는 "죽변면 청사 부실시공 업체에 입찰 제한 등 강력한 제재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며, 향후에도 모든 공사에 대해 이러한 일련의 부실 공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련 공무원 및 업체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상원 기자 seagull@imaeil.com

모 집

모 집 기 타

이론과 실무를 알고 주식 투자하기 수강생 모집
영남대평생교육원(3월개강) 810-4965

사무 여직원 구함
엑셀/워드 가능, 30세 전후,
신설의료법인 (위치: 죽전사거리)
655-3000

배 달 직

배달원 북구 산격1·3·4동 일대 남여노소 가능
오토바이소유자必 010-4628-1134

성당지국 성당동, 감삼동, 본리동 일대
배달가능 010-3819-0808

배달원 황금동, 두산동, 지산동일대 주택 상가 주부환영 경험자우대 황금두산, 지산지국762-4769

배달원 급구
경산시 압량읍 010-2517-1109

배달원 구함 평리동, 비산동, 내당동 오토바이 소유자
우대 남녀노소 가능010-2802-6313

배달원 모집 남대구·교대
영대지국 010-8567-4171

배달원급구 대신동일대 남녀노소
252-7741·010-2511-1274

배달원모집 중구 휴학생우대,
초보가능 종로지국 257-2902

배달원급구
율하, 신기, 안심 963-7355

배달원급구 파동 일대 남녀노소
오토바이 소유자 767-3649

배달원모집 안심1·2동 일대
남녀노소가능 962-3290

배달원 달성 논공·옥포읍 면소재지,남여노소 정년,퇴직자,
오토바이소유자 우대010-3521-9876

배달원모집 용산동·이곡동일대
남여노소, 주부우대010-2534-5529

배달원모집 성당/두류동 일대 남여노소
감삼두류3지국 010-3071-3529

배달원급구 범어4동일대 업계최고대우
중범어지국 010-3515-6388

아파트 배달 원 시지, 노변동 남고산
지국 791-3061·010-2873-8885

대명4동 일대 남녀노소, 오토바이 소지자可
서대명지국 010-3511-0195

배달원모집 만촌1동
754-4370

만촌3동 일대 배달원 모집
남녀노소 최고대우 010-3513-0826

황금롯데캐슬아파트 신문배달원 모집
매일·조선·동아 배달 오토바이 소지자
우대 783-2737·010-8543-1930

신문배달 고산 1,2,3동 시지 지역 남녀노소 최고
대우 794-0228·010-7929-8533

배달원 동구 방촌동 남여노소가능, 오토바이 소유자 우대 010-5584-8331

이시아폴리스 아파트 배달원
숙식 제공 불로지국 985-1137

배달 사원 오토바이소유자 및 송현1·2동거주자 환영 송현1
동지국 625-6315·010-2809-0030

배달원모집 봉덕/이천동 오토바이소유자 특대우 남부지국 471-9478

배달원모집 오토바이 소유자
노원동 3공단 010-6509-9174

배달원모집 경산 거주자 우대, 경산시
진량읍 진량지국 010-3536-6620

직업 배달원 오토바이소유자 새벽2시~6시30분자유(1시간50분소요)
월50만 남칠곡지국 010-3810-7005

배달원급구 총무 신천동, 대현2동,
신암동, 칠성동 일대010-3046-3113

매일안내
광고문의 및 접수
T.(053)251-1234
080-711-2001
F.(053)255-7886
광고료 입금계좌
대구은행
069-05-138135-001
농협
703-01-341142
예금주 : 매일신문사

상속한정승인공고

사건번호 : 2023느단10115 대구가정법원
피상속인 : 망 오광훈 (1957.09.24.생)
사 망 일 : 2022.10.27.
최후주소 : 대구 중구 남산로6안길 27-16, 102호 (남산동)

민법 제1032조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65조의2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공고일로부터 2개월 내에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함.

2023. 2. 28.

청 구 인 : 오현석, 오양석
주 소 : (오현석) 대구 수성구 희망로20길 10, 103동 103호(중동, 수성데시앙리버뷰)

상속한정승인 및 상속포기공고

사건번호 : 2023느단120 대구가정법원
피상속인 : 망 손영달 (1941.7.7.생)
사 망 일 : 2022.11.9.
최후주소 : 대구 수성구 천을로31길 13(매호동)

민법 제1032조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65조의2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공고일로부터 2개월 내에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함.

2023. 2. 28.

청 구 인 : (상속한정승인) 손강식
(상속포기) 김유순, 손중식
주 소 : (손강식) 경산시 원효로26길 20-12 (계양동)

자본감소공고 및 주권제출공고

본 회사는 2023년 02월 27일 주주전원서면결의로 자본의 총액금410,000,000원중 금405,000,000원을 감소하여 자본의 총액을 금5,000,000원으로 하기로 하고, 그 방법으로 각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총수에 대하여 감자하는 주식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자본감소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 공고 게재 다음날부터 1월 이내에 본사에 이의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본회사의 구 주권을 소지하신 분은 위 기간 내에 본사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02. 28.

주식회사 금국산업
경상북도 김천시 아포읍 예리 33-1
사내이사 박 문 수

합병에 따른 주권제출 및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주식회사 지엠머티리얼즈("갑")과 주식회사 지엠텍("을")은 2023년 2월 27일 각 주주총회의 결의로 "갑"은 "을"을 합병하여(본 합병의 합병비율은 "을"의 주식 1주당 "갑"의 주식 1.65112주를 배정함) 그 권리의무를 승계하여 존속하고 "을"은 해산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을"의 주권을 소지하고 있는 분은 공고게재 익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을"에게 주권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본 공고 게재일 다음날부터 1개월 내에 관계회사에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2월 28일

주식회사 지엠텍
경상북도 칠곡군 석적읍 중리 525-1
대표이사 양 길 상

합병에 따른 주권제출 및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주식회사 지엠머티리얼즈("갑")과 주식회사 지엠텍("을")은 2023년 2월 27일 각 주주총회의 결의로 "갑"은 "을"을 합병하여(본 합병의 합병비율은 "을"의 주식 1주당 "갑"의 주식 1.65112주를 배정함) 그 권리의무를 승계하여 존속하고 "을"은 해산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을"의 주권을 소지하고 있는 분은 공고게재 익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을"에게 주권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본 공고 게재일 다음날부터 1개월 내에 관계회사에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2월 28일

주식회사 지엠머티리얼즈
경상북도 김천시 어모면 산업단지4로 89-25
대표이사 양 길 상

대구도시개발공사가
ESG경영으로 대구 미래 50년을 만들어나갑니다.

시민과 자연이 함께하는 친환경 휴식공간 대구대공원으로,
주거복지 원스톱 서비스를 위한 주거복지센터로,
시민 안전을 지키는 안전중심 경영으로,

자유와 활력이 넘치는 파워풀 대구 건설과 미래번영을 선도하는 일등공기업

대구도시개발공사가 ESG경영에 앞장서겠습니다.

대구도시개발공사
Daegu Urban Development Corporation

“80억 또 들일 판” 전처리시설 있었다면…

〈소각에 앞서 폐기물을 한 차례 걸러 주는 것〉

경북 폐기물처리 맑은누리파크
2천억 투입 2019년부터 가동
사전 선별처리 안돼 잦은 고장
화재 피해 복구도 막대한 비용
道 “지역별 최대한 분리 배출”

경북 북부 광역 폐기물처리장 ‘맑은누리파크’에 당초 계획한 전(前)처리시설을 생략하면서 고장·화재 등 80억원 이상 천문학적 비용 낭비가 발생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경북도에 따르면 맑은누리파크는 2011년 경북도가 안동시와 예천군 등 경북 북부 11개 시군의 생활·음식 폐기물을 일괄 처리하려 민자 사업으로 계획한 시설이다. 2천97억원을 들여 짓고 2019년 11월 가동을 시작했다.

그러나 맑은누리파크 사업자 경북그린에너지는 가동 이후 잦은 수리와 화재로 입은 피해, 이에 대한 복구 비용 등으로 수십억원을 지출했거나 해야 할 처지다.

전처리시설 부재가 그 이유로 꼽힌다. 영농폐기물이 소각로 설비 부식을 유발하고, 폐콘크리트나 철근 등 건설 폐기물이 소량씩 반입돼 고장의 원인이 됐다.

집하장 화재 역시 가정에서 배출하는 배터리나 소형 가전 폐기물 등이 원인으로 추정돼 이를 사전에 거르는 작업만 진행됐어도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는 관측이다.

맑은누리파크는 2019년 이후 최근까지 설비 고장 및 보완을 이유로 모두 88일(전면중단 39일, 일부중단 49일) 동안 폐기물 반입을 중단하고 수리에 나섰다. 올해부터는 소각로 내 내식설비 설치에도 60억원을 들인다.

경북도청 신도시 내 광역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맑은누리파크’. 매일신문 DB

지난 3일에는 이곳 생활폐기물 집하장에서 발생한 불이 나 이틀 동안 건물 벽과 천장, 폐기물 운반 크레인 등을 태워 19억원(소방 추산) 재산피해를 냈다.

2014년 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 제3자 공고 내역을 보면 경북도는 당시 맑은누리파크에 하루 450톤(t)의 폐기물을 선별 및 파쇄할 수 있는 전처리시설을 두고자 했다.

도는 이곳에 전처리시설과 생활폐기물 고형연료(RDF) 발전 설비를 각각 설치하고, 분리한 생활폐기물 일부를 파쇄해 발전용 연료로 쓰고자 했다.

하지만 PIMAC 측은 전처리시설 생략을 제안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RDF 발전 대신 소각열 발전시설이 효율적이며, 국내에선 분리배출도 잘 돼 전처리 공정이 불필요하다는 이유였다.

현재는 맑은누리파크 주변에 전처리시설 등을 설치할 부지가 없다 보니 개선이 어려울 전망이다. 경북도는 각 시군에 개별 전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주민들 분리배출 의식을 높이는 등 자정능력 강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시군 개별 부담을 다시 키우는 꼴이 돼 출혈이 크다. 지역별 분리배출만이라도 최대한 유도해 낭비를 줄이겠다”고 말했다.

홍준헌 기자 hjh@imaeil.com

경북대 치의예과 ‘324:1’

대입 추가모집도 의·약학계 강세
조선대 치의예 690:1 ‘전국 최고’

2023학년도 대입 추가모집에서도 의·약학계열이 초강세를 보였다.

27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전국 24개 의대·치대·수의대·약대·한의대 등 의·약학 계열의 추가모집 경쟁률을 분석한 결과, 30명 모집에 모두 8천845명이 몰려 294.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가장 경쟁이 치열했던 곳은 조선대 치의예과로 1명 모집에 690명이 몰려 ‘690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는 2023학년도 수시와 정시 통산 최고 경쟁률이다.

대구권 의학 계열에서 유일하게 추가모집을 실시한 곳은 경북대 치의예과로, 2명 모집에 648명이 지원해 ‘324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추가모집을 진행한 의·약학계열 중 가장 치열한 경쟁을 보인 계열은 치대로, 평균 경쟁률이 ‘446대 1’에 육박했다.

이어 ▷의대(410.5대 1) ▷수의대(341대 1) ▷약대(243.1대 1) ▷한의대(239대 1) 순으로 평균 경쟁률이 높았다.

의대에선 ‘498대 1’을 기록한 가톨릭관동대 의대가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전남대 수의예과(476대 1), 충북대 제약학과(539대 1), 상지대 한의예과(464대 1)가 각 계열에서 경쟁률 1위를 차지했다.

한편, 이번 대입에서 약대를 제외한 나머지 계열 모두 서울과 수도권에서의 추가모집은 1명도 발생하지 않았다. 전국 의대 수시 이월 인원(12명)은 모두 비수도권에서 생겼다.

입시계에 향후 수도권 대학을 중심으로 한 의학계열 집중 현상이 더욱 심화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2023학년도에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의대에서는 수시 이월 인원이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다”며 “이는 당초 수시 모집에서 정원을 모두 채웠다는 의미로, 수도권 중심의 의학계열 쏠림 현상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정훈 기자 hoony@imaeil.com

울진에 8만㎡ 유기농 복합센터
친환경 제조·체험·소비 ‘원스톱’

정부 주관 지원단지 공모 선정
학교·김치공장·전시관 등 설치

경북 울진에 ‘유기농 산업 복합서비스 지원단지’가 들어선다. 친환경 농식품의 환경가치를 널리 알리고 제조·체험·소비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경북도는 27일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유기농 산업 복합서비스 지원단지’(이하 유기농복합단지) 공모 사업에 울진군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유기농복합단지 조성사업은 친환경 농업과 연계한 교육·체험·소비·유통 복합 공간을 만들어 친환경 농업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소비확대 효과를 얻고자 실시하는 것이다.

사업 대상지는 울진군 근남면 왕피천 공원 일대다. 이곳에서 올해부터 2026년까지 4년간 총사업비 180억원(국비 90억원, 지방비 90억원)을 투입해 8만4천341㎡ 규모 유기농복합문화센터를 신축한다.

사업 첫해인 올해는 각종 시설물 설치에 필요한 행정절차 등 기본계획을 세운다. 내년에 공사 설계와 관리운영 방식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확정해 2024년 단지조성 공사를 시작한 뒤 2025년 단지 조성을 마칠 계획이다.

유기농복합단지에는 ▷청년유기농사관학교 ▷친환경 김치제조공장 ▷미래농업전시관 ▷친환경농업 관련 각종 체험 교육장을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단지를 모두 짓고 나면 울진군 일대 관광명소들과 연계해 방문객 연 50만명 이상이 왕피천 공원을 찾을 것으로 경북도는 내다봤다.

아울러 도내 학교들의 체험학습을 유치해 친환경 농업의 환경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 건강한 식습관도 형성하는 등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미래 수요를 키울 방침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울진에 유기농복합단지가 들어서면 친환경농업의 가치를 국내 소비자에게 널리 알릴 수 있을 것이다. 안전한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바탕으로 소비가 생산을 이끄는 선순환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홍준헌 기자

새학기 급식 위생점검 새 학기 개학을 사흘 앞둔 27일 오후 대구 달서구 월암중학교에서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들이 급식시설에 대한 위생점검을 하고 있다. 대구시교육청은 식재료 관리와 급식종사자 건강진단 등 학교별 위생점검을 28일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정운철 기자 woon@imaeil.com

설악산 케이블카 허가…팔공산 갓바위는?

중단됐던 사업 재추진 여부 관심
市 “지역 상황 달라, 당장은 일러”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신규 설치 사업에 대해 환경부가 27일 ‘사실상 허가’ 결정을 하면서 대구 팔공산 갓바위 케이블카 사업 재추진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환경부 소속 원주지방환경청은 27일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삭도(索道·케이블카의 법령상 명칭)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조건부 협의’ 의견을 양양군에 통보했다. 상부 정류장 규모 축소 등 몇 가지 조건을 달았지만 사실상 케이블카 설치를 허용한 것이다.

이 같은 결정은 대구경북 등 그동안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해 온 다른 지자체들의 행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찬반 입장이 첨예해 재추진 여부를 속단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앞서 대구시는 민선 8기 출범 후 팔공산 갓바위에 케이블카 설치를 계획했지만, 팔공산에 위치한 동화사 등 불교계와 환경단체가 환경훼손 등을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면서 결국 사업을 중단했다.

팔공산 국립공원 지정을 앞두고 케이블카 설치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앞서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지리산과 설악산 등도 오랫동안 케이블카 설치를 시도해왔지만, 매번 환경부의 심의 문턱을 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설악산 빗장이 풀리면서 사정이 달라졌다. 환경단체들은 당장 지자체 케이블카 사업 바람이 다시 거세질 것으로 우려한다. “설악산이 됐는데 우리 지역도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민원이 쇄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케이블카 설치 장소마다 관할 기관과 지역 상황이 모두 다르다. 팔공산 사업은 불교계도 강하게 반대해 당장 사업 재추진 여부를 논하기는 이르다”며 “설악산 케이블카 조건부 허가 영향을 신중하게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장성현 기자 shjang@imaeil.com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4계>

※QR코드:법원경매정보 웹으로 접속됩니다.

사건번호	매각물건 물건번호	소재지 및 면적[㎡]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단위:원]	비고
[아파트]					
2022타경 110544	1	동구 각산동 383-1 안심효성타운 102동11층1103호 84.6㎡	아파트	203,000,000 203,000,000	
2022타경 111950	1	동구 화랑로75길6,101동11층1110호 [방촌동,방촌청구제네스] 84.7767㎡	아파트	322,000,000 322,000,000	
2022타경 112342	1	북구 대현남로25,201동1층106호 [대현동,대현한신휴플러스] 51.81㎡	아파트	247,000,000 247,000,000	
2022타경 113956	1	북구 구암로12,2동13층1304호 [관음동,롯데아파트] 84.99㎡	아파트	187,000,000 187,000,000	
2022타경 114171	1	수성구 천을로70,103동19층1902호 [시지동,시지월드메르디앙] 84.9996㎡	아파트	606,000,000 606,000,000	2022타경112656 [중복]
[대지/임야/전답]					
2022타경 3011	1	수성구 황금동 347 1706㎡ [감정가는조경수 소재감안시가격]	답	524,083,200 524,083,2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지상조경수제3자소유로매각제외
2022타경 3288	1	칠곡군 동명면 기성리 산73-1 250㎡	임야	2,603,780,000 2,603,780,000	일괄매각[제시외건물미포함].제시외건물내역:목록2일부소유자미상주택1동,목록2,3일부소유자미상차고3동.매각제외하는지상건물위해법정지상권성립여지있음
		동소 산74 2960㎡	임야		
		동소 산75 3174㎡ [물건번호1:목록1~3공부상지목각임야이나전원주택개발지로현재토목공사진행된상태.목록2,3은2필일단으로2019.7.5자단독주택용도의건축허가[허가면적5,257㎡]득하여현재대부분토목공사완료하였으나허가관련개발행위및건축허가의존속,연장여부,소유관계,허가소재지,허가및신고면적등상세내역은필히재확인할것.목록2,3공부상임야이나현황잡종지.감정가는수목포함되었으며목록2,3은건축허가및토목조성,일부현황도로및법면,소유자미상건물로인한소유권제한을각각안]	임야		
2022타경 3387	1	영천시 청통면 신덕리 86-2 280㎡ [매각제외지상건물위한법정지상권성립여부불명.소재지일반건축물대장에목조주택2동등재]	대	56,000,000 39,200,000	제시외건물매각제외및감안평가
2022타경 3899	1	영천시 화남면 용계리 산14-1 8889㎡	임야	41,778,300 41,778,300	공부상지목임야,현황도로및자연림
2022타경 3974	1	수성구 황금동 342-2 929㎡	전	297,280,000 297,280,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022타경 4076	1	영천시 대창면 조곡리 626 883㎡	전	36,203,000 36,203,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022타경 4274	1	영천시 임고면 덕연리 75 2044㎡	답	251,002,000 251,002,000	일괄매각[제시외농막제외].지상과수목매각포함
		동소 287 1017㎡ [물건번호1:목록1,2각공부상지목답이나현황과수원.농지취득자격증명요]	답		

사건번호	매각물건 물건번호	소재지 및 면적[㎡]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단위:원]	비고
2022타경 4878	1	영천시 화남면 구전리 산52 666446㎡	임야	999,669,000 999,669,000	공부상임야이나일부현황도로
2022타경 109483	1	경산시 남산면 반곡리 10 2430㎡ [지상개발행위허가및건축허가[허가번호2017-허가민원과-신축허가-132]득한후,신축중건물있음.제시외건물및컨테이너매각제외및감안평가[법정지상권성립여부불분명]]	과수원	481,140,000 481,140,000	공부상지목과수원이나현황잡종지및일부도로.농지취득자격증명요.별지남산면사실조회회신참조
2022타경 112045	1	청도군 화양읍 송금리 산115-2 14777㎡ [전소유권종5/15[단,김찬주지분전부].다수분묘소재감안평가[분묘기지권성립여지있음].임지와입목일괄평가]	임야	9,851,340 9,851,340	지분매각[공유자의우선매수관한특별매각조건있음]
2022타경 112946	1	경산시 남산면 연하리 298 1148㎡ [지상과수목매각포함.유연분묘5기소재[분묘기지권성립여지있음]]	전	107,912,000 107,912,000	공부상전이나현황과수원및묘지.농지취득자격증명요
[단독주택,다가구주택]					
2022타경 113444 2022타경 114652 [중복]	1	남구 대명동 1900-18 200㎡ [전소유권중2/11[단,이종훈지분전부]]	대	39,415,090 39,415,090	지분매각[공유자우선매수권행사제한],일괄매각[제시외건물포함].제시외건물중목록2-2일부타지상소재
		남구 중앙대로31길 119-9 단층 1층76.2㎡ 1층29.04㎡ 제시외 창고 등 5.44㎡ [전소유권중2/11[단,이종훈지분전부].관할감가일부타지상소재]	주택		
2022타경 114430	1	북구 대현로서15길 23[4가구] 1층단독주택 37.20㎡ 1층전당포15.12㎡ 2층단독주택51.03㎡ 3층단독주택46.50㎡ 제시외 현관및다용도실2.5㎡ [전소유권중9/17[단,서보경지분전부]]	근린시설,단독주택	128,145,310 128,145,310	일괄매각[제시외건물포함].지분매각[공유자우선매수권행사제한].목록2공부상지목대이나현황대및일부도로이며감안평가
		북구 대현동 226-8 92.2㎡ [전소유권중9/17[단,서보경지분전부]]	대		
[연립주택/다세대/빌라]					
2022타경 3585	1	영천시 망정3길72,101동2층201호[망정동,푸른마을] 125.85㎡	다세대	97,000,000 97,000,000	
2022타경 113345	1	영천시 모란4길35, 2층 203호 48.78㎡	다세대	58,000,000 58,000,000	
[상가/오피스텔,근린시설]					
2022타경 3486	1	영천시 미륵4길7, 2층 201호[망정동,황금상가] 339.58㎡	학원	576,000,000 576,000,000	
[기타]					
2022타경 110742	1	영천시 북안면 당리 641-2 615㎡ [전소유권중1/4[단,이원규지분전부]]	대	33,265,100 33,265,100	일괄매각.제시외건물포함.지분매각[공유자우선매수권행사제한].감정평가서상기호2-1건물공부상시멘트기와지붕사무실19.8㎡이나실제함석지붕사철[법당]52.8㎡[실측사정]
		영천시 북안면 중이길 44-6 단층19.8㎡ 단층19.8㎡ 제시외창고등15.1㎡ [전소유권중1/4[단,이원규지분전부]][물건번호1:감정평가서상기호2-2건물공부상시멘트기와지붕사무실이나실제함석지붕사철[요사채].남측경계일원단층창고건물걸쳐있으나타인소유로조사되며,소규모로서토지에미치는영향미미한것으로판단됨]	사무실		

● 공고된 부동산의 면적 표시는 실제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매각조건

①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매각이 불허가 될 때에는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이를 배당시 매각대금에 산입한다. 불법형질 변경으로 인한 원상복구가 필요한 경우 매수인이 이를 부담할수 있음.

② 공유자가 민사집행법 제140조에 의한 우선매수신고를 한 경우 그 매수신고 후 최초로 진행되는 매각기일에 매수보증금의 미납으로 실효되는 경우 그 공유자는 그 이후 해당 부동산의 매각기일에서는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당해 기일에 다른 매수신고인이 없는 경우 최저매각가액을 공유자우선 매수신고액으로 본다.

2. 매각기일 : 2023. 3. 14.[화] 10:00
3. 매각결정기일 : 2023. 3. 21.[화] 14:00
4. 매각장소 : 대구지방법원 신관 지하2층 입찰법정
5. 매각방법

① 입찰법정에 비치된 기일입찰표에 사건번호, 입찰자의 성명, 주소, 입찰가격, 보증금액 등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보증금을 함께 입찰봉투에 넣어 입찰함에 투입하면 됩니다. 매수신청의 방법으로는 최저매각가격의 1할[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발행의 자기앞수표 또는 현금을 준비하거나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일명 보증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입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입찰자목록에 각자의 지분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③ 입찰봉투의 투입이 완료되면 곧바로 개찰을 실시하여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을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정하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입찰자들만을 상대로 추가입찰을 실시합니다.

④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제외한 다른 매수신청인들의 매수신청보증금은 입찰절차가 종결되는 즉시 반환합니다.

6. 매각허가 및 대금납부

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에 대하여 매각결정기일에 매각허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금지급기한은 통상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지정됩니다.

② 지정된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재매각을 실시합니다. 다만, 재매각기일로 지정된 날의 3일전까지 종전 매수인이 매각대금 및 지연이자, 비용을 납부하면 대금납부로서 유효하며, 따라서 재매각은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7. 소유권이전 및 인도

① 매각대금을 납부함으로써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각종 저당권, 가압류등은 순위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소멸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및 저당권이나 가압류의 말소등기를 위해서는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한 후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등록세영수필통지서를 첨부하고, 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를 기재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이 위 등기를 촉탁하여 줍니다.

② 매각대금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소유자 또는 대항력없는 부동산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여 주지 아니하면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주의사항

① 매각된 주택 또는 상가건물에 최선순위의 저당권 등이 설정된 날짜보다 먼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나, 사업자등록신청을 마친 임차인이 있을 때에는 그 임차보증금을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② 일반인들의 열람에 제공하기 위하여 매각기일 1주일 전부터 매각물건 명세서, 현황조사보고서 및 감정평가서의 사본 등을 우리법원 민사집행[신청]과에 비치하거나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으므로 미리 필요한 정보를 얻으신 후 입찰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③ 특별매각조건의 내용은 매각물건명세서의 열람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입찰법정에 나오실 때에는 입찰표의 기재 및 입찰보증금의 반환에 필요하오니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오시기 바라며, 타인의 대리인으로 입찰하려고 하는 사람은 인감증명을 첨부한 위임장을 반드시 입찰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소유권이전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요구되는 농지의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된 후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여야 매각이 허가됩니다. 단,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지 않음이 소명된 경우에는 매각이 허가될 수 있습니다.

⑥ 공고된 물건중에 매각기일 전에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집행이 취소·정지된 경우, 또는 매각기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의 공고 없이 입찰에서 제외됩니다.

⑦ 신문에 공고되는 물건은 최초의 매각기일에 해당되는 물건이며, 속행사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문공고를 하지 않으므로 법원에 비치되거나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에 게시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⑧ 매각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면 매각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매수신청인이 제출한 매수신청보증을 반환합니다.

매각기일 공고의 요지는 대한민국 법원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주소 : http://www.courtauction.go.kr [경매공고 → 매각공고 선택]

※ 대한민국 법원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에서 공고내용외의 열람 가능한 정보는 법률상 제공하도록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을 국민편의를 위하여 따로 제공한 것으로서, 혹시 그 중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매각불허가 신청이나 항고, 대금감액신청이나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관심있는 물건에 관하여는 반드시 법원에 나오셔서 게시된 매각기일의 공고나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직접 확인하신 후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023. 2. 28.

대구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최기수

2023년 2월 28일 화요일 每日新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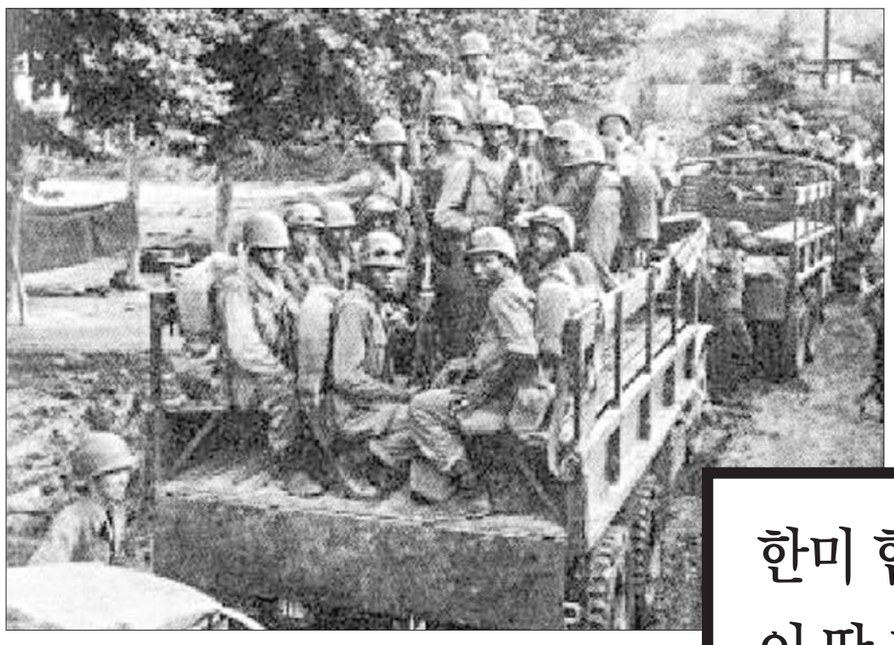
끝나지 않은 전쟁, 기억해야 할 미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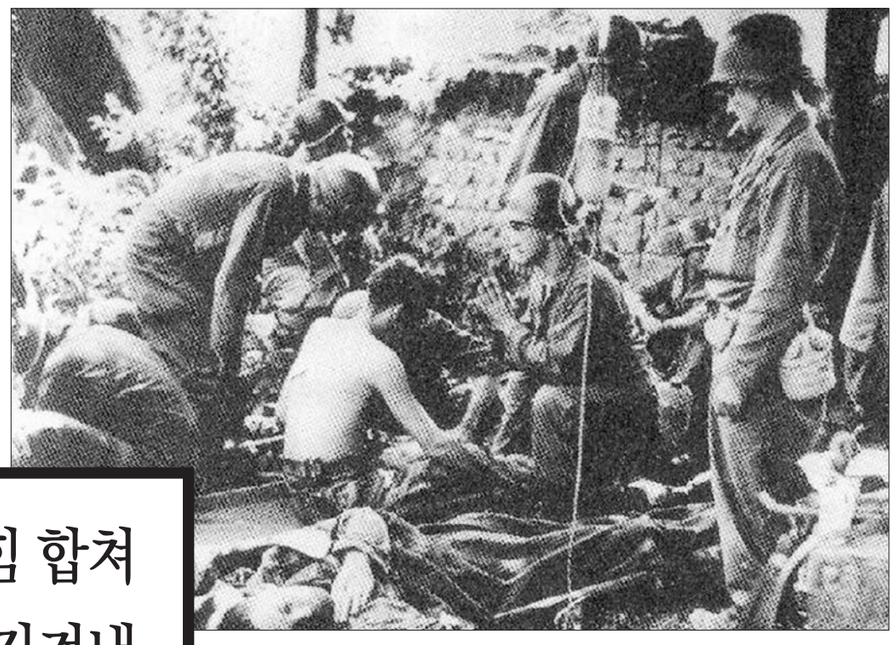
한국전쟁 정전 70년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기획

〈4〉 마산방어전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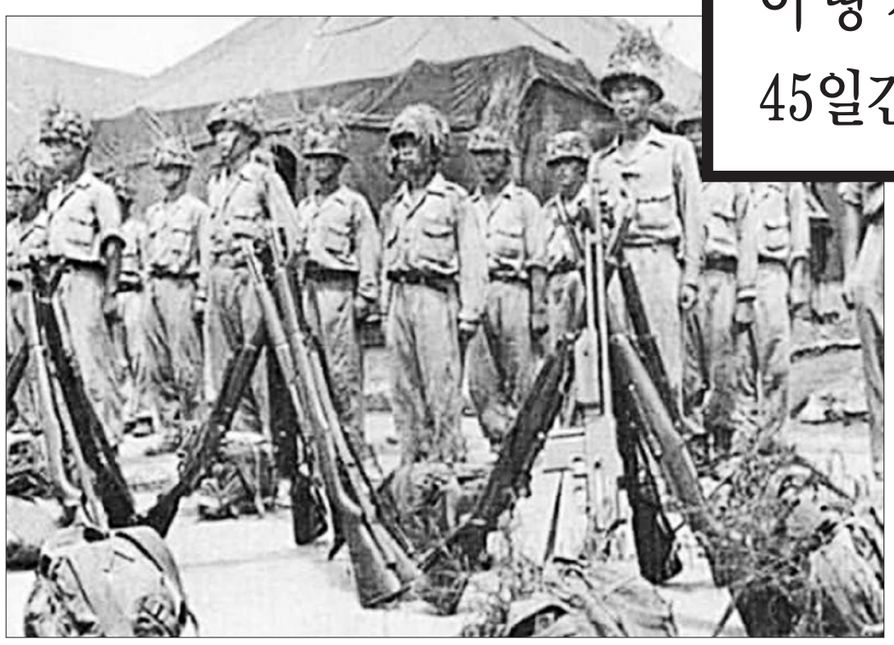
1950년 8월 1일 하동과 함양, 진주를 점령한 북한군 6사단은 마산 접경에 이르렀다. 방호산 6사단장은 "마산을 점령하면 적의 숨통을 조이는 것이다. 우리의 최종 목표인 부산 점령은 시간문제이다"라고 말하며 승리를 장담했다. 그러나 경북 상주에 주둔 중인 미 25보병사단이 8월 3일 마산으로 급파하면서 전투 양상이 달라졌고, 마산을 지키고 뺏기 위한 치열한 전투가 벌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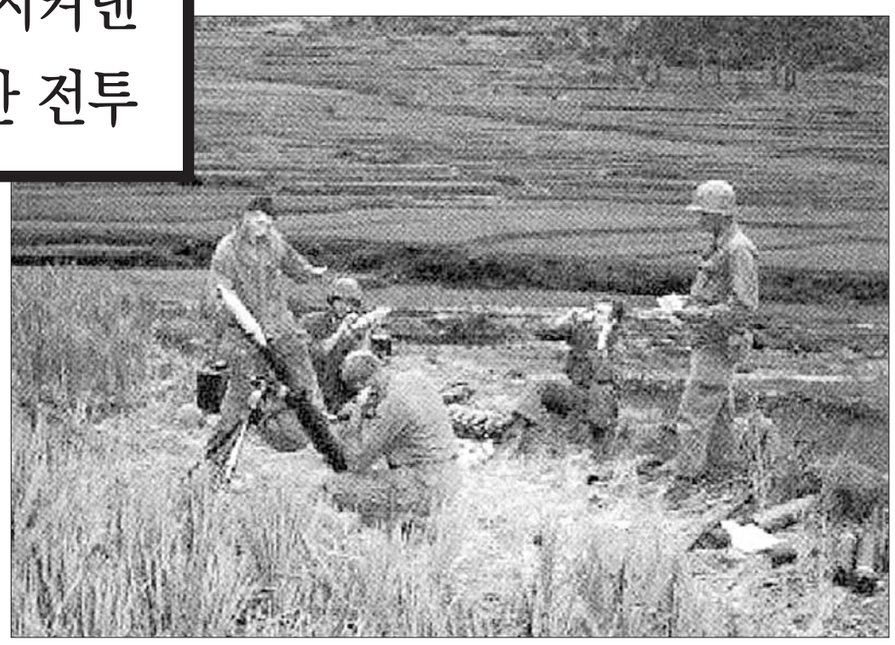
국군과 미군 1천여 명, 북한군 4천여 명 등 무려 5천여 명이 전사한 참혹한 '마산방어전투'. 북한군에 대부분 국토를 빼앗기고 마산이 무너지면 부산마저 위태로운 상황에서 방어전투는 전쟁의 승패를 가를 수 있는 '막느냐 무너지느냐'의 중요한 전투였다. 만약 패배했다면 역사가 바뀌었을 것이라는 평가가 있을 정도로 중요했지만, 미군 주도 전투란 이유로 기념관 하나 없이 잊어가고 있다.





한미 힘 합쳐
이 땅 지켜낸
45일간 전투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함안 전선으로 이동하고 있는 미24연대, 1950년 여름 미25사단 부상병이 후송되기 전 응급 치료를 받고 있는 모습, 마산진동리전투에서 승리한 해병대 부대원들, 미군 5연대전투단 대원들이 마산 진전면 임곡 나들목 지점에서 서쪽을 향해 포격하고 있는 모습. 마산방어전투기념사업회 제공

고지 주인 19번 바뀌어…불과 이틀 뒤 인천상륙 성공 반전

임시수도 부산서 40㎞ 떨어진 마산까지 북한군 내려오자
1000여명에 불과했던 국군, 美 2개 사단과 방어선 구축
동맹의 상징…수십차례 발굴에도 아직도 탄피·버클 나와

◆죽음으로 지켜라

1950년 8월 1일 북한군 6사단은 남침 36일 만에 진주를 점령한 데 이어 마산 현동 검문소에 집결했다. 6사단장 방호산은 중국에서 항일 활동을 하고 소련 유학까지 다녀온 북한군 내 뛰어난 전술가였다. 또 중국 국공내전에 참전해 전쟁 경험이 풍부한 조선족들로 구성된 북한군 6사단 7천여 명은 함안·진동 고산지대를 먼저 확보한 후 마산 점령을 노리고 있었다.

당시 이 일대를 주둔하고 있던 국군은 1천여 명에 불과했다. 미 8군 사령관인 워커 중장은 급히 경북 상주에 주둔 중인 미 25보병사단을 250㎞ 넘는 마산으로 단 2일 만에 이동시켰다. 이에 맞춰 진주에서 후퇴한 미 24사단도 창녕에 낙동강 방어선 진지를 구축했다.

워커 중장은 "240km의 낙동강 방어선의 더 이상 철수나 후퇴는 없다. 죽음으로 지켜라"고 말하며 결의를 다졌다. 이로써 마산을 점령하려는 북한과 사수하려는 국군과 미군은 8월 1일부터 9월 14일까지 45일간 치열한 전투를 벌였다.

특히 요충지였던 해발 739m 높이 서북산은 고지의 주인이 19번이나 바뀌었다. 서북산은 함안군 여항면과 창원시 마산 합포구 진북면·진전면 경계에 있어 산 정상에 오르면 인근 함안과 마산 일대, 진주가 보여 전쟁의 승패를 가를 수 있는 중요한 요충지다.

서북산을 지키는 과정에서 1천여 명의 아군이 전사했을 정도로 참혹했다. 산 정상은 수없는 미군 함포 사격과 공군기의 네이팜탄으로 인해 나무가 사라지고 정상 높이가 낮아져 미군은 이 산을 '늙은 중머리 산', '네이팜'이라고 불렀다.

만일 방어전투에서 패배했다면 지금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인천상륙작전으로 전세가 바뀌기 전까지 대한민국은 절박한 위기였다. 마산과 당시 임시수도인 부산까지는 직선거리로 40~50㎞에 불과했다. 방어전투에서 패배했다면 부산이 위험했고, 전세를 역전시킨 인천상륙작전도 힘들어졌을 수 있었다.

결국 마산방어전투에서 한미동맹군 승리로 북한군의 부산 점령을 막을 수 있었고, 국군과 UN군이 재정비할 시간을 벌 수 있었다. 방어전투 승리로 9월 16일 인천상륙작전이 성공하면서 반전의 기회를 가져왔다.

◆한미동맹의 상징

지난 1월 29일 방문한 격전지 중 하나인 마산합포구 진북면 옥녀봉 정상. 옥녀봉에는 전투가 벌어진 지 70년이 넘었지만, 당시 참혹한 흔적들을 느낄 수 있었다. 옥녀봉은 물자 수송이 용이한 도로가 인접한 요충지로 미군과 북한군의 탈환전이 이뤄졌던 곳이다. 정상에는 미군의 함포 사격으로 인해 생긴 구덩이와 참호 흔적들이 아직도 남아있었다.

현장을 동행한 배대균 마산방어전투기념사업회 회장이 금속탐지기로 발굴 작업을 하자 탄피, 벨트 버클 등이 발견됐다. 배 회장은 "이 일대에 수십차례 발굴 작업을 했는데 아직도 전투에 쓰인 총알 탄피, 파편, 버클 등이 나온다. 이만큼 방어전투가 치열했다는 것을 뜻한다"며 "남의 나라에 와서 목숨을 바치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킨 군인들이 잊히고 있다는 사실이 안타깝다. 한미동맹의 상징이기도 한 이 전투가 정전 70주년에 맞춰 적극 재조명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가장 치열했던 서북산 전투 당시 로버트 리 티몬스 대위는 중대장으로 중대원 100여 명과 함께 고지를 지키던 중 북한군 습격으로 부상을 입고, 후송 중 북한군 기관총 공격을 받아 전사했다. 전사 당시 티몬스 대위에게는 7살 아들이 있었다. 아들인 리처드 티몬스는 아버지를 이어 군인이 됐고 이후 주한 미8군 사령관으로 한국에 부임했다. 또 티몬스 대위 손자도 미 육군 대위로 한국 근무를 자원해 1996년부터 1997년까지 판문점 인근 미 2사단 최전방 초소에서 근무했다. 3대에 걸쳐 대한민국 자유와 평화를 지킨 것이다.

한신협·경남신문=박준혁 기자
pjhnh@knnews.co.kr

"인민군복 입고 적진 정보 활동…학도병 공식 기록은 없어"

유일 생존자 류승석 옹

"마산이 무너졌으면 지금의 자유 대한민국은 없었을 겁니다."

마산방어전투 참전자 중 현재 유일한 생존자인 류승석(93) 씨는 방어전투 중요성을 묻는 말에 이렇게 답했다. 류 씨는 본인이 고령이라 이제 기억이 흐릿해지고 몸도 예전과 같지 않다고 말하지만, 그가 전하는 전쟁의 참상은 생생했다.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터지고 얼마 뒤 류 씨는 학도병으로 자원입대한다. 마산 월영동에서 단 일주일간 훈련을 받은 뒤 진주, 남원, 순천, 하동의 전투를 거쳐 8월 다시 마산으로 돌아온다.

그가 방어전투 투입되기로 결정된 뒤 받은 주된 임무는 북한군 정보수집이었다. 전투 당시 미군과 국군 정보가 일치하지 않아 혼선을 겪었기에 군은 학도병들을 북한군 진지에 투입해 적의 전력, 위치 등을 파악하기로 했다.

"특무대 간부가 북한군 진지에 투입되기 전 학도병들에게 '너희들은 산 생명이 아니다'고 말하며 목숨을 걸고 적 정보를 파악하라고 하더군요. 너무 어린 나이라 죽음이 무섭지도 않고 적과 싸워야겠다는 생각뿐이었죠."

투입된 부대원 30명 중 류 씨를 포함한 15명은 진동, 나머지 15명은 함안으로 향했다. 그들은 인민군처럼 보이기 위해 인민군복을 입고 공산당 문양이 박힌 모자를 쓴 채 적진으로 들어갔다. 임무 기간은 일주일이었지만, 아군이 없는 적진에서 임무 수행은 어렵다고 판단해 5일 만에 복귀를 결정했다. 진동에 투입된 15명의 학도병 중 살아 돌아온 이는 5명뿐이었다.

류 씨는 목숨을 걸고 전투에 참여했지만, 대한민국에서 그의 학도병 활동에 대한 공식 기록은 없다. 참전유공자로 인정받은 것도 그가 학도병을 나온 후 곧장 공군으로 입대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학도병들이 수집한 정보를 토대로 국군 해병대와 미 25사단이 공격에 들어갔습니다. 승전으로 해병대는 특진하는 등 공을 인정받았지만, 저희는 학도병이었기에 아무것도 없고 제대로 된 기록조차 없습니다."

노병의 마지막 소원은 마산방어전투를 기억하고 미래 세대들이 안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전쟁기념관이 건립되는 것이다. 류 씨는 고령에도 불구하고 학생과 시민들을 찾아다니며 안보 교육에 나서고 있다. 한신협·경남신문=박준혁 기자

남편 폭력, 뇌출혈, 빚더미…불행의 굴레

每日新聞 이웃 사랑

두유로 끼니 때우는 박동채 씨

"김치에 뭐 넣었는데." 새로 담근 김치를 맛본 남편이 물었다. 음식물 쓰레기라도 씹은 표정이다. 김치에 들어간 재료들을 열심히 브리핑했다. 한창 말하고 있는데 갑자기 남편이 숟가락을 탁! 내려놓았다. 그 둔탁한 소리에 두 눈이 질끈 감겼다. 그러고 나서 남편은 인사 한마디 없이 바로 출근했다. 그리고 꼬박 한 달을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전화 한 통 없이. 그가 '멸치 액젓'을 싫어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건, 꽤 시간이 흐른 뒤였다. 화가 나면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고 그냥 떠나버리는 사람, 혼자 남겨진 상대방만 미치게 만드는 사람. 남편은 그런 사람이었다. 그런 그가 연락두절된 지 벌써 10년이 다 되어 간다. 그럼에도 그와 나는 여전히 부부다. 이혼하자는 연락도 안 받고, 혼자 이혼 처리를 할 여유도 없었기 때문이다.

◆폭력 남편에 청각장애까지

결혼 전의 박동채(가명·61) 씨 인생이 무채색이었다면, 후의 인생은 짙은 검정이었다. 고등학교 졸업 후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경리로 일하며 무미건조한 삶을 살고 있던 동채 씨. 27살 때 직장 동료로부터 동갑의 기술직 공무원이었던 남편을 소개받아 사귀게 됐다. 1년간 연애 끝에 결혼식을 올렸다.

이후 연애할 때는 드러나지 않던 남편의 여러 단점이 동채 씨를 힘들게 했다. 남편은 동채 씨에게 매달 장부를 쓰게 했다. 실제 기업의 회계 담당자처럼 부기(자산, 자본, 부채의 수지·증감 따위를 계산해 장부에 기록하는 기술) 형식으로 작성하게 했다. 엄격한 검사 끝에 계산이 조금이라도 틀리면 매를 맞았다. 남편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부위만 골라 때렸다. 급기야 귀를 잘못 맞아 청각장애 5급 판정까지 받았다.

시간이 지나 남편이 더 폭력적으로 변할수록, 동채 씨가 친정에 가 있는 시간도 많아졌다. 남편 역시 집에 안 들어오는 빈도가 점점 늘며 동채 씨와 남편은 거의 별거하는 관계가 됐다. 그때쯤 동

귀 잘못 맞아 청각장애 판정
집나간 남편 10년째 무소식
이혼 처리 못하고 있는 상황
보이스피싱에 극단 선택도

지난 24일 박동채(가명·61) 씨가 홀로 집에서 두유를 마시려 하고 있다. 동채 씨는 뇌병변으로 거동이 어렵고, 퇴행성 관절염 때문에 오른손으로는 물건을 제대로 집기도 힘들다.

채 씨의 유일한 편이었던 어머니까지 일찍 돌아가신 아버지를 따라 세상을 떠났다. 동채 씨는 점점 더 고립돼갔다.

◆보이스피싱 당해 극단적 선택까지

불행이 불행을 부른다고 했던가. 당시 혼자 살고 있던 전셋집 주인에게 급한 사정이 생겨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집을 비워줘야 했다. 이사 비용은 부족하고, 집주인 독촉은 점점 심해지던 와중에 동채 씨는 '자칭' 농협 대출상담원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게 된다. 그 상담원은 어떤 증권을 사면 동채 씨의 신용등급이 지금보다 높아지고, 그럼 고액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이스피싱이었다. 궁지에 몰려 판단력이 흐려진 동채 씨는 그렇게 4천800만원을 날렸다.

결국 동채 씨는 수면제 한 달 치를 삼켰다. 평소 주기적으로 말동무가 돼줬던 보건소 직원이 때마침 이를 발견했고, 근처 병원으로 이송된 동채 씨는 다행히 목숨을 건졌다. 이후 동채 씨는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자신을 나무라며 이제는 정말 잘살아 보겠다고, 굳게 다짐했다. 밤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야간 영업을 하는 식당에서 열심히 일했다.

그러나 불행은 그치지 않았다. 밤낮이 뒤바뀐 채로 힘든 일을 4년이나 해서였는지, 갑자기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 갔다. 뇌출혈이었다. 대구의 한 병원에 1년 6개월간 입원했다. 잘살아 보려고 열심히 번 돈은 병원비로 다 나갔다. 뇌출혈 여파로 오른쪽 다리가 마비돼 지금도 거동이 어렵다.

퇴원 후 작년 4월부터 병원 근처 임대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동채 씨. 이 전셋집 보증금 역시 아는 언니에게 빌린 돈으로 마련했다. 생판 남인 동채 씨에게도 큰돈을 빌려주고, 사정을 딱하게 여기며 독촉 한번 안 하던 언니였다. 그런 언니가 최근 자신도 상황이 어려워 돈을 빨리 갚아주면 좋겠다고 어렵게 입을 열었다. 동채 씨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언니에게 빌린 돈은 갚아야겠다고 결심했다. 현재 살고 있는 집 보증금을 빼서 600만원은 갚았다. 남은 빚 1천400만원을 갚고자 우선 저렴한 원룸으로 이사하려는데, 보증금 200만원과 이사비용 100만원 등 단돈 300만원이 없어 그러지 못하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동채 씨의 한 달 소득은 정부보조금 62만원이 전부다. 여기에 뇌출혈로 인한 뇌 병변과 오른손에 생긴 퇴행선 관절염으로 매주 신경외과에 가서 주사를 맞아야 하는데, 하필 비급여라 의료비로만 한 달 30만원이 고정적으로 든다. 고정 지출을 제외하면 남는 돈이 거의 없다. 그나마 남아도 빚 갚는 데 다 쓰고 있다. "모든 걸 포기하고 싶지만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살아갈 힘을 전해 준 따스한 이들에게 갚아야 할 빚이 있기 때문입니다." 동채 씨는 오늘 하루도 두유 1팩으로 끼니를 때우며 삶을 버텨보기로 했다.

글·사진 윤정훈 기자 hoony@imaeil.com

이웃사랑 계좌

069-05-024143-008(대구은행)
700039-02-532604 (우체국)
예금주 ..... (주)매일신문사(이웃사랑)
기부금 영수증 문의 ..... 가정복지회 053)287-0071

홀로 4남매 키운 이순조 씨에 2,583만원 전달

폭력적인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홀로 어렵게 4남매를 키웠으나 하나뿐인 딸은 위암으로 눈을 감고, 남은 세 아들의 무관심에 홀로 사는 이순조(매일신문 2월 14일 자 10면)씨에게 2천583만원을 전달했습니다.

이 성금에는 ▷국민의힘 대구여성정치아카데미 총동창회 125만원 ▷(주)삼이시스템 10만원 ▷키네마섬유(이팔남) 10만원 ▷조득환 10만원 ▷하혜련 5만원 ▷강종수 3만원 ▷권규돈 3만원 ▷이병규 2만5천원 ▷박희숙 2만원 ▷신종욱 2만원 ▷최정원 1만5천원 ▷최지원 1만5천원 ▷이진기 5천원 ▷'김나현쌤' 7만원 ▷'김민규안다겸' 5만원 ▷'따스한햇살' 5천원이 더해졌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640g 미숙아 응웬탄히엔 부부에 2,562만원 성금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유학와 인연을 맺고 낳은 아이가 640g '극단 저체중'으로, 당장 수억원의 치료비 필요하지만 불법체류자 신분이라 보험 적용도 안 돼 막막한 응웬탄히엔 씨 부부(매일신문 2월 21일 자 10면)에게 48개 단체, 150명의 독자가 2천562만9천21원을 전달했습니다. 성금을 보내 주신 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일탑리더스아카데미 1기 일동 250만원 ▷건화문화장학재단 150만원 ▷(주)대구은행 100만원 ▷대구공공관리시설공단 100만원 ▷㈜세원정공물산 100만원 ▷피에이치씨 큰나무복지재단 100만원 ▷빛명상본부 60만원 ▷(주)태원전기 50만원 ▷신라공업 50만원 ▷한라하우젠트 50만원 ▷㈜태린(박찬종) 45만원 ▷㈜신행건설(정영화) 30만원 ▷한미병원(신홍관) 30만원 ▷(주)동아티오엘 25만원 ▷㈜백년가게국제의료기 25만원 ▷(주)지제이인터네셔널 20만원 ▷금강엘이디제작소(신철범) 20만원 ▷대백선교문화재단 20만원 ▷대창공업사 20만원 ▷(주)구마이엔씨(임창길) 10만원 ▷(주)우주배관종합상사(김태룡) 10만원 ▷경주천마운전전문학원 10만원 ▷기독교대한성결교회봉산교회 10만원 ▷김영준치과의원 10만원 ▷대구동양자동차운전전문학원(최우진) 10만원 ▷세움종합건설(조득환) 10만원 ▷신성산업(김용환) 10만원 ▷(주)선진건설(류시장) 5만원 ▷(주)태광아이엔씨(박태진) 5만원 ▷건천제일약국 5만원 ▷명EFC(권기섭) 5만원 ▷베드로안경원 5만원 ▷봉란옥(이순자) 5만원 ▷세무사박장덕사무소 5만원 ▷이전호세무사 5만원 ▷전피부과의원(전의식) 5만원 ▷중안안과 5만원 ▷채성기약국(채성기) 5만원 ▷칠곡한빛치과의원(김형섭) 5만원 ▷흥국시멘트 5만원 ▷국선도풍각수련원 3만원 ▷매일신문구미형곡지국(방인철) 3만원 ▷청산(우창하) 3만원 ▷노이텍크 2만원 ▷평촌모녀부동산 2만원 ▷사단법인대한민국힐링문화진흥원 1만원 ▷하나회(김미라) 1만원

▷도경희 200만원 ▷김상태 조현권 각 100만원 ▷이정추 90만원 ▷김진숙 50만원 ▷이신덕 30만원 ▷권경자 김순향 김옥선 박철기 각 20만원 ▷고영준 곽용 김미희 남영희 민병열 박종천 성현탁 오정환 이유미 이재명 이진영 전시형 정석봉 조득환 진용주 최창규 허정원 허창옥 각 10만원 ▷안정원 8만원 ▷김도훈 김제나 박원경 백미화 변대석 서준교 손윤옥 양민우 윤선희 이경자 이진술 이창영 임채숙 전우식 정원수 지봉진 진국성 최문혜 최영모 최종호 최한태 각 5만원 ▷강민주 김봉화 김종균 김태욱 김평섭 박승호 박은경 송현철 신외식 양명숙 오미경 이상준 이서연 이서현 이석우 이옥희 임경숙 천미경 최춘희 하경석 각 3만원 ▷김덕우 김원녀 문석 박기영 박현주 배영락 백진규 송재일 신은지 신일성 안현준 여현철 유경희 윤신애 이병순 이운호 이재민 이재열 이정화 이해수 조민영 차정혜 천정창 최선태 각 2만원 ▷김갑용 1만5천원 ▷권오영 권오현 권유진 김경진 김균섭 김다영 김보혜 김상근 김성진 김태천 김현식 노윤경 류은자 문민성 박부훈 박상옥 박애선 박인배 박태용 박홍선우순화 우철규 유귀녀유명희 유은영 유지영 이다희 이승무이운대 장형근 정서원 조영식 조인숙 지호열 최경철 한정화 황태윤 각 1만원 ▷이현수 9천999원 ▷조용인 5천원 ▷이장윤 2천원 ▷김기만 이현주 최연준 각 1천원

▷'범물동김선우' '사랑나눔624' '응웬탄히엔씨 팟' '주님사랑' 각 10만원 ▷'베트남 부부 아기' 5만원 ▷'노엘라' '아기야 힘내' 각 3만원 ▷'류현수 신지연' '석희석주' 각 2만원 ▷'조동수**힘내세요' 1만원 ▷'김명숙도움' 3천원 ▷'메이' 1천22원

윤정훈 기자

"동티모르 아이들 교육 통해 꿈 이루기를"

희망 나눔, 귀한 손길 每日新聞·가정복지회

158호 윤진국 에이든교육 대표

에이든교육(대표 윤진국)이 매일신문과 가정복지회의 공동기획 캠페인 '귀한 손길'의 158 번째 손길이 됐다.

윤진국 대표는 유아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아동청소년 해외 연수 과정을 운영하면서 가정복지회의 동티모르 바뚜보르 초등학교 지원사업 소식을 전해 듣고 캠페인에 동참하게 됐다.

윤 대표는 "평소 아동들의 성장에 있어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생각이 많았다"며 "가정복지회의 동티모르 초등학교 지원사업으로 동티모르 아이들이 교육을 통해 꿈꿔오는 바를 이룰 수 있게 도움이 되고자 귀한손길 캠페인에 참여하게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귀한 손길' 캠페인은 경제적 어려움

을 겪는 국내외 저소득가정과 아동·청소년들에게 어제와 다른 내일을 설계할 수 있도록 꿈을 지원하는 캠페인이다. 캠페인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부자(개인·단체·기업)는 가정복지회(053-287-0071)에서 신청할 수 있다. 윤정훈 기자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2계>
※QR코드:법원경매정보 웹으로 접속됩니다.

사건번호	물건번호	매각물건 소재지 및 면적[㎡]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단위:원]	비고
[대지/임야/전답]					
2022타경773	1	경주시 양남면 신대리 산370 58314㎡[북측 하향급경사지대내부정형토지로"자연림"상태]	임야	174,942,000 174,942,000	임야도상맹지.입목포함감정평가
2022타경11032	2	경주시 감포읍 전촌리 438-1 327㎡[공유자 한성우지분88/109전부.토지현재일부'현황도로'로이용중이며일부타인점유중인것으로 판단[현황등감정서참조].토지남동측으로노폭약3~4미터[대상물건포함]도로와접하고있음.토지제1종일반주거지역안농지이므로농지취득자격증명불요[첨부된사실조회회신서참조]]	전	141,201,000 141,201,000	일괄매각.제시외건물[판넬조판넬지붕,창고,약8㎡]매각제외.목록2 토지지분매각이나 공유자우선매수권행사할수없음
		동소 439-2 331㎡[토지지적도상맹지이나인접필지[목록2]경유해서출입가능]	대		
	3	경주시 현곡면 라원리 산12-2 15074㎡[임목포함한감정가.지적도상맹지,인접필지경유출입가능]	임야	211,036,000 211,036,000	소유자미상분묘수기소재및분묘감안하지않은평가액
	4	경주시 현곡면 라원리 1469 1352㎡[농지취득자격증명제출요[농지법위반하여불법형질변경되었거나불법건축물있는경우원상회복명령발하여질가능성있음]	전	93,288,000 93,288,000	매수신고전반드시관할읍면동사무소에발급절차등에대한확인필요]
2022타경11186	1	경주시 양남면 상계리 701 649평[농지취득자격증명제출요[농지법위반하여불법형질변경되었거나불법건축물있는경우원상회복명령발하여질가능성있음,매수신고전반드시관할읍면동사무소에발급절차등에대한확인필요]:첨부사실조회회신서참조]	답	100,815,000 100,815,000	부정형토지로휴경지상태.지적도상맹지,인접필지경유하여출입가능.인접필지와관광농원으로허가득하여사용후원상복구중인것으로조사
2022타경11223	2	경주시 안강읍 갑산리 28 2271㎡[농지취득자격증명제출요[농지법위반하여불법형질변경되었거나불법건축물있는경우원상회복명령발하여질가능성있음,매수신고전반드시관할읍면동사무소에발급절차등에대한확인필요].공히농기계등출입가능하며제반교통사정보통시]	답	124,905,000 124,905,000	장방형에가까운토지로자체등고평탄한편이며,농경지.동측및남측으로각각농로개설되어있음

사건번호	물건번호	매각물건 소재지 및 면적[㎡]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단위:원]	비고
2022타경537	1	경주시 안강읍 양월리1238-5 122㎡ 제시외 변소및창고7㎡[공부상지목답이나현황대]	답	58,016,000 58,016,000	일괄매각.제시외건물포함
		경주시 안강읍 화전북2길 단층40 43.4㎡	단독주택		
2022타경10756	3	경주시 산내면 감산리 1969 542㎡	대	63,976,600 63,976,600	일괄매각.제시외건물포함.목록3건[주택및부속건물]부지및일부현황"도로"로이용중,하천저촉감안평가됨
		경주시 산내면 장사길 238-41 단층31.64㎡ 단층주택22.4㎡ 제시외 창고등57.7㎡[주택으로이용중이나장기간미관리상태,공부상스레트지붕이나현황목조스레트기와지붕단층31.64㎡강판기와지붕이고,목조스레트지붕단층22.4㎡는칼라강판지붕]	단독주택		
[상가/오피스텔,근린시설]					
2022타경612	1	경주시 양정로249, 15층 1501호 270.04㎡	근린시설	1,080,000,000 1,080,000,000	
2022타경11032	1	경주시 탈해로5번길19, 101동 6층 602호[동천동,한울뷰]	근린시설	259,000,000 259,000,000	
[자동차,중기]					
2022타경2342	1	사용본거지:경주시 대안길 14-4[동천동] 등록번호:19주2342 차명:싼타페 차종:승용대형 연식:2013 주행거리:135,000Km 유효검사기간:2020-10-17~2022-10-6	자동차	10,000,000 10,000,000	보관:경주시서악동287-7,견인사업소[054-771-6661]
2022타경13526	1	사용본거지:경주시 용강동 유림로13번길161[용강동] 등록번호:152소1698 차명:모하비 차종:승용 대형 연식:2018 주행거리:115,602km[계기판상] 자동차등록원부상검사유효기간:2022-5-23~2024-5-22	자동차	24,000,000 24,000,000	보관:경주시강동면산업로5670-29[강동자동차매매상]

● 공고된 부동산의 면적 표시는 실제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매각조건
①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매각이 불허가 될 때에는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이를 배당시 매각대금에 산입한다. 불법형질 변경으로 인한 원상복구가 필요한 경우 매수인이 이를 부담할수 있음.
② 공유자가 민사집행법 제140조에 의한 우선매수신고를 한 경우 그 매수신고 후 최초로 진행되는 매각기일에 매수보증금의 미납으로 실효되는 경우 그 공유자는 그 이후 해당 부동산의 매각기일에서는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당해 기일에 다른 매수신고인이 없는 경우 최저매각가액을 공유자우선 매수신고액으로 본다.
2. 매각기일 : 2023. 3. 14.[화] 10:00
3. 매각결정기일 : 2023. 3. 21.[화] 14:00
4. 매각장소 :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경매법정
5. 매각방법
① 입찰법정에 비치된 기일입찰표에 사건번호, 입찰자의 성명, 주소, 입찰가격, 보증금액 등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보증금을 함께 입찰봉투에 넣어 입찰함에 투입하면 됩니다. 매수신청의 방법으로는 최저매각가격의 1할[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발행의 자기앞수표 또는 현금을 준비하거나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일명 보증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입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입찰자목록에 각자의 지분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③ 입찰봉투의 투입이 완료되면 곧바로 개찰을 실시하여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을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정하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입찰자들만을 상대로 추가입찰을 실시합니다.
④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제외한 다른 매수신청인들의 매수신청보증금은 입찰절차가 종결되는 즉시 반환합니다.
6. 매각허가 및 대금납부
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에 대하여 매각결정기일에 매각허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금지급기한은 통상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지정됩니다.
② 지정된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재매각을 실시합니다. 다만, 재매각기일로 지정된 날의 3일전까지 종전 매수인이 매각대금 및 지연이자, 비용을 납부하면 대금납부로서 유효하며, 따라서 재매각은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7. 소유권이전 및 인도
① 매각대금을 납부함으로써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각종 저당권, 가압류등은 순위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소멸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및 저당권이나 가압류의 말소등기를 위해서는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한 후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등록세영수필통지서를 첨부하고, 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를 기재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이 위 등기를 촉탁하여 줍니다.
② 매각대금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소유자 또는 대항력없는 부동산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여 주지 아니하면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주의사항
① 매각된 주택 또는 상가건물에 최선순위의 저당권 등이 설정된 날짜보다 먼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나, 사업자등록신청을 마친 임차인이 있을 때에는 그 임차보증금을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② 일반인들의 열람에 제공하기 위하여 매각기일 1주일 전부터 매각물건 명세서, 현황조사보고서 및 감정평가서의 사본 등을 우리법원 민사집행[신청]과에 비치하거나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으므로 미리 필요한 정보를 얻으신 후 입찰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③ 특별매각조건의 내용은 매각물건명세서의 열람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입찰법정에 나오실 때에는 입찰표의 기재 및 입찰보증금의 반환에 필요하오니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오시기 바라며, 타인의 대리인으로 입찰하려고 하는 사람은 인감증명을 첨부한 위임장을 반드시 입찰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소유권이전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요구되는 농지의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된 후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여야 매각이 허가됩니다. 단,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지 않음이 소명된 경우에는 매각이 허가될 수 있습니다.
⑥ 공고된 물건중에 매각기일 전에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집행이 취소·정지된 경우, 또는 매각기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의 공고 없이 입찰에서 제외됩니다.
⑦ 신문에 공고되는 물건은 최초의 매각기일에 해당되는 물건이며, 속행사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문공고를 하지 않으므로 법원에 비치되거나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에 게시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⑧ 매각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면 매각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매수신청인이 제출한 매수신청보증을 반환합니다.
매각기일 공고의 요지는 대한민국 법원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주소 : http://www.courtauction.go.kr [경매공고 → 매각공고 선택]
※ 대한민국 법원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에서 공고내용외의 열람 가능한 정보는 법률상 제공하도록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을 국민편의를 위하여 따로 제공한 것으로서, 혹시 그 중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매각불허가 신청이나 항고, 대금감액신청이나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관심있는 물건에 관하여는 반드시 법원에 나오셔서 게시된 매각기일의 공고나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직접 확인하신 후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023. 2. 2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사법보좌관 주연중

성주군

위기속에서 빛나는 성주경제!

군민의 편에서,
군민과 함께 달립니다!

• 130년 전통,
시설 현대화로 다시 태어나는
성주전통시장

• 기업지원 종합 컨트롤 타워!
성주 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건립

• 구인구직
ONE-PLACE 서비스,
일자리종합지원센터

• 친환경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DGB Index 〈27일〉

코스피	2,402.64	(−20.97P)
코스닥	780.30	(+1.42P)
국고채금리 (3년물, 연%)	3.683	(+0.128%P)
환율 (원·달러)	1,323.0	(+18.2원)
금값 (1g)	76,500	(+170원)

청양고추 가격 3배 폭등…밑반찬에서 빠졌다

1년새 박스당 6만5천원→19만원

난방비 부담 농가 재배 줄여
국·찌개 파는 한식당 직격탄
셀프바 없애 고기 더 주기도

"주력 메뉴인 매운 김밥이 이제는 오히려 안 팔렸으면 해요…"

최근 고추 가격이 급등하자 대구 동구에서 분식집을 운영 중인 최모(31) 씨의 입장이 난처해졌다. 최 씨는 27일 "매운 김밥에 필수인 청양 고추를 뺄 수도 없고 분식집에서 김밥, 떡볶이 가격을 올릴 수도 없어 힘들다"고 한숨 쉬었다.

식당에서 주로 쓰이는 청양고추 가격이 1년 새 3배가량 폭등하면서 고춧가루가 '금가루'가 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27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지난 24일 기준 청양고추 10kg 도매가격은 19만7천원으로 파악됐다. 1년 전 6만5천892원보다 약 200% 뛴 수치로 1년 동안 박스 당 13만원 넘게 오른 셈이다. 1개월 전 가격은 9만1천695원이고, 일주일 전인 지난 20일 가격은 18만8천400원으로 불과 일주일새에도 고추 가격은 급격하게 올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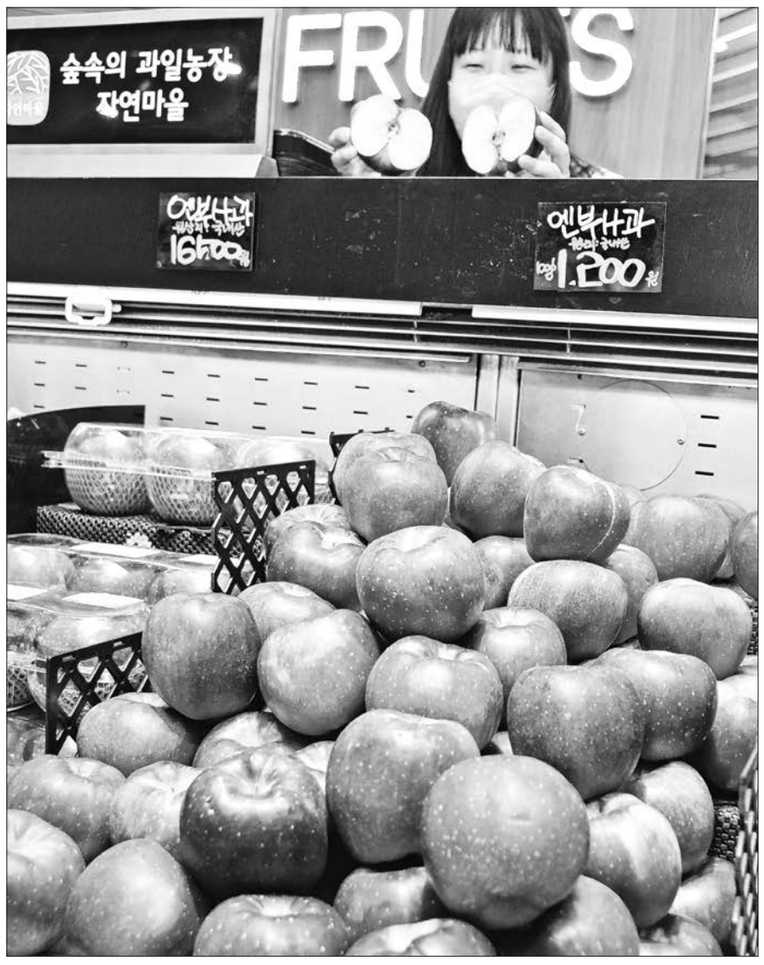
청양고추 사용량이 많은 국, 찌개 등 한식을 판매하는 식당은 직격탄을 맞고 있다. 대구 중구에서 감자탕 가게를 운영하는 전모(55) 씨는 손님들이 이용 가능한 셀프바의 고추통을 없애는 대신 고기양을 늘이는 등 궁여지책을 모색했다.

전 씨는 "최근 고춧가루 2kg에 7만6천원 주고 구매했는데 개당 300원꼴이라, 살 때 손이 떨렸다"며 "일단 배달 주문 시 고추를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상쇄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추 가격 인상은 최근의 날씨와 치솟은 난방비와 무관치 않다. 난방비를 이기지 못해 재배 중단 농가가 늘어나자 가격은 더욱 상승했고, 한파와 흐린 날씨 때문에 매운맛이 줄어들자 '땡초 성애자'들의 섭취는 더욱 늘었다.

한 음식점 관계자는 "땡초는 매운맛으로 먹는데 매운맛이 떨어지니 국밥 한 그릇에 3개정도였던 섭취량이 6개 이상으로 는거 같다"며 "가격이 3배 오른데다 손님들 섭취량은 2배 커지니 식당 주인 입장에선 예년보다 사실상 6배 이상 부담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대부분의 음식에 고춧가루가 사용되고, 특히 한식에서는 고춧가루가 빠지지 않기에 한동안 요식업 장사에 타격이 클 것으로 전망 된다"고 했다. 김세연 기자 ksy121@imaeil.com



속 빨간 '피치애플' 대백프라자가 지하 1층 식품관 청과코너에서 '피치애플'을 선보였다. '속 빨간 사과'라는 별칭으로 불리는 스위스 교배종 피치애플은 빨간 껍질에 속살도 복숭아처럼 핑크빛이 감도는 것이 특징이다. 대백프라자 제공

美 긴축 우려…코스피 한달만에 2,400선 붕괴

환율 18.2원 오르며 1,323원

미국의 물가 상승에 따른 긴축 장기화 우려에 27일 코스피는 하락해 장중 2,400선이 무너졌고, 원·달러 환율은 18원 급등했다.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8.2원 급등한 1323.0원에 거래를 마쳤다.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0.2원 오른 1315.0원에 장을 시작해 오후 들어 상승 폭을 키웠다. 원·달러 환율이 종가 기준으로 1320원선을 넘어선 것은 지난해 12월 7일(1321.7) 이후 처음이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20.97포인트(p)로 0.87%하락한 2,402.64를 기록하며 장을 끝냈다. 지수는 전장보다 18.19p(0.75%) 내린 2,405.42로 출발해 장 초반 최저 2,383.76까지 내려갔다. 코스피가 장중 2천400선 밑으로 내려간 것은 지난 1월 20일 이후 약 한 달 만이다.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42p(0.18%) 오른 780.30으로 선방했다. 코스닥지수는 3.87포인트(0.50%) 내린 775.01에 개장해 장 초반 769.75까지 하락했다가 이후 2차 전지주 강세에 힘입어 상승 전환에 성공했다.

국내 금융시장이 출렁인 가장 큰 이유는 지난 24일 발표된 미국 물가 지표가 다시 상승 폭을 키우면서 미국의 긴축 정책의 장기화가 재차 확인됐기 때문이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미국 1월 개인소비지출(PCE) 물가 쇼크에 따른 인플레이션, 긴축 우려가 재점화되면서 위험선호 심리가 후퇴했다"며 "원달러 환율 급등에 외국인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증시 하방 압력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김세연 기자

찾아가는 빅데이터 컨설팅…ABB 산업 육성

대구 빅데이터 활용센터

'대구 빅데이터 활용센터(이하 센터)'가 대구를 데이터 중심도시로 만드는 데 앞장선다. 빅데이터 인식 저변 확대와 지역업체의 데이터 활용 지원 등을 통해 ABB(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 산업 육성에 힘을 보탠다.

센터는 대구시와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이 2019년 10월 설립, 운영 중인 곳. 수성 알파시티 내 SW융합테크비즈센터에 자리잡고 있다. 창업을 지원하는 '오픈스퀘어-D(행정안전부)', 행정통계자료를 편리하게 이용하고자 구축된 데이터 플랫폼인 '통계데이터센터(통계청)'와 거점을 공유해 보유 자원과 프로그램 연계·교류로 빅데이터 분석 이용자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그동안 센터를 방문, 이용한 이들은 4천267명. 빅데이터를 분석하다 어려움에 처한 511건에 대해선 분석과 컨설팅을 지원했다.

올해는 지역 주력산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빅데이터 컨설팅'을 통해 데이터 수요, 공급의 중간 매개 역할로 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민·관·산·학 데이터 품질관련 전문가 10여 명으로 위원회를 구성, 데이터 유통거래의 최대 걸림돌인 데이터 품질 향상을 위한 협의체를 운영한다. 채정민 기자 cwolf@imaeil.com

신보 2,850억 증권 한 달 앞당겨 발행

신용보증기금이 28일 2천850억 원 규모의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을 발행한다. 신용보증기금은 채권시장 안정과 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P-CBO는 신용도가 낮아 회사채를 직접 발행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의 채권을 모아 신용보증기금 등의 보증을 거쳐 발행하는 것을 이른다.

신용보증기금 P-CBO 보증은 개별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 등을 기초자산으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함으로써 기업이 직접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이번 발행은 전액 신규 자금으로 지원한다. 발행 금액의 50% 이상을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건설업과 여신전문금융업 영위 기업 등에 중점 공급한다.

통상 신용보증기금의 P-CBO는 매년 3월에 첫 발행해왔으나 올해는 발행 시기를 한 달 앞당겼다. 작년 하반기부터 채권 시장이 불안정해져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취한 조치이다. 채정민 기자

AI·5G 로봇 융합모델 실증사업 공모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은 다종·다수 로봇을 활용한 사회적 문제해결과 국민의 편의증진을 목표로 '2023년도 AI·5G 기반 대규모 로봇 융합모델 실증사업' 컨소시엄을 공모한다고 27일 밝혔다.

올해는 특별히 산업단지, 병원, 호텔·리조트 등 국민 밀접 시설을 기반으로 하는 로봇 실증 과제인 '국민체감실증형' 사업에 집중한다. 총 사업비는 10억 원.

이 사업은 통합관제시스템을 기반으로 다종·다수의 로봇 융합실증을 지원하는 2단계 연차사업으로 구성했다.

1단계(1년 차)에는 개별로봇 실증과 통합관제 구축하고 2단계(2년 차)는 통합관제시스템을 기반으로 다종로봇 융합실증을 지원한다.

단계별로 국비 최대 3억5천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1단계 이후 연차평가를 통해 2단계 지원 여부가 결정되며 신청은 다음 달 21일까지다.

이통원 기자 tong@imaeil.com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4계> ※QR코드:법원경매정보 웹으로 접속됩니다.

사건번호	물건번호	매각물건 소재지 및 면적[㎡]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원]	비고
[단독주택,다가구주택]					
2022타경 752	1	구미시 인의동 603-2 356㎡	대	801,777,800	일괄매각
		구미시 여헌로 38-13 1층[계단실]13.05㎡ 2~3층각212.25㎡[각5가구] 4층171.85㎡ [5가구]	단독주택	801,777,800	
[대지/임야/전답]					
2022타경 11288	1	구미시 고아읍 이례리 320-4 232㎡[이재근 33/232지분전부.전용허가없이토지현황변경된경우향후원상회복명령발하여질가능성있음]	전	15,939,000 15,939,000	지분매각.공유자우선매수권행사제한
	2	구미시 고아읍 이례시 497-5 331㎡[전용허가없이토지현황변경된경우향후원상회복명령발하여질가능성있음]	전	60,242,000 60,242,000	
2022타경 11479	1	김천시 개령면 덕촌리 298-1 286㎡[감정평가액은제시외건물로제한받는토지가액[감정평가서참조].농지취득자격증명요.전용허가없이토지현황변경된경우향후원상회복명령발하여질가능성있음]	답	13,213,200 13,213,200	제시외건물매각제외.매각제외제시외건물을위해법정지상권성립여지있음
	2	김천시 개령면 덕촌리 404 1382㎡[전용허가없이토지현황변경된경우향후원상회복명령발하여질가능성있음]	전	13,405,400 13,405,4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입목포함.분묘소재감안평가
	3	김천시 개령면 덕촌리 408 2188㎡[농지취득자격증명요]	전	19,473,200 19,473,200	입목포함,분묘소재감안평가

사건번호	물건번호	매각물건 소재지 및 면적[㎡]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원]	비고
[아파트]					
2022타경 806	1	구미시 옥계2공단로264-11, 110동 18층 1802호 [구포동,성원아파트] 59.982㎡	아파트	88,000,000 88,000,000	최선순위전세권매각으로소멸하지않고매수인에게인수
2022타경 11523	1	구미시 원남로4길5, 2층 212호[원평동,대동타운] 59.975㎡	아파트	95,000,000 95,000,000	임대차관계미상대항력있는점유자있음
2022타경 11721	1	구미시 선기로1길11, 6층 605호 59.4㎡	아파트	68,000,000 68,000,000	
[기타]					
2022타경 844	1	구미시 산동읍 신당리 1302-1 2977.3㎡	공장용지	2,706,394,100	일괄매각.제시외건물포함,기계기구중일부부착물임차인[예성티엔비]소유,일부현물없음[철거]감정평가제외[감정평가서참조].수목토지포함평가
		구미시 산동읍 해마루공원로144 단층800㎡	공장	2,706,394,100	
		동소 144 [2동] 1층제조시설521.3㎡ 2층제조시설465.05㎡ 3층사무실465.05㎡ 제시외 단층 컴프레셔실 5.2㎡	공장		
		소재지:구미시 산동읍 신당리 1302-1 [㈜선테크,해마루공원로144] 대구지방법원 구미등기소 공장및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 목록 제2019-15호,제2019-313호,제2019-325호	기계기구		

● 공고된 부동산의 면적 표시는 실제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매각조건
①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매각이 불허가 될 때에는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이를 배당시 매각대금에 산입한다. 불법형질 변경으로 인한 원상복구가 필요한 경우 매수인이 이를 부담할수 있음.
② 공유자가 민사집행법 제140조에 의한 우선매수신고를 한 경우 그 매수신고 후 최초로 진행되는 매각기일에 매수보증금의 미납으로 실효되는 경우 그 공유자는 그 이후 해당 부동산의 매각기일에서는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당해 기일에 다른 매수신고인이 없는 경우 최저매각가액을 공유자우선 매수신고액으로 본다.

2. 매각기일 : 2023. 3. 15. [수] 10:00
3. 매각결정기일 : 2023. 3. 22. [수] 14:00
4. 매각장소 :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1층 입찰법정

5. 매각방법
① 입찰법정에 비치된 기일입찰표에 사건번호, 입찰자의 성명, 주소, 입찰가격, 보증금액 등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보증금을 함께 입찰봉투에 넣어 입찰함에 투입하면 됩니다. 매수신청의 방법으로는 최저매각가격의 1할(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발행의 자기앞수표 또는 현금을 준비하거나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일명 보증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입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입찰자목록에 각자의 지분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③ 입찰봉투의 투입이 완료되면 곧바로 개찰을 실시하여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을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정하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입찰자들만을 상대로 추가입찰을 실시합니다.
④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제외한 다른 매수신청인들의 매수신청보증금은 입찰절차가 종결되는 즉시 반환합니다.

6. 매각허가 및 대금납부
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에 대하여 매각결정기일에 매각허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금지급기한은 통상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지정됩니다.
② 지정된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재매각을 실시합니다. 다만, 재매각기일로 지정된 날의 3일전까지 종전 매수인이 매각대금 및 지연이자, 비용을 납부하면 대금납부로서 유효하며, 따라서 재매각은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7. 소유권이전 및 인도
① 매각대금을 납부함으로써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각종 저당권, 가압류등은 순위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소멸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및 저당권이나 가압류의 말소등기를 위해서는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한 후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등록세영수필통지서를 첨부하고, 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를 기재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이 위 등기를 촉탁하여 줍니다.
② 매각대금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소유자 또는 대항력없는 부동산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여 주지 아니하면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주의사항
① 매각된 주택 또는 상가건물에 최선순위의 저당권 등이 설정된 날짜보다 먼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나, 사업자등록신청을 마친 임차인이 있을 때에는 그 임차보증금을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② 일반인들의 열람에 제공하기 위하여 매각기일 1주일 전부터 매각물건 명세서, 현황조사보고서 및 감정평가서의 사본 등을 우리법원 민사집행[신청]과에 비치하거나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으므로 미리 필요한 정보를 얻으신 후 입찰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③ 특별매각조건의 내용은 매각물건명세서의 열람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입찰법정에 나오실 때에는 입찰표의 기재 및 입찰보증금의 반환에 필요하오니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오시기 바라며, 타인의 대리인으로 입찰하려고 하는 사람은 인감증명을 첨부한 위임장을 반드시 입찰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소유권이전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요구되는 농지의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된 후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여야 매각이 허가됩니다. 단,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지 않음이 소명된 경우에는 매각이 허가될 수 있습니다.
⑥ 공고된 물건중에 매각기일 전에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집행이 취소·정지된 경우, 또는 매각기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의 공고 없이 입찰에서 제외됩니다.
⑦ 신문에 공고되는 물건은 최초의 매각기일에 해당되는 물건이며, 속행사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문공고를 하지 않으므로 법원에 비치되거나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에 게시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⑧ 매각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면 매각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매수신청인이 제출한 매수신청보증을 반환합니다.
매각기일 공고의 요지는 대한민국 법원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주소 : http://www.courtauction.go.kr [경매공고 → 매각공고 선택]
※ 대한민국 법원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에서 공고내용외의 열람 가능한 정보는 법률상 제공하도록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을 국민편의를 위하여 따로 제공한 것으로서, 혹시 그 중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매각불허가 신청이나 항고, 대금감액신청이나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관심있는 물건에 관하여는 반드시 법원에 나오셔서 게시된 매각기일의 공고나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직접 확인하신 후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023. 2. 2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사법보좌관 김태수

‘CSV’ 기업활동·공공이익 추구 경영철학

미국 조지아대학교 아치 캐럴 교수는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을 이윤창출, 법률준수, 윤리적 책임, 자선적 책임 등 4가지로 구분했다.

사회공헌활동의 국제적 추세는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을 넘어 공유가치창출(CSV, Creating Shared Value)이라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CSV는 기업의 이념과 가치를 나누며 사회공헌을 실현하고 나아가 기업이익 창출과정에 연계된 네트워크의 공생발전을 추구하면서 기업활동과 동시에 공공이익을 추구하는 경영철학을 의미한다.

기존의 CSR 활동이 기업의 사업을 통해 생겨난 이익을 단순히 분배하는 것에 그쳤다면,CSV는 기업이 이익 창출 과정에서 부터 사회의 요구를 수용하고 문제를 해결하여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창출한다.

기업 이미지 제고, 마케팅 전략 등의 기업 경영 전반에 사회공헌의 비중이 커지면서 사회공헌은 이제 단순한 자선활동을 넘어 전략적 투자, 가치 창조의 방법이 되어가고 있다.

사회공헌 게임은 게임화 기법(gamification)을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에 적용시킨 마케팅이다.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에 소비자의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하면서 동시에 기업의 사회공헌 이미지를 끌어올린다.

사회공헌 게임화 기법으로 소비자 참여 유도

스마트폰 게임 트리플래닛(Tree Planet)이 대표적이다. 트리플래닛은 기부를 게임과 연결시켰다. 씨앗을 심고 기업의 광고가 들어간 물과 비료를 지속적으로 주면서 아기나무를 어른나무로 키우는 것에 성공하게 되면 몽골 사막과 한국 비무장지대에 실제 나무가 심어질 수 있도록 후원 기업이 묘목과 장비 등을 기부하는 형식의 프로젝트다. 30만 명 이상이 게임에 참여했다.

폭스바겐은 속도를 준수한 운전자의 번호판을 자동으로 인식하는 기계를 도심에 설치한 뒤, 입력된 번호판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당첨금을 지급하는 운전자 복권 게임을 선보여 시민의 속도 준수습관까지 바꾸게 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게임을 이용한 과속 방지 프로그램 도입으로 평균 주행속도가 22%나 감소했다.

대한항공의 경우 세계 곳곳을 취항하는 글로벌 항공사로서의 장점을 살려 해외의 재난 구호 현장에 구호품을 지원하는 한편, 지구촌 자연 환경 개선을 위해 몽골, 중국 등지에서 ‘글로벌 플랜팅 프로젝트’를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빈 병 수거함을 두더지 잡기 게임으로 바꿔 재활용 쓰레기 분리수거를 장려한 것도 있다.

희망 따뜻한 동행

사회공헌 경영

每日新聞 13

2023년 2월 28일 화요일

1630억 사회포용 금융…서민·취약계층 부담 완화

DGB대구은행 DGB

금융소외계층 특수채권 채무감면
취약차주 보호 금리 0.50%p 인하

DGB대구은행이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

DGB대구은행 제공

지역 어린이·가족 초청 환경 교육
DGB에코 플로깅 행사 ESG 경영

올해 창립 56주년을 맞은 DGB대구은행은 ‘꿈과 풍요로움을 지역과 함께’라는 경영 이념 아래 ‘1.5 금융’, ‘따뜻한 금융’ 실천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연말 대구은행은 금융감독원이 개최한 ‘2022년 포용금융 부문 유공자 시상’에서 3년 연속 서민금융지원 및 2년 연속 자영업자 경영컨설팅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대구은행 내부에서는 물가, 금리 인상 등으로 어려워진 금융 환경에서도 지역 서민·취약계층의 자금 애로 해소를 위해 새희망홀씨대출(1천154억원), 햇살론뱅크(124억원) 등 서민지원대출을 적극적으로 공급해 1천630억원의 사회포용 금융을 지원한 점을 높게 평가받은 것으로 자평한다.

게다가 대구은행은 작년 8월에 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진 취약차주를 보호하고자 새희망홀씨대출의 신규 금리를 연말까지 0.50%포인트(p) 인하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하기도 했다.

이러한 흐름은 올 들어서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2일 황병우 대구은행장이 취임한 이후 ▷지방은행 최초 취약차주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전액 면제 ▷햇살론뱅크 비대면 출시 및 금리 0.50%p 인하 등 서민·취약계층 금융 부담 완화책을 속속 내놨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금리 인상기에 중소기업 금융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최근 ‘DGB 오픈런(Open-Run) 특별대출’과 중소기업 대환 전용 ‘DGB 롱런(Long-Run) 특별대출’을 출시했다. 모두 고객과 함께하는 따뜻한 금융 실천을 강화하려는 황병우 행장의 의지가 담겼다”고 설명했다.

이어 “봄을 맞아 3~6월 4개월 동안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금융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특수채권 채무감면 프로그램을 시행한다”며 “장기간 대출을 연체한 고객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 50~90%의 탄력적 감면율을 적용해 최장 5년의 장기분할납부 및 성실상환 인센티브 부여 등 다양한 상환부담 경감 혜택을 병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대구은행은 기업 ESG 활동에 발맞춘 환경, 메세나 학술 교육 지원 등의 활동도 활발히 하고 있다. 지역 어린이와 가족들을 초청해 환경 관련 강의를 듣고 근처 쓰레기를 줍는 DGB에코 플로깅 행사를 연중 실시하고, 플라스틱 무인파쇄 수거기를 본점 로비에 설치해 직원과 지역민의 환경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켰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고금리 고물가로 어려워진 금융환경에서 고객과의 동반성장을 위한 금융지원활동이 우수기관 선정이란 성과로 이어졌다”며 “앞으로도 지역 경제를 위한 대표 은행의 본분에 충실해 포용적 금융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겠다”고 했다.

홍준표 기자 pyoya@imaeil.com

with POSCO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스마트 기술

건설의 전과정에
BIM, 가상시공, IoT, Big Data, AI 등
스마트 기술을 접목시켜 건설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꿔 나가고 있습니다.

편리한 삶을 실현하고 미래를 앞당기는
스마트 컨스트럭션의 무한 가능성을 통해
더 효율적인, 더 완벽한, 더 안전한
건설현장을 만들겠습니다.

posco
포스코건설

포스코건설이 만드는
스마트 컨스트럭션의 미래

1 스마트 더샵
. 무선 IoT 홈네트워크
. AI 음성인식 기반 대화형 스마트홈
. AI 기반 세대 자동제어 솔루션

2 스마트시티
. 도시재생형 스마트시티
. 맞춤형 스마트시티

3 AI 기반 하수처리시설
. 시뮬레이션 활용 설계 솔루션
. IoT 기반 운영솔루션
. AI 기반 수처리 시설 O&M

4 5D 기반 EPC 통합솔루션
. Big Data 기반 엔지니어링
. 엔지니어링 통합관리 시스템
. 5D 기반 공사관리 시스템

5 영상해석 기반 고품질 시공
. Big Data 기반 시공품질 관리
. 적외선 영상 활용한 고품질 시공
. AI 기반 품질 진단/예측 시스템

6 BIM, AI 기반 Virtual Construction
. BIM/IoT 활용 프로세스 혁신
. BIM/Smart Device 운영환경

7 실시간 안전 통제/예방
. IoT 기반 실시간 현장 통제/관리
. 영상해석 기반 상황인지/사전예방
. AI/Big Data 활용 사고 예지/예방

8 Smart기술 기반 시공 자동화
. 드론/IoT 활용 단위 작업 자동화
. Big Data 기반 시공 자동화
. 3D 프린팅/AI 기반 장비 무인화

9 진동/소음 예지보전 솔루션
. AI 기반 시운전 진단기술
. Big Data 기반 O&M 통합 솔루션

'장보고 DAY' 운영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로봇산업진흥원(원장 손웅희)은 '인간, 로봇, 더 나은 미래,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로봇산업진흥기관'을 비전으로 삼고 있다. 다른 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람 냄새가 덜 날 것 같은 이 곳은 뜻 밖에도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사회 참여' '환경보호 활동'과 같은 사회공헌 활동에 큰 무게를 두고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의 대표적인 것이 소상공인 및 지역 내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우선 구매 활동이다.

구체적으로 '장보고 Day'는 매달 첫째, 셋째 수요일을 전통시장 가는 날로 지정 운영한다. 직원들이 자매결연 전통시장인 대구 북구 팔달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시간 조기퇴근 제도를 마련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아울러 '지역경제 살리기 릴레이 캠페인'을 추진하여 각종 원내 행사나 임직원 명절선물 구매, 기념일 축하제도 운영 등 복리후생 제도를 운영할 때 지역 내 소상공인 업체와의 거래를 확대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지역사회 참여' 활동으로는 명절맞이 기부활동, 로봇활용 교육, 기부펀드 모금, 헌혈 활동 등이 있다. 명절맞이 기부활동으로는 코로나19 등으로 경제적 위기를 겪고 있는 취약 가정을 지역 복지시설과 함께 선정하여 식료품이나 생필품을 꾸준히 명절마다 지원하고 있다.

특히 로봇산업진흥기관이라는 기관특성에 맞게, 소외계층 어린이를 초청하여 로봇 교구를 활용한 교육 운영 및 교구 지급을 통해 아동의 다양한 경험 제고와 로봇 인식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또 분기별 시행하는 단체헌혈과 연말 헌혈증 기부, KIRIA 기부펀드 성금 모금을 매개로 한 연말 기부 등을 통해 임직원의 자발적인 참여로 어려운 이웃 돌아보기 활동을 벌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천에 기여하고 있다.

'환경보호 활동'으로 대표적인 것이 노사공동 봉사단체 로보티어의 '봉사의날'.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가 신청을 바탕으로 매 분기 진흥원 및 대구 3공단 일대 쓰레기 줍기를 시행함으로써 노사 화합의 기회를 마련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천에도 기여하고 있다. 또한 임직원 가정의 인근 공원등에서 달리기를 하며 쓰레기를 줍는 '쓰담달리기' 활동, 2023년부터는 진흥원 로비에 플라스틱 병뚜껑 수거함을 설치하여 병뚜껑을 수거 후 업사이클링하여 새로운 상품으로 재탄생시키는 '요플래'(요기 플라스틱 뚜껑 모아줄래 캠페인도 추진할 예정이다.

손웅희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원장은 "인간을 위한 착한 로봇, '같이'의 가치 등을 강조하며 지속적으로 사회공헌활동에 앞장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송신용 기자 ssytk06@imaeil.com

소상공인·전통시장 활력

첫째·셋째 수요일 조기퇴근
자매결연 팔달시장에서 장보기 활동
취약 가정에 생필품, 소외 계층에 로봇 교육

적극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하여 지역사회의 호응을 받고 있는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로봇산업진흥원 제공

'행복한 진짓상' 배달

한국농어촌공사 경북본부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어촌이라는 공간에서 땅(地), 물(水), 사람(人), 마을(村)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이다.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농어촌 복지를 키우는 것이 목표다.

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는 대구경북 17개 지사를 두고 지역 내 농업용 저수지 693곳을 관리하며 농어촌 용수공급, 농업생산기반 조성, 농지은행, 농어촌 지역개발 등 업무를 수행한다.

또 지역민과 지역사회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행복충전활동'을 통해 농어촌 지역의 문제해결과 소외계층의 복지향상에 힘쓰고 있다.

경북본부는 지난 2014년부터 농어촌 취약계층의 식사 지원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복한 진짓상'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있다. 거동이 불편한 농어촌 홀몸 노인에게 매주 건강 도시락을 배달하고 안부를 확인한다.

이를 통해 맞춤형 건강관리용품 지원, 일상생활 도우미 지원 등 식사 해결을 넘어 건강·고독 해결까지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행복한 진짓상' 사업은 현재 영천, 상주, 청도, 고령 등 4개 시·군에서 51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수혜지역과 인원을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

최근 저수지는 농촌에 물을 대는 본래 기능을 넘어 시민 휴식 공간으로도 각광받는다. 이에 경북본부는 지난해 처음 '저수지 플로깅(조깅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것) 챌린지'를 도입하며 깨끗한 저수지를 만들고자 힘쓰고 있다.

플로깅 데이를 지정해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들과 저수지 주변 쓰레기를 수거하고, 지사별 릴레이 플로깅, SNS를 통한 언택트 플로깅 등을 하며 탄소 중립과 환경보호 홍보도 병행한다.

지난해 402명이 플로깅에 동참하였으며, 언택트 플로깅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기부금을 적립해 이웃돕기 성금을 전달하기도 했다.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 직원들이 지난해 6월 '행복한 진짓상' 사업을 통해 지역 농어촌 어르신에게 도시락을 배달하고 안부를 확인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 제공

어르신들 건강 챙겨요

거동 불편 농어촌 홀몸 노인
매주 건강 도시락 보내고 안부 챙겨
'저수지 플로깅 챌린지' 탄소중립 환경보호

공사는 노동자 유입 감소로 인해 인력난을 겪는 농가의 시름을 덜고자 농어촌 영농도우미를 보내 영농활동도 전사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경북본부는 사과 적과, 양파 수확 등 17차례의 일손 돕기에 나섰다.

태풍, 산불 등 재해피해 복구 지원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울진 등 산불피해 복구를 돕고자 직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금액에 공사 기부금을 더해 모두 1억1천700여만원을 모아 전달했다.

경북 남부 지역을 강타한 태풍 힌남노 피해 당시에는 포항·경주지역 피해복구와 이재민 지원 목적으로 성금 및 상품권 5천만원을 전달했다.

이어 전국 각지의 공사 직원이 경주의 피해 농가를 찾아 긴급 피해복구 지원 활동을 펼치며 신속한 피해수습과 주민들의 일상회복을 도왔다.

이 밖에도 공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고자 공사 소유 부동산의 임차료를 50% 감면했다. 지난해 감면한 임차료는 약 2억여 원에 이른다.

지역 농가를 위한 농산물 및 화훼류 구입, 농어촌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농어촌 집 고쳐주기, 영농폐기물 수거 등 지역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도 손을 보탠다.

하태선 농어촌공사 경북본부장은 "공사의 존재가치인 행복한 농어촌, 행복한 농어업을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홍준헌 기자 hjh@imaeil.com

칠곡군 CHILGOK GUN

대구 군부대 이전 최적지는 칠곡!!

기부하고~ 혜택받고~ 고향살리고~

칠곡군 고향사랑 기부제

2023년 1월 1일 처음 시행하는
고향에 기부하면 혜택을 돌려받는
고향사랑 기부제!
더 큰 지역발전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란?
개인이 현재 주소지를 제외한 본인의 고향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및 답례품을 제공받는 제도입니다.

기부대상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칠곡군이 아닌 칠곡군을 응원하는 누구나

기부방법
• 온라인: 고향사랑 기부시스템(PC/모바일) - 고향사랑e음
• 오프라인: 전국 농협은행 대면접수(※신분증 지참)

기부혜택
• 세액공제: 10만원 이하 전액, 10만원 초과분 16.5% 세액공제
• 기부금의 30%내 지역특산품 제공

답 례 품
농특산물, 전통·가공식품, 지역상품권 등

기부 바로가기

기부금은 취약계층 지원 및 지역민 복리 증진,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소중하게 사용됩니다.

| 문의 | 칠곡군 세무과 ☎ 054-979-6244

남 돕는 일도 '에너지' 넘친다

한국전력기술 참사랑봉사단이 낙후지역 장애인 가구의 주거환경개선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한국전력기술 제공

한국전력기술

業 연계 사회공헌활동 활발
낙후농가 설비 개선 대표적
취약층 생활 안정 기여 최선

발전소 설계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전력기술(사장 김성암·이하 한전기술)은 業(업) 역량 기반 상생 프로그램 운영, 복지사각지대 해소,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ESG 경영 실천 및 지역발전에 공헌한 성과를 인정받아 '제17회 2022 대한민국사회공헌대상' 사회공헌부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

'業 연계 사회공헌 프로그램'은 한전기술의 에너지기술을 기반으로 지역사회에 봉사활동을 펼치는 프로그램으로 지난 2019년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돼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지역 낙후농가 노후 전기설비 개선 에너지복지사업'이 대표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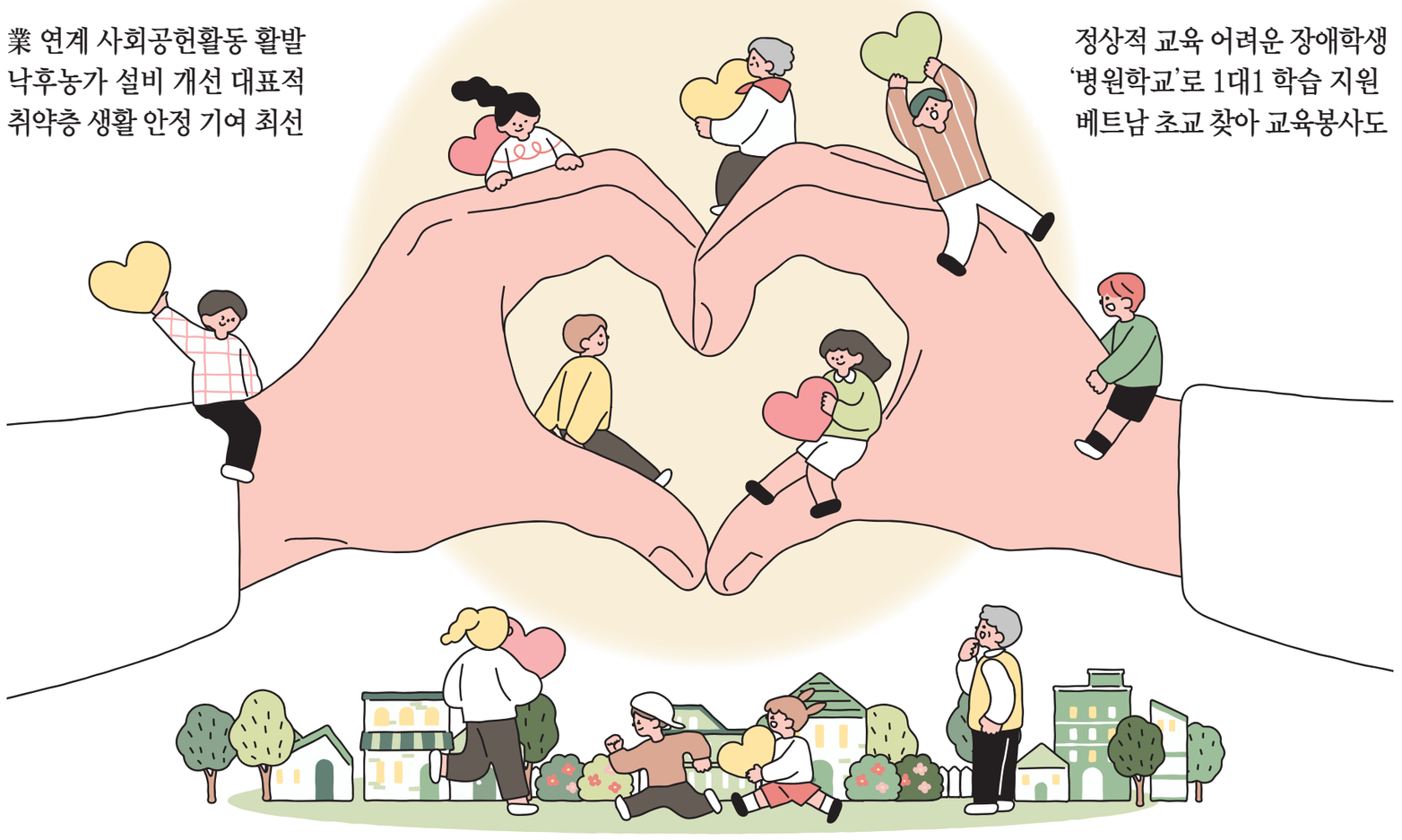
이외에도 지역 낙후농가 전기설비의 안전 점검, 노후화된 전등을 LED 등으로 교체, 지역거점 의료기관의 비상발전기 유지보수 지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 한전기술은 2015년 김천으로의 지방 이전 이후 지역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김천시 보호종료아동 지원을 목적으로 '탄소중립 2050 걸음 매칭 기부 챌린지'를 통해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4천100만 원을 전달했으며 같은 해 11월에는 김천의료원에 헌혈증서 500장과 86인치 TV 1대를 기증했다.

이 외에도 장애인보장구(휠체어) 교체를 위한 후원금을 전달, 저소득 취약가구에 간편 식품 360세트 및 화재 초기 진압용 스프레이형 소화기 150대 후원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취약가구 지원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한전기술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자체 및 이전공공기관과의 소통과 협업을 기반으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해 공공기관으로서 상생협력과 나눔의 가치를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고 했다. 신현일 기자 hyunil@imaeil.com



배움 나누는 '예비선생님들'

대구교육대학교의 '예비교원 예체능 교육봉사단'은 지난 1월 베트남 나트랑에서 교육봉사를 진행했다. 대구교육대 제공

대구교육대학교

정상적 교육 어려운 장애학생
'병원학교'로 1대1 학습 지원
베트남 초교 찾아 교육봉사도

대구교육대학교(총장 박판우)는 국립대학육성사업의 하나로 취약 계층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통해 지역 문화발전과 사회공헌활동에 힘쓰고 있다.

대구교대는 지난해 4월 '2022 상록가족과 지역민을 위한 아우름콘서트'를 개최해 지역주민과 학생, 교직원, 동문들이 한마음으로 소통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교직원, 동문, 학생, 지역민 등 250여 명이 참석한 콘서트는 대구교대 음악교육과 고선미, 황대진, 이영주, 정효성 교수와 초청 출연진들이 무대를 꾸몄다. 오케스트라의 'Carmen Suite' 합주를 시작으로 가야금과 해금 합주, 성악의 다양한 울림들이 감동을 선사했다. 학생은 물론 지역민에게도 문화·예술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민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지난해 6월부터 올해 초까지는 대구교대 재학생들이 병원에 장기간 입원해 있거나 정상적인 학교 교육을 받기 어려운 건강장애 학생에게 1대 1로 기초학력 학습 지원을 실시하는 '장애아동 교육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대구교대 특수교육과 재학생들은 교육지원을 위한 팀을 꾸려 영남대병원학교와 경북대병원학교의 교육지원 학생 8명을 대상으로 1명당 36시간씩 학습 지원을 실시했다.

특히 대구교육대학교의 '예비교원 예체능 교육봉사단'은 지난 1월 8~13일 베트남 나트랑 지역의 Truong Tieu Phuoc Tien 초등학교에서 '예체능 교육봉사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현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체육과 미술 분야 전문 교수와 예비교원들이 한국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는 교육 활동을 했고, 교구 기자재 지원을 통해 사후 교육 활동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박판우 총장은 "대구교육대학교는 5년 동안 국립대학육성사업을 운영하며 지역 구성원과 사회취약계층이 함께 발전하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해왔다"며 "새로 시작하는 2023년도 대학재정지원사업도 다양한 사업 발굴을 통해 예비 초등교사의 역량 강화뿐만 아니라 지역과의 상생적 협력 체제 구축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허현정 기자 hhj224@imaeil.com

每日新聞과 함께하는 나눔문화 캠페인

일상 속 작은 관심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듭니다.

함께하는 사회에 아름다운 향기를
채워주는 작은 관심 – 나눔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가장 소중한 가치 – 사랑입니다.

FDA "<"ITCU還별(원료의 안전성)
식물추출 칼슘젖산
• 건강기능식품 3,000mg x 30포 x 4ea(360g)
이신화 칼슘
Yisinhwa Calcium
문의 3788/9452

지역민에 휴식, 상인에 활력…'도심 속 작은 정원'

exco

이상길 사장 '7대 경영혁신안' 엑스코 주변 1만㎡ 경관 개선 서관 대형 미디어파사드 위용

대구경북 마이스(MICE, 회의·관광·컨벤션·전시) 산업의 중추인 엑스코가 지난해 9월부터 지역사회와 동반성장을 위한 활동에 힘을 쏟고 있다. 당시 이상길 대표이사 사장이 7대 경영혁신계획을 발표하면서 지역 명소화 사업을 통해 지역민이 전시 비수기 등 연중 찾을 수 있는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하기로 한 것이 시작이다.

지난해 하반기 엑스코는 전시회에 쓰인 인기 수목과 대구수목원의 가을 국화 조형물을 엑스코 야외광장에서도 즐길 수 있는 '도심 속 작은 정원'을 마련했다. 또 지난 크리스마스에는 야외광장에 야간 경관 조명을 환히 밝혀 밤에도 안전하고 걷기 좋은 분위기를 조성했다. 이 둘은 '엑스코 입점 부대시설은 물론 유통단지 일대 상권에도 활력을 도모하겠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더불어 지역 문화예술인에게는 공연시설을 무상 제공, 추운 겨울 시민의 마음을 따뜻하게 녹이는 크리스마스 음악회를 열어 방문객의 호응을 얻었다.

이상길 엑스코 사장은 "엑스코는 앞으로도 엑스코 주변 1만㎡ 일대 경관을 개선하는 '엑스코 주변 명소화 사업'을 통해 지역민에게 휴식과 다채로운 볼거리를 선사할 계획"이라며 "서관 앞 느티나무 광장과 동·서관 가로광장을 걷기 좋은 정원으로 개선하고, 동관 데크쉼터와 서관 대형 벽면 미디어파사드 설치를 통해 지역민들이 휴식과 볼거리를 동시에 제공하는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한다"고 계획을 전했다.

그러면서 이 사장은 "지역사회와의 상생과 동반성장을 선도하는 대한민국 대표 전시컨벤션센터가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 사장이 공언했듯 엑스코는 지역 마이스 산업 발전과 지역 경제계 동반성장을 위한 다양한 육성 지원책도 마련하고 있다. 지역 주최자가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임시 사무 공간 제공 및 홍보 지원 제도를 운용한다.

또한 엑스코는 전시·컨벤션 현장에 필요한 실질적 역량과 산업에 대한 전문지식을 축적할 기회를 제공해 지역 청년들의 마이스 업계 진출을 독려하고 지역의 취업률 제고에도 힘쓰고 있다. 실제로 엑스코는 지난해 12월 지역 대학들과 MICE 인재양성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 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마이스 산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전시기획력을 전수할 수 있는 현장 세미나·시설투어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홍준표 기자 pyoya@imaeil.com

엑스코는 지난해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야외광장에 야간 경관 조명을 설치했다. 일대를 환하게 밝혀 밤에도 안전하고 걷기 좋은 환경을 만들 목적이었다. 엑스코 제공

동우씨엠그룹 DONGWOO

정부 인정 3년 연속 사회공헌 기업

60여개 아파트 단지 나눔 봉사 지난해부터 장병급식 활동도

동우씨엠이 지난해 '사랑의 연탄 한반도 나눔운동' 대경본부와 함께한 봉사활동. 동우씨엠 제공

종합주거서비스그룹 동우씨엠(대표이사 회장 조만현)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회 연속으로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주관하는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으로 선정되는 등 꾸준한 사회공헌 활동으로 주목받고 있다.

동우씨엠은 ESG 경영 중 친환경과 사회적 책임 이행에 중점을 둔다. 공동주택 위탁관리사무소 내 재활용 분리수거장을 효과적으로 운영, 관리해 환경보전에 앞장선다. 또 조직 내 기획감사실과 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해 경영 지배구조의 위험 관리와 준법 경영, 직장 내 괴롭힘과 성차별 등 기업 내 부조리 척결을 실천하고 있다.

본사 임직원들과 공동주택 위탁관리사무소의 관리사무소장들로 이뤄진 직장봉사단체 동우사회봉사단(봉사단장 박영애)도 운영 중이다. 매달 130여 명이 봉사 기금을 기부하고 있다.

2012년부터 매년 연말마다 (사)따뜻한 한반도 사랑의 연탄 나눔운동 대구경북본부와 함께 여러 가구에 연탄을 직접 전달, 기부하고 있다. 19년째를 맞는 '동우씨엠 산타클로스 나눔봉사활동'도 인상적이다. 지난 12월 산타클로스 나눔봉사단 발대식을 갖고 60여 개 아파트 단지에서 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 동우씨엠은 산타복과 학용품 등 선물을 지원했다.

2011년부터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실천해오다 코로나19 사태로 지난 2년간 잠시 중단했던 장병급식 봉사활동도 지난해 6월부터 재개했다. 지난해 11월엔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인 덕수복지재단 미소마을(이사장 진덕수)을 방문해 김장 행사에 후원금을 전달하기도 했다.

조만현 대표이사 회장은 "3회 연속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이 된 만큼 지역사회를 위해 책임감을 갖고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실천하겠다"고 했다.

채정민 기자 cwolf@imaeil.com

AMOREPACIFIC

취약층 4,400명에 뷰티풀 나눔

메디안·아이오페 13개 브랜드 전국 사회복지시설 전달 계획

아모레퍼시픽 임직원이 '한마음 나눔활동'을 통해 취약계층에 도움을 주고 있다. 아모레퍼시픽 제공

㈜아모레퍼시픽 대구지점은 매년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을 대상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 아모레퍼시픽 그룹은 '한마음 나눔'활동을 통해 1천800만원 상당의 후원 물품과 후원금을 마련해 대구 동구 내 노인복지 시설에 전달했다. 한마음 나눔 활동은 지난 2000년 노사합의에 의해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사회에 기여하고자 시작됐다. 이후 꾸준히 복지시설 방문 후원 및 저소득 가정 돕기 등 나눔 활동을 실천해왔다.

또 아모레퍼시픽그룹이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통해 더 아름다운 세상을 함께 만들고자 마련한 물품 지원 활동인 '아리따운 물품 나눔'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아리따운 물품 나눔은 2005년 '사랑의 물품 나눔'이라는 이름으로 사회복지시설을 지원하기 시작했으며, 2009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파트너십을 맺고 규모를 확대했다.

지난 2008년부터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뷰티풀 라이프 사업에 지정 기부하며 취약계층의 경제적 역량 강화 및 자립을 위해 힘쓰고 있다. 지금까지 뷰티풀 라이프 사업으로 4천400여 명과 316개 기관을 지원했으며 각종 화장품과 생활용품 등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

올해 하반기에는 메디안, 해피바스, 라네즈, 아이오페, 프리메라, 이니스프리 등 13개 브랜드가 화장품·생활용품 등을 전국 사회복지시설에 전달할 계획이다. 아모레퍼시픽 대구지점은 "앞으로도 나눔을 통한 노사 공동의 나눔문화 실천 및 지역 사회 공헌을 통한 지속가능 경영을 꾸준히 실천하겠다"고 했다.

아리따운 물품 나눔 관련 상세 일정 및 자세한 내용은 아모레퍼시픽 사회공헌포털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세연 기자 ksy121@imaeil.com

每日新聞과 함께하는 나눔문화 캠페인

"희망의 별을 가슴에 띄워 봅니다"

당신의 실천이 작다 생각하지 마세요.
부끄럽다 생각하지 마세요.
작은 빗방울이 모여 강이 되고 바다가 되듯
당신의 소중한 나눔이 모여
이웃에게 커다란 희망의 별이 됩니다.

최고의 민물장어로 대구시민들께 보답하겠습니다.

文家 대구수산

2023년 2월 28일 화요일 每日新聞

매일 1천명 어르신에 따뜻한 한 끼, 벌써 30년째

1 천사무료급식소에서 어르신들이 배고픔을 달래고 있다. 2 신협 직원들이 연탄 자원 봉사를 하고 있다. 3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는 의료봉사 등 역할에 걸맞은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천사무료급식소

코로나 땐 도시락 배달
음식 전달 뿐만 아니라
생활 환경 살뜰히 살펴
고령 사회 안식처 역할

코로나19 팬데믹이 휩쓸기 전 대구 서구 비산네거리에 약 700~800여명의 노인들이 이른 아침부터 길게 줄을 선 풍경은 대구 시민들에게 제법 익숙한 모습이다. 많은 시민들이 궂은 날씨에도 이곳에 자리 잡은 천사무료급식소를 찾아 배고픔을 달랬다.

사단법인 한국나눔연맹 산하 기관인 천사무료급식소는 1992년부터 줄곧 한자리를 지키며 소외된 지역 노인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전하고 있다. 무료급식소를 주로 운영하지만 코로나19 이후에는 대체 급식의 하나로 무료급식 대신 도시락을 전달하며 지역 어르신들이 굶주림을 달래고 있다. 천사무료급식소는 대구뿐만 아니라 서울, 광주, 부산, 마산 등 전국에서 매주 3회 이상 매일 1천명의 어르신들을 위한 식사를 무료로 준비하고 있다. 정부 지원 없이 고령화 사회를 살아가는 노인들의 희망과 안식처가 되기 위해 노력한다.

대구의 노인 인구(만 65세 이상) 비율은 급속하게 진행된 고령화로 인해 2024년에는 18.5%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40년 전인 1984년에 3.0%에 그친 것과 비교하면 6배 이상 증가했다. 2030년에는 33.5%, 2024년에는 절반에 가까운 48.5%에 이를 거란 전망도 있다. 홀몸노인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매주 1회 사랑의 도시락 배달을 계기로 직접 홀몸노인 가정을 방문해 일주일 식량을 전달하고 생활 환경을 살피고 있다. 불편한 몸으로 바깥출입이 자유롭지 않은 홀몸노인을 위해 굶지 않고 생활할 수 있도록 도시락을 나눈다.

홀몸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랑의 우유배달'도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노력 중 하나다. 홀몸노인 가구에 비 대면식으로 우유를 배달하며 수혜자가 우유를 수거하지 않아 쌓일 경우 비상 연락망을 통해 즉시 가정을 방문한다. 천사무료급식소를 운영하는 한국나눔연맹의 안천웅 사무총장은 "지난 30년간 노인 복지 증진을 위해 다양한 복지사업을 전개하고 있지만 고령화로 인해 소외된 노인과 독거노인은 점점 늘어가고 있다"며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노인들의 사회적 문제를 예방하고 복지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민수 기자
msg@imaeil.com

건보공단 대경본부

난치병 아동 치료 돕고
찾아가는 봉사 12년째
낙후지·취약계층 지원
21개 지사 봉사로 똘똘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공공기관답게 '건강 지킴'이라는 브랜드에 맞는 사회공헌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김기형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장의 말이다. 그의 얘기처럼 건보공단 대경본부는 2005년 창단한 '건이강이 봉사단'을 중심으로 어려웃 이웃을 돕는 지원 프로그램을 전개해오고 있다. 대구경북 직원의 97.2%이 봉사단에 가입돼 있다. 창단 후 현재까지 이웃 돕기에 사용한 기금만 약 31억원에 이른다.

건보공단 대경본부는 역할에 걸맞게 건강 취약 계층을 발굴, 지원하는 데 힘써왔다. '몸 튼튼, 마음 튼튼' 어린이 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희귀 난치 질환을 앓고 있어도 치료비가 없어 어려움을 겪는 아동 13명의 치료를 도왔다.

경북대병원과 협력, 중증·희귀질환으로 투병 중인 아동 21명을 대상으로 '음악을 통한 완화치료'(84회)도 실시했다.

찾아가는 의료봉사인 '사랑실은 건강천사'도 12년 간 실시해오고 있다. 공단 버스에 내과, 안과, 이비인후과, 치과 등 30여 가지 최첨단 의료장비를 싣고 의료시설이 부족한 오·벽지와 장애인 시설 등 의료 사각지대를 방문해 무료진료(38회, 4천453명)를 펼치고 있다. 이외에도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제작한 '대구경북 건강통계' 발간 ▷매일신문과 함께하는 '낙후동네 구하기' 도새재생 프로젝트 ▷취약 계층 어린이의 학습을 돕는 '건강보험 작은 공부방'(15개소) 운영 등의 사업을 전개 중이다.

김기형 본부장은 "대구경북에 21개 지사가 있어 지역민을 도울 수 있는 인프라는 갖춰져 있는 셈"이라며 "빛과 같이 소중한 지역민들에게 소금과 같이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직원들과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했다. 홍준표 기자
pyoya@imaeil.com

3

신협

전국 직원·조합원 뭉쳐
취약계층 맞춤형 봉사
한파 피해 가구도 지원
난방용품 패키지 전달

신협(회장 김윤식)이 지난해 약 84억원 규모의 사회공헌 활동을 다양하게 펼치며 우리 사회 곳곳에 '어부바 온기'를 나누고 있다.

신협이 특히 집중하고 있는 분야는 ▷장애인·노약자 등 사회 취약계층 후원 ▷지역사회 및 소상공인 지원 ▷취약계층 장학사업이다. 신협이 1960년 서민들의 만성적 궁핍을 해결하기 위해 시작된 만큼 '자립, 자조, 협동'이라는 최초의 정신을 유지해나가려는 노력이다.

'온 누리에 사랑을 캠페인'은 1998년부터 시작된 신협의 대표 사회공헌 사업. 전국 신협 임직원이 주변의 어려운 생계 위기가정을 직접 발굴해 추천하면 신협사회공헌재단이 성금을 지원한다.

2021년까지 모두 588가구가 18억9천400만 원의 생계비를 지원받았다. 지난해는 코로나19 사태로 더욱 어려워진 경제상황을 고려해 지원 대상자를 대폭 늘렸고, 총 2억원 가량의 생계자금을 전달했다.

'온 세상 나눔 캠페인'은 2015년 시작된 나눔 행사다. 전국 신협 임직원들이 한파로 큰 어려움을 겪는 이웃을 직접 확인해 난방용품, 생필품, 건강식품 등이 담긴 어부바 박스를 전달한다. 2021년까지 6만7천364가구에 난방용품 15만개와 연탄 113만장, 어부바 박스 2만여 개를 전달했다. 신협이 2015년부터 시행 중인 '우리 동네 어부바 사업'은 지역 친화적인 신협의 정체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사회공헌 활동이다. 전국 신협·임직원·조합원으로 구성된 '두 손 모아 봉사단'의 지역 맞춤형 봉사활동을 신협사회공헌재단이 지원한다. 지난해에는 6억6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취약계층 어르신 돌봄, 저소득 가구 아동·청소년 급식 지원, 취약계층 가정 의료서비스 등의 활동을 진행했다.
홍준표 기자

한국 가구산업 발전 등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 산업포장을 수훈한 고중환 금성침대 회장이 침대에 있어 매트리스의 중요성을 설명하며 가족 같은 경영과 사회공헌 의지를 밝히고 있다. 매일신문DB

금성침대

3년 동안 4억원 기부

숙면만큼 인간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또 있을까? 편안하고 충분한 수면은 인체에 활력을 불어넣어 활기찬 일상으로 이끌어준다.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하면 당뇨나 고혈압 같은 성인병은 물론 치매를 부르는 등 악영향이 있다는 건 의료계 연구로 잘 알려져 있다.

금성침대(회장 고중환)는 반세기 가까이 침대만을 생각해온 기술력으로 소비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금성침대의 건강한 수면 환경 기술은 침대 관련 지식재산권을 91건 보유한 데서도 잘 드러난다. 특히 인체공학적인 설계와 친자연적 소재로 만든 고품질의 매트리스는 숙면을 위한 최적의 솔루션으로 평가된다. 꾸준한 연구개발과 깐깐한 품질 관리가 그 밑바탕이다.

금성침대만의 특별함은 기술력 이상으로 사회공헌 실천에 앞장서는 데 있다. 1978년 창립 이래 꾸준히 지역사회와 함께 해온 금성침대는 곳곳에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있다. 지난 2020년~2022년 3년 동안 기부한 금액만도 4억원에 육박한다.

침대 지식재산권 91건…코로나·산불 피해 손길

코로나19 초기인 2020년 3월 대구경북지역에 1억원을 내놓아 코로나와 사투를 벌이는 지역민들에게 희망을 안겼다. 화마가 경북 울진과 강원 삼척을 할퀸 지난해 3월에는 산불피해 이웃돕기를 위해 5천만원을 기부했다. 구미시장학재단에도 2천만원을 쾌척했다. 고중환 회장의 고향이 구미 장천면이라서만은 아니다. 금성침대는 본사와 1·2·3공장이 있는 경기 양주시에도 기부를 멈추지 않고 있다. 지난 3년 동안 ▷양주시희망재단 5천만원 ▷의정부공업고교 1천만원 ▷재단법인 오상매암장학회 1천500만원 ▷대한장애인체육회 500만원 등 16차례에 걸쳐 사회 곳곳을 응원하는 데 앞장섰다. 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4차례 7천600만원을 기부했다. 이렇게 쾌척한 총액이 3년간 3억8천117만원이다.

금성침대의 기부 행보는 침대 기술력은 기본이고, 이웃사랑 실천으로 사회에 공헌하는 것이야말로 기업의 책무라는 믿음에서다. 100년 기업을 향해 묵묵히 걷고 있는 금성침대는 최고 수준의 침대 기술에 집중하면서 사회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기부를 이어갈 계획이다. 고중환 회장은 "앞으로도 직원들과 '나'보다 먼저 '우리'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정직한 침대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고 싶다"며 사회공헌 의지를 감추지 않았다.

송신용 기자 ssytk06@imaeil.com

대경권 이랜드리테일 봉사단이 오는 6월에는 어린이, 청소년을 이월드로 무료 초청하는 행사를 열 예정이다. 이랜드리테일 제공

㈜이랜드리테일

매년 순이익 10% 환원

동아백화점 인수와 함께 대구 진출 14년을 맞은 ㈜이랜드리테일(동아백화점, NC아울렛)이 그동안 중점적으로 전개한 사업은 지역상생을 위한 사회공헌이다. '나눔'이라는 첫 번째 경영 이념을 바탕으로 매년 순이익의 10%를 사회에 환원한다는 방침을 대경권에서도 꾸준히 지키고 있다.

대경권 이랜드리테일은 먼저 정규직원, 협력업체·용역업체 직원, 고객과 지역 최대 규모 봉사단을 꾸렸다. '대경권 이랜드리테일 봉사단'이다. 대경권 봉사단은 매월 지역 소외계층에 필요한 물품을 전달하는 '사랑의 장바구니'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5만2천여 가구를 지원했다. 사회복지시설도 방문해 청소와 목욕 봉사, 물품 전달 등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청소년 이월드 무료 초청…지역 최대 규모 봉사단

매년 11, 12월에는 이랜드 복지재단과 함께 연말을 앞두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김장, 연탄 등을 나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일상 회복 사랑의 연탄 나눔' 행사를 열고 대구 중구청에 연탄을 전달한 데 더해 봉사단원이 직접 200가구에 연탄 4만장을 배달했다.

올 6월에는 어린이, 청소년을 테마파크 이월드로 무료 초청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랑의 장바구니', 대구척수장애인협회 등 장애인협회 19개 물품 지원, 미혼모 돕기 자선 바자회와 성금 전달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황보성 대경권 이랜드리테일 대외협력실장은 "대경권은 그룹 안에서 유일하게 경영 상황과 관계 없이 지역상생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중단하지 않고 유지해 온 지역이다"며 "그 의미와 전통을 이어가고자 그룹, 본사 차원에서 노력하고 있다. 올해도 대경권의 나눔, 봉사활동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정은빈 기자 bean@imaeil.com

세영정보통신이 자체 개발한 WiWi 시리즈 모델. 세영정보통신 제공

SET SEYOUNG

'위위' 수출 100만달러

경북 구미국가산업단지 내 세영정보통신㈜(대표 이세영)은 유·무선 통신장비 수리 유지보수 전문기업이다.

24년 이상 통신 장비 기술력을 바탕으로 자체 개발한 휴대용 양방향 무선 통신기기 '위위(WiWi)'는 지역경제 발전과 무역 활성화 도모를 위해 내수 시장이 아닌 해외 시장을 타깃으로 개발했다. 수 년간의 노력 끝에 품질을 최우선으로 하는 일본시장을 선점했고, 그 기술력을 인정받아 유럽, 동남아, 미국 등 해외시장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현재 '위위'는 4개의 모델을 출시했으며, 수출 100만달러 성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

세영정보통신은 해외 시장 진출과 더불어 국내 방위산업에서도 두각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육군에 첨단 지상군 부대를 상징하는 아미타이거 전력체계 구축을 위한 에너지기술개발을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으로

헬스케어 단말기 병원·돌봄센터 보급 예정

제안, 승인을 받아 방위산업의 통신 기술력을 상승시키는 개발사업 진행에 나섰다. 회사 측은 6억원 이상의 사업비 및 개발비를 투자해 국내 최초 양자암호 적용 무전기를 개발 중이며, 개발 완료 후에는 육군부대에 5년에 걸쳐 3만5천대 이상의 개발 무전기를 보급한다는 목표다.

이 회사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위위'의 기술력을 접목시켜 의료 헬스케어단말기를 개발 중이다. 이 단말기는 산업단지 대개조 지역기업 R&D 개발사업 지원을 통해 구미 금오공과대학교와 산학협력으로 개발되고 있으며, 구미 강동병원에서 현장 테스트 중이다.

단말기는 지체부자유 노인들이나 치매 환자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환자 본인과 보호자들에게 측정데이터를 전달해 언제든 건강상태를 체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세영정보통신은 위위 헬스케어 단말기를 병원, 노인요양원, 돌봄 센터 등에 보급해 지역 사회 취약자 및 노약자들의 건강 케어 향상에 도움을 준다는 계획이다.

회사는 지역사회를 위한 각종 공헌활동에도 적극적이다. 지난해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에 참가해 3명의 청년 대졸 미취업자를 발탁, 방위산업 현장 중심의 전문교육 및 기업 실무 연수를 수행하며 지역사회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이세영 대표이사는 "소비자가 제품을 만든다, 제품은 정직하다라는 이념으로 소비자와 임직원 모두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창희 기자 lch888@imaeil.com

수색 도중 독사 물려 은퇴 命 받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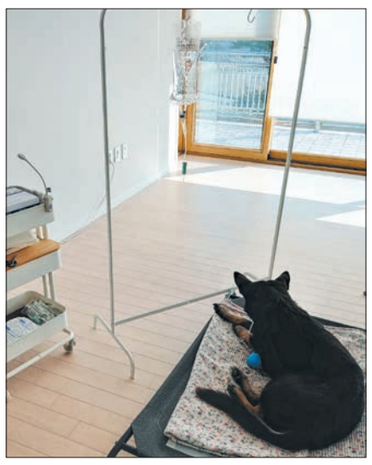
은퇴견으로 인생 2막을 시작한 세빈이. 임소현 기자

인명구조견, 은퇴 후에 어떻게 지낼까?

2019년 8월 충북 청주 야산에서 실종된 여중생이 11일 만에 극적으로 구조됐다. 경찰 5천700명을 투입해도 찾지 못했던 실종자를 발견한 것은 다름 아닌 군견 달관이었다. 달관이는 여중생의 체취를 맡고 구조 대상자를 발견했을 때의 자세를 취했다. 실종자를 찾아낸 달관이에게는 '영웅견'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같은 날 인명구조견 세빈이는 생사를 오갔다. 세빈이는 대구 달성군 중앙119구조본부 소속으로 달관이와 동일한 수색 임무에 투입됐다. 하지만 세빈이는 수색 도중 독사에게 물렸고 그 사고로 신장 기능의 80%를 상실했다. 불의의 사고를 당한 세빈이에게는 더 이상 임무 수행은 어렵다는 판정이 내려지며 '은퇴견'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핸들러와 헬기를 타고 수색 현장으로 향하는 세빈이. "멍멍 나 좀 무섭다."


세빈이는 만성 신부전증과 고관성 이형성증을 앓은 채로 퇴역했다. 이 때문에 세빈이는 하루에 수액 2리터를 맞아야 한다.

세빈이의 은퇴식 현장. 세빈이는 2013년생으로 2014년도에 소방에 입소했다. 그리고 2016년 5월 부터 2019년 11월까지 총 75번 출동했다.

◆인명구조견에서 은퇴견으로 "멍! 받았습니다"

튀르키예 지진 현장에 한국 인명구조견이 파견되면서 이들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인명구조견은 인력이나 첨단 장비를 동원해도 찾기 어려운 재난·실종 현장에 투입돼 실종자를 신속하게 찾아내는 특수 목적견이다. 2023년 1월 기준 전국 인명구조견 보유 현황은 총 35두(중앙119구조본부 3개 특수구조대 소속 12두, 88개 시도 23두)이다.

구조견은 10개월~2년 미만의 후보 개 중 타고난 체력·소질·성품을 검증해 연습생을 뽑아 2년 동안 양성 과정에 들어간다. 환경 적응·친화 훈련 같은 기초 단계부터 산악·붕괴 수색, 헬기 출동 등 고난도 훈련을 거친다. 훈련을 마치면 '공인인증평가'가 있다. 산악·재난 수색 능력과 종합전술(장애물·복종)에서 분야별 70% 이상 점수를 얻어야 비로소 인명구조견이 될 수 있다.

세빈이는 2013년생으로 2014년도에 소방에 입소했다. 2년간의 훈련 기간을 가진 뒤 2016년 5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총 75차례 출동했다. 부상을 당하기 전 세빈이의 마지막 출동은 부산 붕괴 사고였다. 건물 붕괴 때 깔린 생존자나 시신을 찾는 역할을 했다. 무너진 건물 잔해 위를 누비고 사람이 진입하기 어려운 좁은 공간을 샅샅이 수색했다.

구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훈련도 틈틈이 했다. 특히 구조견 최초로 수난 훈련을 받았다. 수난 훈련이란 수상 사고에 대비한 훈련으로 물에 빠진 사람을 찾는 연습으로 물에서 미세하게 나는 시신의 냄새를 맡으면 짖도록 훈련을 받는 것이다. 구조견은 사람과 비교해 최소 1만 배 이상의 후각 능력과 50배 이상의 청각 능력을 갖춘 것으로 알려진다.

◆서류·현장 실사…은퇴견 입양 과정 까다롭게 진행

"독사에 물려 만성 신부전증이 온 세빈이는 입양이 잘 안 됐어요. 입양 공고가 날 때 질병명이 같이 나가니까 아무도 안 데리고 갔던 거죠. 주인을 못 찾아 중앙119 견사에 계속 있었다고 해요." 이현주 씨는 2020년 3월 세빈이를 입양했다. 세빈이가 독사에 물려 은퇴한 지 꼭 반년 만이었다.

인명구조견의 은퇴는 노령·질병 등의 이유로 구조 활동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진행된다. 소방청은 분양 공고를 통해 신청된 서류를 1차 심사한다. 그리고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사를 나가는데 은퇴견에게 적절한 환경인지, 새 가족이 될 수 있는지 이것저것 꼼꼼하게 살펴보기 위함이다.

현주 씨도 공고를 통해 세빈이를 입양했다. 여러 절차를 거치고 나서야 세빈이의 반려인이 될 수 있었다. "세빈이와 처음 만났을 때가 기억나요. 소방견이라고 하면 뭔가 사나울 것 같잖아요. 그리고 갑자기 주인이 바뀌어 혼란스러울 법도 한데 얼마나 밝고 저에게 잘 다가오던지. 정말 웃음이 나더라고요." 특수한 일을 담당했다 보니 인명구조견에 대한 편견도 많다.

하지만 특수한 일을 했다고 해서 특별한 성격이 있는 것은 아니다. 세빈이는 쾌활하고 밝은 성격이다. 또 먹을 것을 좋아해서 간식 앞에서는 그야말로 무장해제된다. 인명구조견은 사람과 관계를 맺는 일을 하다 보니 대부분 친화력이 좋은 편이다. 인명구조견에게 강조되는 덕목 중의 하나가 인간과의 교감이기 때문이다. 물론 구조견마다 세세한 성격은 다를 수 있다.

"은퇴견을 입양하신 몇몇 분들과 연락을 하고 지내는데요. 말썽을 부리거나 문제가 있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이건 구조견 출신이라서가 아니에요. 그저 동물마다 성격이 다를 뿐. 일반 강아지들도 성격·행동이 다 다르잖아요. 얘네들도 평범한 아이들일 뿐이에요."

◆은퇴하고도 몸이 근질근질 "인생 2막 제대로 즐긴다멍!"

세빈이의 인생 2막은 꽤 화려하다. 우선 소방청에서 정책기자단으로 2년 동안 활동했다. 세빈이가 몸담았던 소방청을 홍보하는 일을 맡았는데 SNS에서 꽤 이름을 날렸다고. 세빈이와 함께 활동했던 구조견 동기들의 이야기를 다룰 때는 특히 즐거워했다. 오랜만에 만나는 동료들이 반가운지 연신 꼬리를 흔들어댔다. 구조견이 되기 위해 훈련받는 어린 후배들을 만날 때는 의젓한 모습을 보였다.

은퇴는 했지만 후배들 군기라도 잡으려는 건지 꽤나 진지한 모습이었단다. 수십 개의 콘텐츠를 만들어내며 소방의 얼굴이라는 호평도 자자했다. 2021년에는 최우수 기자상, 2022년에는 우수 기자상을 수상했다. "물론 세빈이가 글을 쓴 건 아니에요. 세빈이 시점에서 제가 글을 적었죠. 그래도 세빈이도 엄연한 기자죠."(웃음)

작년 7월에는 탈진해 쓰러져 있던 어르신도 구조했다. "세빈이와 산책을 하고 있었는데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하더라고요. 언덕 아래로 내려가더니 풀 더미 앞에 멈춰 올라올 생각을 하지 않더라고요. '이리 나와' '뭐해?' 불러도 그대로고요." 세빈이가 꼬리를 흔들고 짖기까지 하자 현주 씨도 뭔가 싶어 따라 내려갔다. 그리고 풀 더미 안에서 C자 모양으로 웅크리고 있는 어르신을 발견했다.

예삿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퍼뜩 든 현주 씨는 그길로 바로 112에 신고하고 구조를 요청했다. "은퇴를 했지만 세빈이가 119구조견으로서의 수색 탐지 능력을 여전히 잊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재직 당시에 핸들러 아빠와 호흡을 맞춰 전국의 산과 강을 누비고, 부서진 건물 잔해 속에서 혹시 살아 있을지 모르는 사람을 찾고 또 찾은 기억이 났나 봐요."

◆국가 위해 헌신한 은퇴견 위한 국가적 지원 필요

"세빈이 수액 맞힐 시간이에요. 잠깐만 기다려 주시겠어요?" 세빈이는 만성 신부전증과 고관성 이형성증을 앓은 채로 퇴역했다. 이 때문에 세빈이는 하루에 수액 2리터를 맞아야 한다. 그때마다 주사기와 의료용품을 일회용으로 써야 하니 그 값만 한 달에 100만원 남짓이다. 거기에다 특수 사료를 먹여야 하는데 한 끼에 1만원 정도라고 한다.

넓은 구조 현장에서 장시간 일하는 구조견들은 매년 정기검진을 받는다. 1년마다 관절과 흉부 건강 상태를 보기 위해 엑스레이를 찍고 혈액검사와 초음파 검사 등을 받는다. 이 외에도 이상 증상을 보일 때마다 병원을 찾아가 수시로 진찰을 받는다. 하지만 은퇴견에 대한 별도의 검진은 없다. 구조견에서 반려견으로 노후를 보내기 위한 국가 지원은 받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헌신한 걸 생각하면 세빈이도 사람과 같은 소방대원이잖아요. 그런데 은퇴 후 지원은 하나도 없어요. 1년에 한 번씩 정기검진을 해주거나, 정기검진 할인이라도 해주는 지원책이 생기면 좋겠어요. 그래야 입양도 활성화되지 않을까요."

현주 씨의 외침에 구조견을 관리하는 중앙119구조본부는 '현재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은퇴하는 119구조견의 복지 여건 개선을 위해서 세심히 검토 중에 있습니다'라고 전해 왔다.

인명구조견 은퇴 기념식에는 은퇴견의 조끼를 벗기는 행사가 있다. 이제 무거운 짐은 내려놓고 반려견으로서의 행복한 삶을 살아가라는 의미다. 공익을 위해 일한 특수견들에 대한 처우 개선 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 은퇴견에게 국가의 지원이 따르지 않는다면 이들에게는 또 다른 무거운 짐이 지워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임소현 기자 hyoni@imaeil.com

‘독일 전설’ 클린스만, 태극전사 이끈다

대한축구협회는 남자 축구대표팀 새 사령탑으로 독일 출신의 위르겐 클린스만(59) 감독을 선임했다고 27일 발표했다. 2014년 클린스만 감독 모습. 연합뉴스

남자 축구대표팀 새 사령탑 선임

2026년 월드컵 본선까지 계약
다음달 24일 친선경기 데뷔전

獨·美 대표팀 감독으로 활약
2년 지도자 공백기에 우려도

대한축구협회는 남자 축구대표팀 새 사령탑으로 독일 출신의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을 선임했다고 27일 발표했다.

클린스만 감독과의 계약 기간은 3월부터 2026 북중미 월드컵 본선까지로 약 3년 5개월이다.

감독을 보좌할 코치진은 조만간 클린스만 감독과 대한축구협회가 논의해 확정할 계획이며 재임 기간 한국에 거주하는 것을 계약 조건으로 했다.

클린스만 감독은 다음주 중에 입국해 한국대표팀 감독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데뷔전은 다음달 24일 울산에서 열리는 콜롬비아와의 친선경기다.

클린스만 감독은 선수 시절 독일(당시 서독) 국가대표로 1990년 이탈리아 월드컵 우승을 맛보기도 한 세계적인 공격수다. 1994년 미국 월드컵에서는 우리 대표팀을 상대로 2골을 넣기도 했다.

현역 은퇴 이후엔 독일(2004~2006)과 미국 축구대표팀(2011~2015) 등을 이끌며 감독으로서도 이름을 알렸다.

독일 대표팀 감독으로는 자국에서 열린 2006 월드컵에서 3위에 올랐다. 미국 대표팀에선 2013년 북중미 선수권 우승, 2014 브라질 월드컵 16강 진출 등의 성과를 냈다.

국가대표 감독으로서 굵직한 성과들을 낸 클린스만 감독이지만, ‘지도자 공백기’가 다소 길었던 점에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한다.

지난 2020년 독일 프로축구 헤르타 베를린 감독에서 물러난 이후 지휘봉을 잡지 않았다. 현장과 2년이 넘게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지도자로서의 감각이 떨어지지 않겠냐는 걱정도 나온다.

클린스만 감독은 협회를 통해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의 감독이 돼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다. 한국 대표팀이 오랜 기간에 걸쳐 끊임없이 발전하며 성과를 내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다가오는 아시안컵과 2026년 월드컵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신중언 기자 shyoung3@imaeil.com

선수·감독 시절, 한국과 3차례 인연

월드컵 멀티골…자국 승리 견인
우리나라와 친선경기 1승 1패

한국 남자축구 국가대표팀의 새 사령탑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은 한국 축구와 3차례의 인연이 있다. 선수로서 한 차례, 감독으로는 두 차례 한국과 맞붙은 경험이 있다.

독일의 스타플레이어 출신인 클린스만 감독은 선수 시절 월드컵에서 한국에 멀티골을 기록하며 자국에 승리를 안긴 경험이 있다. 그는 1994 미국 월드컵 조별리그 3차전 독일과 한국의 경기에 선발 공격수로 출장해 전반에만 화려한 터닝슛 등 2골을 몰아치며 독일의 3대2 승리를 이끌었다. 당시 3골을 넣은 독일은 더운 날씨에 지친 모습을 보이며 후반 황선홍과 홍명보의 역습에 당해 2골을 내주기도 했다. 이날 경기를 두고 훗날 클린스만은 “5분만 더 경기가 길어졌다면 우리가 졌을 것”이란 말을 남기기도 했다.

이후 2004년 40세에 독일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된 클린스만은 2004년 한국에 방문해 부산에서 당시 한국축구대표팀인 ‘본프레레호’와 친선 경기를 치렀다. 경기에서 독일은 미하엘 발락이 한 골을 넣었지만 김동진, 이동국, 조재진에게 실점해 1대 3으로 패배를 경험했다. 독일이 한국에 패한 첫 번째 경기였다.

이후 2014년 미국 국가대표팀 감독 시절에는 미국 LA에서 격돌해 2대 0으로 승리했다. 다만 당시 경기는 공식 A매치 기간이 아니어서 양 팀은 유럽파 없이 자국 리거 위주로 선수단을 구성해 경기를 치른 일종의 친선전 성격이었다.

김우정 기자 kwj@imaeil.com

리오넬 메시(파리 생제르맹)가 27일 프랑스 마르세유의 스타드 벨로드롬에서 열린 마르세유와의 원정 경기에서 팀의 두번째 골을 넣고 있다. 이로써 메시는 클럽 통산 700골이라는 불멸의 기록을 가지게 됐다. 연합뉴스

‘축신’ 메시, 클럽 통산 700골…불멸의 대기록

PSG, 마르세유 상대 3대0 완승

전반 29분 득점…음바페 멀티골
개인 통산 800골 달성 시간문제

‘축구의 신’ 리오넬 메시(파리 생제르맹)가 클럽 통산 700골이라는 불멸의 기록을 썼다.

프랑스 프로축구 파리 생제르맹(PSG)은 27일 프랑스 마르세유의 스타드 벨로드롬에서 열린 마르세유와 2022-2023 프랑스 리그1 25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킬리안 음바페의 멀티골과 메시의 득점에 힘입어 3대 0으로 완승을 거뒀다.

메시는 팀이 1대 0으로 앞선 29분 음바페가 왼쪽 측면에서 찔러준 패스를 문전에서 마무리하면서 올 시즌 리그 12호 골을 작성했다. 이 득점은 메시의 클럽 통산 700호골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를 더했다. 메시는 2004년 10월 FC 바르셀로나(스페인) 1군에 데뷔한 뒤 17시즌 동안 공식전 778경기를 치르며 672골을 넣었다. 2021년 8월 PSG로 이적한 뒤 이날까지 62경기를 뛰며 28골을 만들어냈다.

‘영원한 라이벌’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역시 지난해 10월 같은 기록을 작성한 바 있다. 그는 유럽 무대에서 모두 701골을 터트리고 올해 초 사우디아라비아 알나스르로 이적했다.

다만 호날두의 득점 중 5골은 유럽 5대 리그(잉글랜드·스페인·독일·프랑스·이탈리아)가 아닌 스포르팅(포르투갈) 소속으로 넣은 것이라 메시의 기록보다는 다소 뒤처진다는 평가다.

지난해 2022 카타르 월드컵 우승에 이어 또 다른 위업을 달성한 메시의 앞에는 도달할 수 있는 업적이 아직도 많다.

먼저 아르헨티나 국가대표로 98골을 넣은 메시는 A매치 100골을 눈앞에 두고 있다. 아울러 클럽과 국가대표 득점을 합한 개인 통산 득점 800골 달성도 시간문제다. 또한 앞으로 4개의 도움만 추가한다면 클럽 통산 300도움이라는 기록도 가질 수 있다.

한편 이날 멀티골을 올린 음바페도 PSG 구단 최다 득점 공동 1위로 이름을 올리는 기염을 토했다.

2017-2018시즌 임대로 PSG에서 뛴 후 완전 이적한 음바페는 6시즌 간 한 팀에 몸담으며 공식전에서 200골을 넣었다. 이는 에딘손 카바니(발렌시아)가 세운 PSG 구단 최다 득점 기록과 같다.

신중언 기자

2023 춘계 전국고등축구대회 우승 직후 기쁨을 만끽하는 현풍고 선수단. 대구FC 제공

대구FC U-18 현풍고 춘계 고교축구 ‘우승’

프로축구 대구FC 18세 이하(U-18) 팀인 현풍고가 고교 축구대회에서 우승하며 실력을 과시했다.

현풍고는 27일 합천군민체육공원에서 열린 2023 춘계 전국고등축구대회 결승전에서 서울 대동세무고를 상대로 1대 0으로 이겼다.

대한축구협회가 주최하고 경상남도축구협회와 합천군축구협회가 주관하는 2023 춘계 전국고등축구대회는 전국의 고등부 축구팀 39개 1천40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했다.

조별예선 1위로 16강 토너먼트에 오른 현풍고는 경기 광문고(1대 0 승), 경기 수원고(3대 0 승), 경기 통진고(3대 1 승)를 모두 꺾으며 결승에 진출했다.

결승전에서 현풍고는 전반 2분 김승주의 이른 득점으로 손쉽게 경기를 풀어나갔다. 초반엔 상대의 압박에 고전했지만, 서서히 조직력이 살아나며 대동세무고를 압도하면서 승리를 얻었다.

이로써 현풍고는 2021년 K리그 U18 챔피언십 우승을 차지한 뒤 3년 만에 우승 트로피를 가지게 됐다.

고교무대 정상에 오른 현풍고에 각종 개인상도 쏟아졌다.

현풍고의 안재곤 감독과 김재연 코치는 각각 최우수지도자상과 우수지도자상을 수상했다. 주장 권광덕은 최우수선수상을 수상했다. 이어 김승주가 최우수 공격수상을, 박상영이 골키퍼 상, 김민준이 베스트 영플레이어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신중언 기자

대구 장애인 체육 활성화 참여율 35.7%…전국 2위

대구시가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도시로 인증을 받았다.

대구시는 문화체육관광부·대한장애인체육회가 공동 실시한 2022년 장애인 생활체육 조사 결과 ‘장애인 생활체육 완전 실행자 비율’에서 전국 평균(26.6%)을 상회하는 35.7%로 17개 시·도 중 2위를 차지했다.

전국 등록장애인 1만 명(만 10세~69세)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조사는 재활치료 이외 목적으로 1주일 2회 이상, 1회당 30분 이상, 집 밖에서 운동하는 사람 등을 기준으로 진행돼 실질적인 생활체육 참여도 전반을 살펴볼 수 있다.

대구시는 2021년 대비 참여율이 4.5% 증가한 것으로도 조사돼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가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우정 기자

김재걸 감독 “기본기·일체감 더 탄탄해져”

삼성 퓨처스 선수단 국내로 복귀
경산볼파크·라팍서 훈련 이어가
이호성·서현원 등 1군 캠프 잔류

사상 첫 일본 오키나와 스프링캠프에 참가했던 삼성라이온즈 퓨처스 선수단이 해외 훈련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다.

올 시즌 팀 내부 육성과 무한 경쟁을 내세웠던 삼성은 1군과 함께 퓨처스 선수단까지 모두 일본으로 떠나 훈련을 진행했다.

1군 선수단의 스프링캠프 훈련지인 오키나와 온나손 아카마 구장에서 차로 15분 정도 떨어진 이시카와 구장에 캠프를 차린 퓨처스 선수단은 26일 한발 먼저 귀국했다.

퓨처스 선수단 소속으로 스프링캠프를 시작했던 선수 중 신인 내야수 김재상을 필두로 이해승과 이성규, 김동엽, 김헌곤이 1군 야수조에 남았고, 투수 신정환과 올해 1차 지명 투수 이호성, 서현원 역시 1군 스프링캠프에 잔류해 남은 훈련 일정을 소화한다.

귀국한 퓨처스 선수단은 경산볼파크와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 훈련장 등에서 4월 4일 개막하는 퓨처스리그를 앞두고 국내에서 훈련을 이어간다.

이번 퓨처스 선수단의 해외 훈련은 많은 의미를 남겼다.

스프링캠프 기간에서도 언제든지 1군과 퓨처스를 오갈 수 있는 만큼 1군·퓨처스 선수단 모두에게 강한 동기부여와 자극제를 주면서 훈련 집중도를 높일 수 있었다.

특히 매번 추운 날씨 속에서 국내에서 비시즌을 준비해왔던 퓨처스 선수단은 따뜻한 날씨속에서 마음껏 훈련하며 기본기를 다질 수 있었다.

김재걸 퓨처스 감독은 “목표를 가지고 일본으로 갔던 만큼 신인들의 훈련 집중도가 높았다. 무엇보다 기본기와 팀 일체감이 더 끈끈해진 것을 느꼈다. 신인들은 프로선수로서 반드시 배워야 할 프로의식, 부상방지 트레이닝 등을 배워 한층 더 프로다워진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는 게 큰 성과”라고 말했다.

김우정 기자

전문가 "AI 챗봇 황당한 답변, 상당 부분 사용자 영향 때문"

챗GPT·빙 챗봇 등 의도 왜곡 가능
대화 길수록 답변에 큰 영향
"허위 주장 만들 수 있어" 경고

"인터넷 문장 되풀이 안 해…
패턴 조합 문장 창조" 반론도

〈Q〉"매일신문 권성훈 기자는 어떤 평가를 받는가요?"

챗GPT는 어떤 기자에게나 할 수 있는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 〈A〉"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꾸준히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주제에 대해 꾸준히 보도를 하고 계시며, 꾸준히 독자들의 관심을 받고 계십니다."

본인이 질문을 하고도, 답변에 부끄럽기만 하다. 전 세계가 챗GPT 열풍 속에 빠져들고 있지만, 아직은 믿고 신뢰할 만한 정보를 주는 지에 대해서는 고개를 젖게 된다. 27일 한 일간지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체포동의안 발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챗GPT는 "범죄 행위를 저지른 국회의원도 일반시민과 마찬가지로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라고 헌법에 입각한 답변을 했다.

오픈AI의 '챗GPT', 마이크로소프트(MS)의 빙 챗봇, 구글의 '바드' 등 인공지능(AI) 챗봇들이 하나마나한 뻔한 답변이나 때때로 잘못된 정보 또는 황당한 답변을 내놓는다. 26일(현지시간)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AI 과학자들은 AI 챗봇들의 기이한 답변이 상당 부분 사용자인 인간들의 영향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1970년대 말부터 신경망 AI를 연구해 현대 AI의 기초 구축에 기여한 테리 세즈노스키 샌디에이고 캘리포니아대(UC샌디에이고) 교수는 챗봇 이용자의 말과 의도가 챗봇에 왜곡돼 반영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과학저널 '뉴로 컴퓨테이션'에 이런 내용을 담은 논문을 발표한 그는 "챗봇은 사람들이 찾고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제공한다"고 말했다.

세즈노스키 교수는 "인간과 챗봇은 서로 '미러링'하고 있다. 장시간 대화를 하면 인간과 챗봇이 같은 생각으로 수렴하는 경향이 있다"고 "이는 인간이 이전에는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미지의 세계"라고 말했다.

실제 AI 챗봇은 인터넷에 있는 엄청난 양의 디지털 문서를 분석해 학습하는 거대 언어모델(LLM) 기술로 구동하는데, 문제는 LLM이 학습하는 문서에는 거짓되거나 편향되거나 유해한 내용이 포함되며, 업데이트 되지 않은 오래된 정보까지 담고 있다.

또 LLM은 챗봇이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 단어 단위로 추론해 다음 단어를 생성하는데, 이용자가 말한 문장까지 포함해 추론한다. 특히, 이용자는 대화가 길어질수록, 챗봇이 내놓는 답변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하지만 실제 챗봇들이 답변을 생성할 때, 인터넷에 있는 문장을 그대로 되풀이하는 것이 아니라 수십억 개의 패턴을 자체적으로 조합해 새로운 문장을 만들어 내기 때문에 이런 이상한 행동을 이용자의 영향으로만 설명할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미국 산타페 연구소의 AI 연구자인 멜러니 미첼 박사는 "연구자들이 동료 평가 같은 학문적 검증을 거친 과학적인 연구 결과나 사실인 내용만 학습시켜도 과학적으로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결과물, 허위 주장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경고했다.

권성훈 기자 cdrom@imaeil.com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충돌, 파괴된 차량들 한 남자가 27일 밤새도록 불이 붙은 후 점령된 웨스트 뱅크의 나블루스 근처 후와라 마을에서 파괴된 차량 앞을 걷고 있다. 26일 나블루스 인근의 하르 브라차 정착촌에 살고 있는 두 명의 이스라엘인이 "팔레스타인 테러 공격"으로 사망했다고 관계자들이 말했다. 연합뉴스

한국대사관 印영화 커버댄스
모디 총리·각료 영상 리트윗
골든글로브 수상 '나투나투' 소화

인도 주재 한국대사관 직원이 총출동해 제작한 인도영화 주제가 커버댄스 영상이 현지에서 큰 화제를 모으고 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26일(현지시간) 자신의 트위터에 주인도한국대사관이 전날 소셜미디어(SNS) 공식 계정에 올린 영상을 공유하며 "활기가 넘치고 사랑스러운 팀 노력"이라고 썼다.

키렌 리지주 법무부 장관, 아누라그 타루크 공보방송부 장관 등 인도 각료들도 잇따라 이 영상을 리트윗했다. 특히 타쿠르 장관은 한국어로 "멋지다"는 글까지 덧붙였다. 인도 유력 매체 힌두스탄타임스, NDTV 등도 비중 있게 관련 기사를 실었다. 이같은 관심 속에 한국대사관 트위터 계정의 이 영상 조회 수는 하루만에 350만회를 넘었다. 모디 총리가 공유한 영상의 조회수도 230만회를 돌파했다.

53초 분량의 이 영상은 지난해 개봉돼 인도에서 크게 흥행한 영화 'RRR'(라이즈 로어 리볼트)의 군무 장면을 커버한 것이다. 영화는 1920년대 영국 식민 통치에 저항하던 두 인물의 이야기를 담았으며 주제가 '나투 나투'(Naatu Naatu)가 흐르면서 진행된 춤 장면은 세계적으로 화제가 됐다. 중독성 있는 비트 속에 팔과 다리를 역동적으로 흔드는 춤이 인상적이다.

이 영상은 유튜브에서 조회수 1억2천만회를 기록했고, '나투 나투'는 지난달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주제가상을 받았다. 인도 영화가 골든글로브에서 주제가상을 수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나투 나투'는 다음 달 개최 예정인 아카데미상 시상식에서도 주제가상 후보에 오른 상태다. 영상에서는 장 대사가 대사관 정원에서 대사관 서포터즈인 인도 학생과 함께 신나게 춤을 추기 시작한다.

여러 외교관도 영화 주인공과 비슷한 옷차림을 하거나 인도 전통 의상을 차려입고 흥겹게 춤을 췄다. 태권도복을 입은 문화원 직원과 수강생도 등장했고 수십 명이 관저 정자를 배경으로 군무 장면도 연출했다. 영상 제작 아이디어는 최근 인도대사관에 부임한 임상우 공사가 냈고, 뮤지컬 동호회 활동 경력이 있는 이지민 국세관이 감독, 촬영, 편집을 도맡았다.

장 대사는 "인도 사람들로부터 K-팝, 한국 영화 등이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 우리도 인도 문화를 즐기고 좋아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며 "주재국 문화에 대한 존중이야말로 공공외교의 기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리오프닝' 中 성장률 2%P 오르면 한국도 0.3%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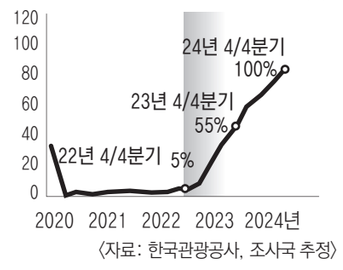
화학 IT 수출·관광객 증가 기대
中 성장 수혜 과거의 절반 수준

코로나19 팬데믹 통제 이후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등으로 중국의 성장률이 작년보다 2%포인트(p) 높아지면서 우리나라 성장률도 0.3%포인트 정도 끌어올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하지만 중국의 한국 중간재 수요 등이 줄어 중국 성장에 따른 수혜 정도가 과거 수준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됐다.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중국 리오프닝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성장률은 지난해 3.0%에서 리오프닝 등의 영향으로 올해 5.0%까지 높아질 전망이다. 중국 성장률 2%포인트 상승의 한국 성장률 제고 효과는 0.3%포인트 안팎으로 추정됐다. 한은은 앞서 지난 23일 중국의 올해 성장률 예상치를 기존 4.5%(지난해 11월)에서 5.0%로 올려 잡고, 이를 반영해 0.1%포인트를 우리나라 올해 성장률에 더했다.

중국 성장이 우리나라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주로 대(對)중국 재화 수출과 중국 관광객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윤용준 한은 아태경제팀장은 "중국 봉쇄정책 이후 크게 위축된 우리나라 대중 재화 수출이 리오프닝과 함께 하반기 이후 점차 늘어날 것"이라며 "우선 중국 내수 경기에 민감한 화학공업제품 등이 증가하고 시차를 두고 휴대전화·반도체 등 IT(정보기술) 제품 수출이 회복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중국인 한국 입국자수 전망(19년 대비)



〈자료: 한국관광공사, 조사국 추정〉

중국 관광객도 다음달 1일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유전자증폭(PCR) 검사 의무 해제 이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미국(1천106달러), 일본(675달러)을 크게 웃도는 중국 관광객 1인당 지출 규모(1천689달러)를 고려할 때 중국 관광객이 100만명이 증가하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0.08%포인트 높아진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다만 윤 팀장은 "중국의 중간재 자급률이 높아진데다, 중국 경제 회복이 소비 중심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있고, 글로벌 수요도 부진해 중국 리오프닝에 따른 국내 성장 제고 효과가 과거 평균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며 "과거의 경우 중국 성장률이 2%포인트 오르면 한국 성장률 제고 효과가 0.5~0.6%포인트로 추정됐지만, 이제 0.3%포인트 내외"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태국 소·닭싸움 등 동물 경기 도박장 영업 재개 허용

태국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폐쇄한 동물싸움장을 다시 열 수 있도록 했다. 27일 현지 매체 네이션에 따르면 내무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코로나19를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며 돈을 걸고 동물 싸움·경주를 하는 장소를 다시 열어도 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내무부가 영업 재개를 허용한다며 언급한 종목은 소·닭·물고기 싸움과 소 경주, 경마 등이다.

정부는 지역별로 동물 싸움·경주 종류와 개최 횟수를 제한하고, 지자체가 해당 장소 운영 허가를 발급해 관리하도록 했다. 미성년자는 출입과 베팅이 제한되며, 불교 관련 기념일 등에는 소싸움 등을 개최할 수 없다. 태국에서는 정부가 발행하는 복권과 경마 등 일부 동물 싸움 외에 도박은 불법이다. 코로나19 사태로 폐쇄되기 전까지 닭싸움과 소싸움 등은 큰 인기를 끌었다.

소싸움 한 판에 수억 원 규모의 판돈이 걸리는 등 도박 규모도 큰 것으로 전해졌으며, 허가된 장소 외에 수많은 무허가 경기장에서 도박이 성행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결혼정보
광고문의 : 251-1234

국내 전문 수림결혼정보 초혼 재혼
(초혼) 의사·교사등 대구경북·서울등(다수확보)
(재혼) 재력가, 공직, 안정직 다수확보
홈페이지 www.zzakk.com 지사/매니저모집
T. 010-4811-0690 보증보험 국가등록 대구2008-3호
대구 북구 칠곡중앙대로 99길45(관음동101호)

국내 국제 한국결혼상담 초혼 재혼
전문직(의사, 법조인, 공직)
국제허가 대구중구 2018-0001 국내.허 대구중구 2018-0002
010-3810-3003 대구 중구 태평로 273
010-8181-8024(옥소장 전문직 상담)

국제결혼중개업등록 제 대구-북구-국제-22-0001호
한국결혼정보연합회
국제 · 국내 · 초혼 · 재혼
베트남 · 캄보디아 전문,
그 외 중국 · 필리핀 등
웨딩클럽(대구 북구 등록업체)
무자본 영업으로 사업하실 소장님들을 모십니다
국제담당 010-2666-2424
국내담당 010-7724-0089

생활정보
광고문의 : 251-1234

훈기나는
조립식 전기온돌 판넬
건식 온수 온돌
바·닥·난·방
■누수가 생기는 곳, 당일시공·당일사용■
연료비 약 40% 절약, 품질은 X-L파이프 수명과 동일
우진산업 우진홈기나 www.woojinondol.com
40년 전통의 바닥난방 전문 생산공장 053)581-0111~2

파산 면책 /개인회생
신용불량 탈출!!
세계법무사 사무소
법무사 김대봉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90, 범어타워 1804호
010-6429-3814

중고피아노
매입·판매
(운반 · 조율)
고객님의 신뢰와 믿음으로
39년을 지켜온 세광피아노사.
항상 고객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세광피아노사
010-4802-0541
대구 중구 남산동2112-2(명덕역1번출구)

묘목판매
감, 대추, 자두, 살구, 복숭, 사과, 매실, 밤, 배, 호두, 무화과, 두릅, 엄나무, 왕구기자, 가죽, 남천, 왕벗, 연산홍, 회양목, 사철
달성군 다사읍 문양리 1037번지
송정원 010-4008-4823 010-7150-3429

진산철학관
사주, 작명, 궁합, 결혼, 부부운, 건강운, 사업운, 취직, 승진, 진학, 시험운, 이사, 매매운, 택일, 사성, 병명없이 고생하시는 분.
친절상담, 즉석선처, 한양대 생활역학 1기 졸업
장소 : 지하철 2호선 내당역 3번 출구/달서구 파도고개로 207 파도고개 방향 250m 우측(미용실 2층)
전화 : 654-7145, 010-8566-8497

13인승 대형개인택시
골프·의전 및 관광도~!!
가족 및 계모임, 단체는 13인승 솔라티 택시로!
010-5877-3336 / 010-3824-5775

병원·의원·약국 개원
컨설팅전문 임대/매매/양도양수
金興助 김흥조 상무이사
☎ 010-7317-4579

33년 전통을 이어온
청구도시락은 자연과 사람을 이어줍니다.
대표이사 권오섭
청구도시락 출장뷔페 사업부
(주)청구푸드시스템
053)763-1009/214-8000

가발은 역시 가발명장 셀모로
* 당일내)가발 티나거나 마음에 들지 않으면 100% 환불 *
[핀,본드 없이 편한 특허가발]
100% 인모 100%수작업
60만 ~ 120만
가발명장 1호 천 정 일
30년 연구한 가발! (국제기능대학 산업석사, 가발명장 증서)
셀모가발 010-6250-3899 (반월당 23번 출구앞)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 (주)혁신이앤씨
지열 보일러 태양열 온수기 태양광 발전소
불황 속 자연이 선물해 주는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연료비 절감"
안정적인 수익형 노후연금 『태양광발전소』
► 한국에너지공단 정부보조사업 참여기업
► 태양광 발전 : 상업용/공장/RPS사업
대표전화 1600-4751
혁신이앤씨 경북 경산시 원효로 40길 47-2
NAVER 혁신이앤씨 검색

감도높은 광고효과!
바로 매일신문 광고입니다
매일신문 www.imaeil.com
문의 053) 251-1234 080-711-2001

삼성제약 건강기능식품 '삼성 장쾌환'

장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식약처 기능성 인정

답답한 장을 편안하게 쑥~!
하루 1포로 굵고 시원한 황금빛 쾌변!

화장실 시원하게만 갔다오니
'아우~ 시원해' 소리가 절로!

늘 책상에 앉아 일하고
활동량이 부족해서 그런지
화장실 가서 큰일을 보는게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생활속에서 건강을 지키는게
쉽지않아 건강기능식품이
어떨지 먹어보니
규칙적인 배변습관에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올 때마다
너무 상쾌해요!

삼성제약 건강기능식품 '장쾌환'은 원활한 배변활동에 도움 줄 수 있다.

건강한 장 되찾고, 굵은 황금빛 쾌변! 시원하게!

쾌변만 힘들어져도 장 건강 적신호
장 내 배설물 배출시켜 건강한 장내 환경 유지

대변 활동이 원활하지 못할 때의 불쾌감은 겪어본 사람만 안다. 시원한 배변생활을 위해 삼성제약에서 출시한 건강기능식품 '장쾌환'은 기능성원료 알로에전잎을 주원료로 개발되어 식약처에서 배변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의 기능성을 인정받았다. 식약처에서 과학적인 검증을 통해 기능성 및 안전성을 인정받고 있는 건강기능식품은 외부섭취가 꼭 필요하지만 일상의 식생활로는 부족해지는 성분을 섭취할 수 있도록 개발되고 있다.

변을 부드럽게 하고 장 운동 돕는 원리
장내 수분함량 높여 장내 연동운동 촉진

삼성제약에서 선보이고 있는 건강기능식품 장쾌환은 원활한 배출을 위해 대변의 수분 함량을 높여주고 동시에 아래로 밀어내는 장의 운동을 도와 변이 부드럽고 배설도 편안해질 수 있다.
평소 장 기능이 약하거나 장의 연동운동이 부족한 분들이라면 삼성제약의 장 건강기능식품 '장쾌환'을 지금 신청시 30일간 무료로 섭취해볼 수 있다. (무료체험 신청문의 1600-3976)

신호없는 묵직한 아랫배,
하루 1포로 상쾌한 쾌변 도와!

1일 1회 1포 섭취를 통해 배변활동 원활의 기능성으로 규칙적인 배변습관을 지키는데 도움을 준다. 환 형태로 한 포씩 개별포장되어 장의 묵직한 불쾌감을 편안하게 도와줄 수 있다.

대변, 제때 배출해주십시오!
이런 분께 '장쾌환'을 권합니다

- **화장실에 오래** 앉아계셔야 하는 분
- 배변 후에도 **잔변감**이 느껴지는 분
- 아랫배가 묵직하고 **가스가 잘 차는** 분
- 노화로 인해 **장 기능이 저하**된 분
- 상쾌한 **쾌변**을 원하시는 분
- **규칙적인 배변**활동을 원하시는 분

무료로 30일간 드셔보세요!

장이 상쾌한 '장쾌환' 무료체험 신청 **1600-3976**

장 연동운동 활발해져 **변이 부드럽고 배변도 편안!**

식약처 기능성 인정 고시형 원료
알로에 전잎 아보레센스

장내 수분 함량을 높여 대변 부드럽게 배출

'알로에전잎' 식약처 기능성 인정 주원료, 장을 튼튼하게!

건강기능식품에서의 '알로에 전잎'은 알로에베라, 아보레센스, 사포나리아의 잎 중 비가식 부분을 제거한 후 건조하거나 분쇄, 농축하여 식용에 적합하도록 한 것을 말하며, '배변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의 기능성으로 식약처에서 인정하고 있다. 주원료 외에도 프로바이오틱스, 차전자피식이섬유, 이눌린, 다시마, 퉁퉁마디 분말, 사철쑥 등 10종의 부원료를 담아냈다.

삼성제약 건강기능식품, 93년 전통 기술력
안전하고 철처한 품질관리로 믿을 수 있어

장 건강기능식품 '장쾌환'을 선보이고 있는 삼성제약은 1929년 이래 국민건강을 수호의 역할을 해온 건강기능식품 전문 기업이다. 안전한 제품을 만들기위해 원료부터 차별화하고 타협없는 품질관리 시스템으로 고객의 삶의 질 향상 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건강기능식품 장쾌환
식약처 품목제조 허가

건강기능식품 사업부 SAMSUNG PHARM 삼성제약㈜ Since 1929

답답한 장을 상쾌하게 비우고 싶다면
무료로 먼저 드셔보고
직접 경험 후 결정하세요!

30일간 무료체험
구매 선착순 1,000분께 30일간
무료로 드셔볼 수 있는 체험기회 제공!

100% 환불보장
직접 드셔보고 불만족하셨다면
체험기간내에 전액 환불해 드립니다!

굵고 시원해지는 배변! 30일 무료체험 후 결정하세요!

무료체험 신청 **1600-3976**

2023년 2월 28일 화요일 每日新聞

4인 영화비 6만원…"차라리 집에서 본다"

지난해 평균 요금 1만285원
팬데믹 3년동안 4천원 올라
OTT 점유율 66.9% 급성장
개봉 영화 독점 공개 등 장점

23일 오후 2시 CGV대구점. 한 시민이 영화 티켓을 발권하고 있다. 배주현 기자

A(61) 씨는 지난 설 연휴 때 오랜만에 집을 찾아온 자녀와 '영화관 데이트'를 즐긴다는 생각에 설레었다. 하지만 부랴부랴 인터넷 예약에 나섰다가 깜짝 놀랐다. 4명 요금이 무려 6만원으로 안내되면서다. 결국 그는 극장 대신 집에서 편하게 VOD로 즐기기로 했다.

물가 고공행진에 가계의 주머니 사정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가운데 지난해 평균 영화 관람료가 1만원을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가 최근 발표한 '2022년 한국 영화산업 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영화관 평균 관람 요금은 사상 처음으로 1만원을 넘은 1만285원을 기록했다. 이는 2021년 9천656원 대비 6.5% 증가한 수치다.

영화 관람료 인상엔 코로나19 팬데믹이 큰 영향을 끼쳤다. 팬데믹 이후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멀티플렉스 3사는 영업 손실을 이유로 관람료를 2020~2022년 3년 내리 1천원씩 잇따라 올렸기 때문이다. 올해 기준 영화관 일반관 주중·주말 관람료는 각각 1만 4천원, 1만5천원으로 팬데믹 전과 비교하면 최대 4천원이 올랐다.

일반관 관람료의 1.5~3배를 훌쩍 뛰어넘는 4D, IMAX, ScreenX, Dolby Cinema 등 특수상영관 관람료도 만만찮다.

주부 B(48) 씨는 "아바타2를 4D로 보면 정말 멋지다고 해서 아이들과 함께 보러가고 싶었는데 1인당 2만5천원이라는 금액이 너무 부담됐다. 당시 명절까지 겹치면서 제수용품 구입, 부모님 용돈 등에 돈을 엄청 썼던 터라 결국 영화 관람을 포기했다"며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됐으니 영화관을 찾는 시민들도 많아지는 만큼 영화 관람료 인하가 필요하다"고 했다.

비싼 관람료 부담에 시민 상당수는 영화관 대신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OTT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

영진위에 따르면 팬더믹 영향으로 2021년부터 전 세계 영화 영상 산업 시장에서 OTT가 점유율 66.9%을 보이는 등 급성장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는 OTT 플랫폼에서 극장 개봉영화를 독점 공개하면서 홀드백(한 편의 영화가 극장에서 상영된 후, 비디오로 출시되기까지 필요한 기간)이 깨진 현상도 발생했다. 쿠팡플레이의 경우 개봉한 지 한 달밖에 안 된 시점에서 극장 개봉작인 '한산: 용의 출현'과 '비상선언'을 독점 공개하기도 했다.

직장인 C(29) 씨는 "코로나19에 한동안 영화관을 잘 가지 못해 OTT를 대거 가입했다. 여러 OTT 서비스가 생기면서 플랫폼마다 독점 공개하는 작품들이 있어 굳이 비싼 돈을 주고 영화관을 갈 필요를 못 느끼겠다"며 "영화관처럼 큰 스크린은 없지만 빔 프로젝터 등을 활용해 집에서도 충분히 영화관 분위기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배주현 기자 pearzoo@imaeil.com

청년 음악가 7인 산뜻한 봄 선율

내달 4일 비원뮤직홀서
앙상블 노이슈타트 공연

서구 비원뮤직홀이 다음 달 4일 오후 5시 로맨틱 시리즈 '노이슈타트와 함께하는 해설이 있는 봄'을 공연한다.

독일어로 '새로운 도시'라는 뜻을 가진 '앙상블 노이슈타트'는 독특한 음악과 장르의 제약없이 새로운 도전을 시도하겠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2019년 창단해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7인 청년 예술가 단체로, 피아노 콰르텟, 플루트, 클라리넷, 그리고 타악기로 구성돼 있다.

이상준 앙상블 노이슈타트 대표는 타악, 작곡, 편곡을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바이올리니스트 이진하, 비올리스트 정성욱, 첼리스트 이희수, 플루티스트 양재관, 클라리네티스트 황요한, 그리고 피아니스트 추원주가 함께 활동하고 있다. 이번 공연에는 소프라노 허은정과 바리톤 정제학도 게스트로 함께 무대에 오를 예정이다.

이들은 '봄'에 맞춰 전체적으로 산뜻한 느낌의 프로그램들로 준비했다. 특히 '봄바람'을 표현하는 '피가로의 결혼 서곡'과 가수 장범준의 '벚꽃엔딩'을 기악화한 무대 등이 준비돼 있다.

또 김효근의 '첫사랑'과 'F.Lehar'의 'Lippen Schweigen'(입술은 침묵하고) 등을 통해 초봄의 설렘을 사랑으로 표현한 무대도 선보인다.

관람은 전석 무료(사전 예매). 8세 이상 관람 가능. 053-663-3681.

심헌재 기자 gjswo0302@imaeil.com

있는 듯 없는 듯한 이끼 식물 디자인 작품 전시

만물이 깨어나는 경칩을 앞두고 식물을 주제로 한 전시가 3월 2일까지 제이원갤러리(대구 중구 봉산문화길 60)에서 열린다.

갤러리 열음이 주최한 전시 '해답(海踏) -부제: 너머의 세상'에는 박정원 갤러리 열음 대표와 김수강, 홍세라, 이시령 작가가 참여한다.

전시에서는 다양한 식물 디자인 작품 20여 개가 전시된다. 이끼를 재료로 한 다양한 테라리움(유리 안에 식물을 재배하는 것) 작품을 비롯해 식물을 이용한 공간 연출 디자인을 만나볼 수 있다.

또한 전시 기간 중 관람 인증샷을 찍어 지정된 해시태그와 함께 인스타그램에 게시하면, 추첨을 통해 테라리움을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원데이클래스 이용권을 증정한다.

박정원 대표는 "우리 주변에 늘 존재하고있어 익숙하지만, 잘 인식하지 못하는 이끼의 종류와 생육 환경에 대해 알 수 있는 전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053- 201-1661.

이연정 기자 lyj@imaeil.com

매일춘추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

배원

추운 겨우내 무채색이 일색이던 천지는 따스해진 볕 아래 알록달록한 봄을 준비하는 듯하다. 여름의 뜨거운 태양과 모진 비바람을 견뎌내고 열매 맺기에 분주한 가을을 지나, 낯설고 멀게만 느껴지던 매서운 추위의 끝자락. 2월의 마지막 주는 모두가 한마음으로 따스한 봄을 기다린다.

한결 부드러워진 바람과 따스하게 내리쬐는 한 줄기 햇살이 겨우내 움츠러든 마음을 환히 비춰주는 것 같다.

음악으로 아내를 향한 사랑을 열렬히 표현한 슈만이 쓴 첫 번째 교향곡은 '봄'이다.

오랫동안 고민하고 애쓴 클라라와의 사랑을 결혼이란 결실로 꽃 피운 다음 해에 완성된 이 작품은 슈만이 맞이한 인생의 봄날을 노래한다. 트럼펫과 호른의 팡파레 소리가 봄의 시작을 알린다. 겨우내 꽁꽁 얼어붙은 땅과 초목의 뿌리가 서서히 풀리며 흔들리는 땅의 진동과 태동을 표현하는 듯하다. 봄의 강한 생명력과 힘찬 에너지가 전해진다. 깊은 겨울잠을 깨우는 듯한 현악기의 일렁거림과 그 위에 얹어지는 플룻, 클라리넷, 오보에 소리는 부푼 기대감으로 다가오는 봄을 더욱 재촉한다. 이어 빠른 템포로 이어지는 현악기의 희망찬 선율은 마침내 싱그러움을 가득 안고 봄을 향해 내딛는 행복한 발걸음 같다.

우리 눈앞에 펼쳐질 봄은 따듯한 햇볕 아래 산뜻한 향기를 내고 형형색색의 아름다움을 뽐낼 테지만, 그것은 추운 땅 속에서 하루하루 인고의 시간을 견디며 일궈낸 결실의 축복일 것이다.

흔히 봄은 모든 것을 새로이 맞이하는 시작이라고들 한다. 하지만 자연의 순리를 따라 가보니 봄은 여름과 가을 그리고 겨울을 지나며 모아둔 강렬한 에너지로 초록의 화산을 마음껏 발산하는 결실의 계절이다. 슈만이 교향곡 '봄'의 마지막 악장을 끝낼 때까지 가진 벅참 역시 여름 가을 겨울을 견딘 후에 오는 환희와 설렘이다.

혹독한 삶의 시련과 아픔, 고난 속에 방랑자 같은 삶을 살아온 슈베르트도 짧은 생이지만 늘 따뜻한 봄을 기다리며 살아갔으리라 생각한다. 평생 가난했던 시간 안에서도 늘 봄을 기다리며 봄의 희망을 노래하는 수많은 아름다운 선율들을 써갔다. 그 서정적이고 아름다운 노래들은 오늘날 우리의 봄과 늘 함께하며 봄의 낭만과 찬란함을 느끼게 한다.

흔히 사계절은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불리지만 나는 힘찬 에너지를 가진 봄을 계절의 절정에 두고 싶다. 생기, 환희, 향기, 활기, 기대, 봄을 떠올리는 모든 것들이 삶 속으로 들어오기를 바란 슈만의 봄날과 같이, 우리에게도 곧 온 세상이 화사하게 물드는 봄이 다가온다.

첼리스트

법인부동산

광고문의 및 접수 T.053)656-4448 / F.053)656-1118

법인부동산

수 성 구

최선부동산(주) (우)병선,수성1741-0070/27260-2017-00216

장원·아너스 가든1,2,3차 경남을지명문
범어청구하이츠, 효성백년가약궁
라온2차, 범어센트레빌, 빌리브범어
쉐르빌,아크로타워 053)741-0070

동 구

동행부동산(주) (허)종욱,동구744-6767/27140-2022-00073

※카페.식당부지※
수성구, 팔공산, 가창, 12억, 35억
상담환영 053)751-2800

月2300만상가빌딩
25억원 대지332㎡,건1100㎡ (업체 양도 양수)
실투자10억인수 전속중개753-3600

하양읍 교리 1590
당50만,계획관리,지식산업도로구간
대구에서 30분거리,경관수려함
전원주택·카페적합010-9387-0096

달 서 구

KT부동산중개(주) (허)은,달서588-0097/27290-2018-00149

★대구최대부동산★
공장전문 최우수 부동산 공장 임대, 매매
최다물건보유,전화주세요 588-0097

★칠곡 동명 임야 매매
당15만 110,000㎡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010-9973-0097

★팔공산풀빌라 단지매매
대231㎡~340㎡, 건100㎡
가구가전 침구류 풀셋팅, 수익형 관
광객숙소,성숙기月1천만,평수기月
300만 수익 예상, 사업자대출80%
매매가 4억5천만 010-9973-0097

성서3차 공장매매
대1761㎡, 건1322㎡, 고8M
크2대, 동력200kw, 당650만
010-9973-0097

★성서지분형공장
부지매매 대2446㎡ 당510만
010-9973-0097

침산동 신축공장 매매
공급면적358㎡, 전용면적296㎡
건축면적231㎡, 매매가8억7천
고9M,모든업종가능, 도소매유통등
010-9973-0097

서 구

대동부동산 (안)태한,서구564-8200/27170-2622-00049

스타벅스 月2000만, 건380
최고상권,대로코너
35억인수(초역세권)

5층빌딩 대585,건1740대로접
몽땅39억(당2,200만)
급매(땅값도 안됨) 010-2509-9996

대지부동산 (임)유현,서구561-6561/27170-2016-00067

커피&식당 백안동 대로변
7934㎡(2400)33억
053)561-6561

모 텔,10억인수(융)대680㎡
배관까지올리모델링매출6천이상

카모텔 10억인수, (융)대1007㎡,룸19실
시설 및 매출양호 053)561-6561

호 텔26억인수,융,대10248㎡
룸50,신축수준,매출년13억이상

호텔 23억인수, 융,대1150㎡, 준신축
시설최상, 매출1억 053)561-6561

모 텔,12억인수(융),대710㎡
매출5500이상,상가有 561-6561

영 덕 콘도매매,대1800㎡,객실
36,커피,식당有,년매출15
억이상, 매가95억 053)561-6561

온누리부동산 (양)현석,서구오이길-공사공개/27170-2020-00012

달구벌대로 더블역세권 대1,770㎡
305억 용자無,공실無,전체 프랜
차이즈 건물(병원, 웨딩
건축강추)전속중개 010-4501-3935

대기업 물류창고
대3,637㎡ (1100″) 년6.3%
당380만원
월임대료2000만원010-9760-5069

※3층 상가주택
7억8천인수 月300만 20M
대228㎡(69) 053)571-0455

달구벌대로체인본점
月550만 142㎡(43) 역세권
몽땅17억 053)572-0410

특급프랜차이즈카페
달구벌 대로초역세권,수익투자
한방에1777㎡(분할可)
당5800만,전속중개 010-8896-4599

연수익5.3%메디컬 빌딩
102억 月4,500만, 융자無
약국 입점, 대587㎡
건3,632㎡ 010-8896-4599

공실無고수익률빵빵
8층상가 일반상업지역
대660㎡,넘치는상권
60억/2500만 010-8896-4599

개발호재초대단지앞
특급상가 일반상업,대288㎡
초대박 투자용
몽땅13억9천 010-8896-4599

달구벌대로 상가 부지
초급매 1653㎡(500)
3300㎡(1000)초역세권
시청호재,투자굿 010-3851-5504

(주)삼성부동산 (조정현,서구568-8989) 가-13-1978

상가(신축적합) 38억
대576㎡,역세권,재래시장/2층상가
주택, 8억, 대186.5㎡,식당 성업중
모텔22억, 대993㎡ 010-8029-8118

月540, 몽땅7억6천
대265㎡, 건453㎡, 룸14개
4억인수, 대학교정문앞, 공실無
010-6547-4488

月1800지하철출구접
대지809㎡, 건2,099㎡
25억 인수, 동구 최요지
통상가 010-6547-4488

月1억2천, 전층약국
병원 대667㎡, 건3734㎡, 99억
인수, 전층 약국병원입주
7만세대 최요지 010-6547-4488

범어사거리! 빌딩
대1,650㎡, 건6,877㎡, 당5,000만
100억인수,약국+병원빌딩최고자리
010-6547-4488

범어사거리! 빌딩
대810㎡, 건2,900㎡, 당6,000만
약국+병원할 빌딩, 범어사거리
최요지 010-6547-4488

月4700전층병원빌딩
50억 인수, 대925㎡, 건3800㎡
전층 병원 입주
대로접 최요지 010-6547-4488

현풍테크노 5층대형상가 급매
대2737.7㎡, 건1423.61㎡, 보3억, 月
3000만出(대형마트)인수가5억, 년수
익률24%, 현장답사! 053)568-8003

31면 계속

법인등록 구궁태극성명 명장
● 대법원 등기, 문화제청 허가
● 구궁·태극성명협회 중앙회장
● 이름덕에 산다 태극성명 12진법 저자
● 아호, 상호, 기업명, 신생아 작명, 개명
● 불행을 행운으로 바꾸어 주는 특수비법으로 개명하여 줌(상표 특허출원)
● 노벨문학상 후보 추천
● "목도 찬가" 작사 손기복, 등등등대구역 작사
대구 수성구 상동 152-60 극락사
손기복 시인 053-767-1440 010-3516-6730

제사를 모셔 드립니다
"제사는 조상님께서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여주신 은혜의 보답이며 효의 근본입니다."
신행상담 / 49제 / 천도제 / 구병시식
구지뽕열매, 사과대추 출하 전 주문받습니다.
대구앞산 성불사 : 053-626-7969

좋은 병원을 선택하는 현명한 방법!

수준높은 의료서비스 + 체계화된 진료시스템 = 보건복지부 지정 전문병원

기간 : 2021. 01. 01. - 2023. 12. 31.

제4기 1차년도 보건복지부 지정 전문병원

보건복지부지정 전문병원은 특정 진료과목에 대해 난이도 높은 치료와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을 보건복지부의 엄격한 심의를 통해 전문병원으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 전문병원 지정현황 |

지정분야	기관명칭	주소·전화번호
화상 4회 연속 대구·경북 화상 전문병원 지정	푸른병원 화상외과, 내과, 정형외과, 유방·갑상선외과, 마취과	대구 중구 태평로 102 ☎053)471-2800
산부인과 보건복지부 3주기 의료기관 인증 획득 산부인과 전문병원 4회 연속 지정	효성병원 심장내과, 신경과, 소화기내과, 갑상선유방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가정의학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대구 수성구 수성로194 (중동) ☎053)212-7777
척추 보건복지부 척추 전문병원 4회 연속 지정	우리들병원 신경외과,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일반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영상의학과, 내과	대구 중구 국채보상로 648 ☎ 053)212-3000
척추 보건복지부 3주기 의료기관 인증 획득	참조은병원 신경외과, 정형외과, 척추관절통증센터, 마취통증의학과, 내과, 영상의학과	대구 달서구 월배로 404 ☎ 053)630-8000

2023년 2월 28일 화요일 每日新聞

민족의 자랑스러운 역사, 감추고 왜곡하는 국내 반도사학

심백강의 **한국고대사** 동양고전으로 다시 찾는 발해조선의 역사(4)

중국이나 일본의 학자들이야 '산해경'에 나오는 조선의 이야기가 자기들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는 남의 나라 역사 이야기라서 이를 왜곡 폄하하는 데 앞장섰다고 치자. 자기 민족, 자기 나라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은폐 말살하려고 안달이 난 한국의 반도사학은 저들의 행태를 보면 과연 한국인이 맞는지 의아스럽다. 한국의 반도사학이 '산해경'에 나오는 발해조선을 어떻게 은폐 말살했는지 반도사학의 선두에 서 있는 노태돈, 송호정 두 교수의 경우를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

노태돈 교수 저서 '단군과 고조선사'
산해경의 내용 한마디도 인용 않아
발해조선의 역사 감추려는 듯 보여

송호정 교수 '산해경 편찬 곽박' 단정
저자 백익 증거 있지만 日 주장 따라
'북해' → '북부' 의도적인 조작 의심도

위대한 발해조선 초라하게 만들어
中·日보다 한 술 더 뜨는 한국 학자
역사 바로 서려면 반도사학 청산을

노태돈 교수의 단군과 고조선사.

송호정 교수의 한국고대사속의 고조선사.

◆노태돈의 '산해경' 고조선 기사 은폐

노태돈은 서울대 국사학과 교수로서 한국 반도사학의 대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는 2,000년도에 '단군과 고조선사'라는 책을 펴냈다. 이 책 제2부의 "고조선 초기 중심지"라는 제목으로 쓴 글에서 노태돈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이 문제를 생각함에 있어선, 먼저 언제부터 조선이 역사상에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는가를 문헌자료를 통해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조선에 대한 기록으로선 '산해경'의 해내북경과 해내경에서 각각 조선에 관계된 간략한 언급이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산해경'은 익히 알려진 바처럼 그 내용이 어느 한 시기에 쓰인 것이 아니며 춘추 말기에서부터 전한 대에 걸치는 여러 시기에 여러 곳에서 작성된 기사들을 모은 것이다. 그런 만큼 이 책에서 보이는 조선에 대한 언급이 언제 때의 그것인지 단정키 어렵다." 노태돈의 주장은 '산해경'의 조선에 관한 언급이 간략하다는 것과 그것이 어느 시기의 것인지 단정하기 어렵다는 논리로 요약된다.

노태돈은 조선이 역사상에 나타나게 된 문헌자료를 검토하면서 '산해경'을 맨 먼저 언급했다. 이는 노태돈도 조선에 관한 최초의 자료가 '산해경'이라는 사실은 인정했음을 말해준다. 다만, 노태돈은 '산해경'에서 조선에 대해 언급한 내용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인용하지 않았다. '산해경'의 내용이 장황하다면 모르지만, 그도 말한 것처럼 몇 글자 안 되는 간단한 것인데 노태돈은 왜 이를 외면하고 인용하지 않았을까. '산해경'의 고조선에 관한 언급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발해의 모퉁이에 조선이란 나라가 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조선이 열수의 동쪽, 바다의 북쪽, 산의 남쪽에 있다는 것이다.

노태돈의 저서 '단군과 고조선사'는 2부 "고조선사와 단군신화"에서 고조선의 서쪽에 있던 열수列水를 대동강, 한과 고조선의 경계 패수를 청천강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한 대의 요동군과 낙랑군의 경계가 청천강이고 연과 후기고조선과의 경계도 청천강이었다"고 주장했다. '산해경'의 "발해의 모퉁이에 조선이 있다"는 기록은 노태돈의 대동강 조선 주장과는 괴리가 너무 심하다. 만일 '산해경'의 내용을 인용하면 노태돈의 주장은 설 자리를 잃게 된다. 그래서 노태돈은 '산해경'에서 말한 내용을 의도적으로 인용하지 않았다고 본다. 연나라 장수 진개秦開가 고조선의 서쪽을 공격하여 2천 리 땅을 빼앗아 갔다는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위략'의 장문은 인용하면서 발해조선의 위치와 강역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 '산해경'의 간단한 내용은 인용하지 않은 노태돈의 행위는 발해조선의 의도적인 은폐에 해당한다. 이는 우리 민족의 빛나는 역사는 감추고 부끄러운 역사는 부각시키려는 반도사관의 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송호정의 '산해경' 고조선 기사 조작

'산해경'의 발해조선을 말살하는데 중, 일 학자보다 한 술 더 뜬 게 송호정이다. 현재 한국교원대학교 역사교육과 교수로 재직 중인 송호정은 석, 박사 모두 고조선을 연구한 논문으로 서울대에서 학위를 받았다. 송호정은 2003년 '한국고대사속의 고조선사'라는 책을 펴냈는데 이 책 1장에 "'산해경'에 기록된 조선"이란 제목으로 쓴 글이 실려 있다. '산해경'의 저자와 내용에 대한 그의 관점을 피력했는데 이를 요약하여 인용하면 아래와 같다.

"'산해경'은 곽박郭璞(276~324)이 춘추시대 말기부터 전한시대에 걸쳐 여러 곳에서 작성된 기사들을 편집한 책이다. 때문에 '산해경' 안의 경마다 차이가 있어 조선에 대한 기록 또한 언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해내북경에는 '조선이 열양列陽의 동쪽, 바다의 북쪽, 산의 남쪽에 있었고 열양은 연에 속했다.'라고 씌어 있다. 여기서 열양은 기원전 3세기 무렵 연나라의 동쪽 지방, 곧 연나라가 지배하던 조선의 서쪽 영역을 말한다고 한다.… 또 해내북경에서 말한 '바다의 북쪽, 산의 남쪽(海北山南)'의… 기록은 특정 바다와 특정 지역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막연한 방향만을 제시하고 있어 고조선의 위치를 말해주는 근거는 되지 못한다. 또한 해내경에서 '동해의 안쪽, 북해의 모퉁이(東海之內 北海之隅)'라고 한 것은 넓게 보아 조선이 동해의 범위 안, 즉 동해에 면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동해 북부北部의 한쪽 가에 있다는 뜻으로도 볼 수 있다."송호정의 '산해경'에 대한 설명은 세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산해경'은 곽박이 편집한 책이라고 못 박아서 말했다.

곽박은 동진시대 사람으로 '산해경'의 저자가 아니라 주석서를 펴낸 인물이다. 송호정은 무슨 근거로 이런 주장을 하였는가. 일본의 오카모토 타다시(岡本正)가 1960년 '산해경'을 연구하여 '중국고대사연구'에서 발표한 내용을 그 근거로 제시했다. '산해경'의 저자와 관련해서 서한의 유흠, 동한의 왕충과 같은 쟁쟁한 학자들이 4,000년 전 백익의 저술이라 말하고 중국 역대의 역사학자들이 춘추전국시대의 저술이라고 주장하는 등 다양한 견해가 있음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현대 일본학자의 주장에 근거하여 '산해경'을 곽박의 편찬으로 단정한 것은 '산해경'의 사료적 가치를 저평가함으로써 '산해경'의 발해조선 기록을 말살하려는 의도가 역력하다. 둘째 송호정은 "바다의 북쪽, 산의 남쪽(海北山南)에 있다."고 해내북경에서 말한 조선은 막연한 방향만을 제시하고 있어 고조선의 위치를 알 수 없다고 하였다. 해내북경에서 어느 바다를 특정하지 않고 말한 바다는 모두 발해를 가리킨다. 또한 "조선은 발해의 모퉁이에 있다"고 해내경에서 말했다. 그리고 고조선을 말할 때 등장하는 상징적인 산은 갈석산이다. 그러므로 조선의 위치를 설명한 해내북경의 "해북산남"은 발해의 북쪽, 갈석산 남쪽을 가리킨다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런데 송호정이 막연한 방향만을 제시하고 있어 고조선의 위치를 알 수 없다며 얼버무린 것은 역사지식의 천박함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다.

셋째 "해내경에서 '동해의 안쪽, 북해의 모퉁이(東海之內 北海之隅)'라고 말한 조선은 넓게 보아 조선이 동해의 범위 안,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동해북부의 한쪽 가에 있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는 역사의 무지를 넘어 역사의 조작에 해당한다. 해내경에서 분명히 "동해의 안쪽, 북해의 모퉁이에 조선이 있다."고 했으니 이를 그대로 해석하면 발해의 모퉁이 즉 발해만에 고조선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된다. 고조선이 대동강 유역에 있었다는 반도사관에 사로잡혀 있는 송호정은 끝내 '산해경' 원문 "동해의 안쪽, 북해의 모퉁이(東海之內 北海之隅)"를 "동해의 안쪽, 북부의 모퉁이(東海之內 北部之隅)"라고 조작하기에 이른다. 즉 북해의 바다 해海자를 없애고 거기에 부部 자를 집어넣어 북해를 북부라고 바꾼다. 그리고 조선이 "동해의 범위 안, 동해 북부의 한쪽 가에 있다는 뜻"이라고 해석한 것이다.

◆나라가 바로 서려면 반도사학부터 청산해야

다른 나라 사람들은 자기 나라를 위대하게 만들고자 역사를 조작한다. 한국의 반도사학은 위대한 발해조선을 초라한 대동강 조선으로 만들려고 글자까지 조작해가며 날뛴다. '산해경'에 말한 발해조선이 그동안 백일하에 드러나지 못하고 베일에 가려져 있었던 것은 이를 은폐하고 조작한 반도사학이 원흉이다. 나라가 바로 서려면 역사가 바로 서야 하고 역사가 바로 서려면 중, 일 학자보다 한 술 더 뜨는 한국의 반도사학부터 청산해야 한다.

역사학박사·민족문화연구원장

“한국 선진 의료기술 키르기스스탄에 전파되길 희망”

지난해 자국민들에게 나눔 의료봉사를 펼쳐준 계명대를 방문해 감사 인사를 직접 전한 키르기스스탄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주한대사. 계명대 제공

국회의장·주한대사 등 33명 계명대·동산의료원 찾아 감사 신일희 총장 “의료봉사 지속”

샤키예프 누를란베크 키르기스스탄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주한 키르기스스탄 대사 등 33명이 지난 22일 계명대를 찾았다.

이들이 대거 계명대를 찾은 것은 감사 인사를 전하기 위해서였다. 계명대와 동산의료원이 지난해 창립 125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기획한 ‘2022 KMU DSMC-HE K. Sadykov 프로젝트’ 덕분이다.

계명대와 동산의료원은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키르기스스탄 환자, 보호자, 의사 등 19명을 초청해 수술 등 나눔 의료봉사를 실천한 바 있던 터다. 환자 9명이 흉부외과, 산부인과, 성형외과 등에서 K-의술의 혜택을 입은 것이다.

수술·입원비를 비롯한 왕복 항공료, 체류비 등 각종 비용은 계명대 교직원들의 기부금으로 조성된 ‘(사)계명1%사랑나누기’와 ‘동산의료선교복지회’의 기금으로 충당했다.

이날 계명대를 찾은 키르기스스탄 국회의장과 국회의원들은 자국민을 대표해 직접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들은 계명대에서 간담회를 갖는 한편 동산의료원을 방문해 의료시설들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신일희 계명대 총장은 “계명대에 폴란드 대통령 등 국가 행정부 수반이 방문해 주신 적은 있으나 이렇게 외국 입법부 수반이 오신 적은 처음이라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한국과 키르기스스탄의 외교 수립은 31년 정도이지만 훨씬 이전부터 실크로드를 통해 문화 교류를 해왔기에 친숙한 국가다. 나눔 의료봉사도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샤키예프 누를란베크 키르기스스탄 국회의장은 “계명대 동산의료원의 최첨단 장비와 시스템, 우수한 의료진들이 우리 국민들을 위해 인술을 펼쳐주신 것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며 “한국의 선진 의료기술이 키르기스스탄에 전파되길 희망하며 계명대와 교류도 지속되길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한편 계명대는 2013년 키르기스스탄 국립대학교와 학술 교류를 시작으로 총 5차례의 국외봉사단을 파견해 교육시설 개선과 교육봉사를 해오고 있다.

김태진 기자 novel@imaeil.com

라이온스대구장학회 40명에 장학금 수여

국제라이온스협회 대구지구 산하 재단법인 라이온스대구장학회(이사장 연규주)는 25일 라이온스회관에서 어려운 형편에도 학업에 성실한 기존 장학생 25명과 올해 고등학교와 대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15명을 포함한 총 40명의 장학생을 선발, 1인당 200만원의 장학금과 학습기자재 지원비 900만원을 전달하는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다.

화성산업 ‘사랑의 집수리’ 봉사활동

화성산업 임직원으로 구성된 화성자원봉사단은 최근 대구 서구 취약계층을 찾아 도배, 장판 등 사랑의 집수리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대구가톨릭대 ‘미래여성경제인 육성 상호협력’ 협약

대구가톨릭대학교(총장 성한기)는 최근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북지회·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경북센터(센터장 김명량)와 ‘미래여성경제인 육성 및 발전을 위한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도덕성 회복 인성교육으로 유림문화 계승 노력”

경북 성균관유도회 정기총회

성균관유도회 경상북도본부는 27일 안동향교회관에서 ‘2023년도 정기총회 및 도덕성 회복을 위한 인성교육’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업 경북도본부 회장을 비롯해 경북 시·군 회장 및 회원, 경북청년유도회와 시군 청년유도회, 여성유도회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또, 정상영 경북향교재단 이사장과 최연갑 성균관유도회 총본부 회장, 김숙동 안동향교 전교 등 내빈들이 축하했다.

총회에 앞서 유림문화 창달과 보전에 노력해 온 공로로 황보몽웅 경북도본부 부회장이 경북도지사 표창을 받고, 김동섭 유도회 안동시지회장이 성균관장상, 안동여성청년유도회 박후남 씨가 안동시장상 등을 수상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김시태, 김영금, 류명하, 황보몽웅 씨 등 회원들이 신임 부회장으로 선임됐으며, 2022년도 사업실적과 세입·세출 결산, 2023년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 건이 의결됐다.

지난 한 해 동안 경북도본부는 도덕성 회복을 위한 인성교육, 유림 지도자 체험연수, 학술발표회, 전국한시백일장, 경전암송대회 등 전통 윤리와 유림문화 계승에 노력해 왔다.

이재업 성균관유도회 경북도본부 회장은 “지난 한 해 동안 경북지역 시군에서 도덕성 회복을 통해 인성이 살아있는 사회 만들기에 노력해 주신 회원들께 감사드린다”며 “유교문화가 살아야 각박하고 갈등하는 현대사회의 병폐를 치유할 수 있다는 신념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한편, 성균관유도회 경북도본부는 오는 3월 20일부터 23일까지 ‘2023년 유림지도자 체험연수’에 나선다. 경북지역 종손 및 유림, 여성유도회원 등 80여 명이 대만을 찾아 공자사당과 박물관 등 문화유적지를 둘러보고 공자와 맹자, 증자 종손들과도 만날 계획이다.

엄재진 기자 jinee@imaeil.com

‘똑똑똑! 문 두드리기’ 고독사 예방사업 체결

대구 봉덕3동-남구 중개사協 협약

대구 남구 봉덕3동 행정복지센터(동장 최임숙)는 지난 24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구 남구지회(지회장 윤성만)와 봉덕3동 사회적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똑똑똑! 문 두드리기 사업’(고독사 예방사업)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봉덕3동 행정복지센터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구 남구지회가 고독사 예방을 위한 우리 동네 촘촘한 인적 안전망 구축에 뜻을 모아 마련된 자리로 봉덕3동 소재 공인중개사무소 15개소가 참석한 가운데 협약서 및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서약서에 서명하고 지역사회 인적 안전망 구축에 합의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구 남구지회에서는 지역 내 주거취약계층 등 생활고가 우려되는 사회적 고립 가구 및 임대차계약 체결 시 고위험 가구 정보를 봉덕3동 맞춤형복지팀에 수시로 제공하고, 봉덕3동에서는 제공받은 정보를 토대로 심층 상담 및 조사를 통해 각종 복지 연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윤성만 대구 남구지회장은 “우리 공인중개사들은 도움이 필요한 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 봉덕3동과 함께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행복한 봉덕3동 만들기에 힘쓰겠다”며 복지위기가구 발굴 및 고독사 예방사업 MOU 체결 소감을 밝혔다.

봉덕3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이웃의 가장 가까이에서 지역사회 구석구석을 살피며 위기가구를 위해 힘쓰고 있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지속 확충하여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발굴하는 데 같이 노력하고 협력체계를 강화하며, 발굴된 위기가구에는 대상자 욕구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다 함께 행복한 봉덕3동을 만들어 갈 예정이다.

이채근 기자 mincho@imaeil.com

한국프레스플라워협회 정기총회·회원 연수 실시

(사)한국프레스플라워협회(이사장 김순자)는 25일 대구 계명문화대학교 보건관 세미나실에서 제25회 정기총회 및 회원 연수를 실시했다. 이날 양정인 고문의 ‘풀꽃아트 이야기가 되는 작품제작 교육과정’ 특강에 이어 송혜정 고문의 지도 아래 연수가 진행됐다.

국민행복운동 대구시협의회 회장 이취임식

(사)국민행복운동 대구시협의회는 25일 회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10주년 기념식 및 회장 이취임식을 가졌다. 박노경 회장이 이임하고 한선수 수석부회장이 신임 제4대 회장에 취임했다.

정상훈 동원트렌스 대표 울진군에 고향사랑기부금

㈜동원트렌스, ㈜진선KOREA 정상훈(사진 왼쪽) 대표는 27일 고향사랑기부금 500만원을 울진군에 기탁했다. 울진군 후포면 출신인 정 대표는 인천에서 물류·운송 사업을 하고 있다.

안동지역 농협 임직원 튀르키예 구호물품 전달

NH농협 안동시지부(지부장 배준호)를 비롯해 안동지역 농협 임직원들은 27일 튀르키예 지역 지진 피해 이재민을 위해 겨울 의류 및 방한용품, 위생용품 등 구호물품을 전달했다.

농협 청도군지부·청도군 선관위 공명선거 캠페인

농협 청도군지부(지부장 김진성)와 청도군 선거관리위원회는 24일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청도읍 전통시장에서 깨끗하고 투명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한 공명선거 캠페인을 펼쳤다.

신세계기획 성주군에 라면 35박스 기탁

신세계기획(대표 임종현)은 27일 성주군 내 취약계층을 위해 라면 35박스(100만원 상당)를 기탁했다. 신세계기획은 유통서비스 및 경호·경비 분야 전문업체로 성주생명문화축제&참외페스티벌 등에서 경호 일을 수행했다.

대구시 주민자치연합회 남구에 고향사랑기부금

대구시 주민자치연합회(회장 황구수)는 24일 남구 주민자치위원연합회(회장 김성진) 회장 이·취임식에서 남구에 고향사랑기부금을 전달하고, 남구의 발전을 응원했다.

최병일 재대구경북도민회장 의성군에 1억원 기부 약정

최병일 재대구경북도민회 회장(태경개발㈜ 회장)이 의성군에 1억원을 기부할 것을 약정했다.

의성군에 따르면 최 회장은 지난해 10월 대구 두류공원에서 열린 '2022년 의성군 우수 농특산품 대구시 직거래장터'에서 1억원 기부 의사를 밝혔고, 최근 의성군의 '함께모아 행복금고'를 통해 정식 기부 약정을 마쳤다.

최 회장은 의성 안계 출생으로 고향인 의성군 농특산품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노력과 더불어 재대구경북도민회장으로서 지난 2년간 대구경북 여러 지방자치단체 등에 10억원가량을 기부했다.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1억원 이상 개인 고액 기부자 모임인 아너소사이어티 178호 회원이고 지난해에는 26년 전 별세한 모친 황옥씨 이름으로 아너소사이어티 209호에 가입했다.

최 회장은 "형편이 어려웠던 어린 시절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고 자랐다"며 "이번 기부금은 의성군 여성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업 등에 뜻깊게 쓰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lily@imaeil.com

박소현 영남대 국악 전공 교수 몽골 '나이람달 훈장' 수훈

박소현 영남대 음악과 국악 전공 교수가 몽골 오흐나 후렐수흐 대통령이 수여하는 '나이람달 훈장'을 받았다. '나이람달 훈장'은 몽골에서 외국인에게 수여하는 최고의 친선 훈장이다.

영남대에서 국악과 민족음악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는 박 교수는 국내 몽골음악학을 대표하는 유일한 음악학자다. 현재도 (사)한국몽골학회 이사장을 맡아 한국과 몽골 양국의 학술 교류를 위해 힘쓰고 있다.

이번 훈장 수훈은 한국의 몽골학 연구 발전과 양국의 연구 네트워크 확대에 20여 년간 적극적으로 활동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2006년 최연소 몽골학 여성학자로 공훈을 인정받아 '몽골대제국 800주년 기념 명예훈장'을 받기도 했다.

김태진 기자 novel@imaeil.com

인물 수첩

강주현 대구공동모금회 사무처장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 신임 사무처장에 강주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경기북부사업본부장이 취임했다.

강 사무처장은 지난 2005년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입사해 법인모금팀장, 준법감시실장, 사회공헌본부장 등을 두루 거쳤다. 그는 3월 2일부터 본격적인 임기를 시작할 계획이다.

강주현 사무처장은 "대구의 나눔문화 활성화와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성현 기자 shine@imaeil.com

세계유산 3개 가진 안동시 '문화유산 평가' 대상

〈유네스코〉

道 첫 시행 사업비 2억원·상금 300만원
최우수상 영천·고령, 우수상 경주·영양

안동시가 올해 처음 시행한 '2022년 경북도 문화유산 분야 평가'에서 대상을 받았다. 안동시 제공

안동시가 올해 처음 시행한 2022년 경상북도 시·군 문화유산 분야 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대상 수상으로 사업비 2억원과 상금 300만원을 받았다.

'시·군 문화유산 분야 평가'는 경상북도가 문화유산 사업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우수사례를 공유해 문화유산의 미래가치 창출을 위해 지난해 실적을 대상으로 총 6개 분야 12개 지표에 대한 평가를 실시했다.

안동시는 지난 한 해 동안 '한국의 탈춤'에 포함된 '하회별신굿탈놀이'를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시켰고, '내방가사'를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기록유산으로 등재시켜 지역 문화유산의 국제적 위상을 높였다.

특히 '제18회 세계 역사도시회의' '세계유산축제' 등 국제 행사의 성공적 개최로 우리 문화유산의 가치를 세계에 널리 알리는 데 노력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안동시는 한국의 탈춤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로 하회마을·봉정사·도산서원과 병산서원 등 '세계유산'과 '세계기록유산'인 유교책판을 보유한 데 이어 '인류무형문화유산' 하회별신굿탈놀이까지 보유해 국내에서는 유일한 유네스코 3대 분야 세계유산을 모두 가진 도시가 됐다.

이번 평가에서 영천시와 고령군은 최우수상, 경주시와 영양군은 우수상에 선정됐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영천시는 은해사 문화재 관람료 무료화 시행과 영천 박물관 건립 추진으로 민·관이 협동해 문화유산 향유 기회를 확대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고령군은 올해 9월 등재가 결정되는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성과와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을 통한 지역 문화유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노력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경주시와 영양군도 문화유산을 활용한 다양한 시책 추진, 안정적인 문화재 보존·관리를 등으로 우수상에 선정됐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유네스코 3대 분야 세계유산을 모두 보유한 안동이 국내 최고의 문화유산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문화유산을 관광거점도시로 연계해 미래 먹거리 창출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엄재진 기자 jinee@imaeil.com

송현수 한국서협 이사장 당선 대구 출신으로 창립 후 최초

문정(文鼎) 송현수(60) 서예가가 회원 수 6천600명에 달하는 한국서예협회(이하 서협) 이사장에 당선됐다. 대구 출신이 서협 이사장을 맡은 것은 1989년 창립 이후 최초다.

지난 25일 서울시교육청 학생체육관에서 열린 서협 이사장 선거에서 송 이사장은 대의원 투표자 615명 중 323표(52.5%)를 얻어 선출됐다. 임기는 3년이며, 한 차례 연임 가능하다.

송 이사장은 매일서예문인화대전과 대한민국서예대전 심사위원, 서협 대구지회 제8·9대 지회장, 서협 부이사장과 이사를 역임한 바 있다.

그는 ▷협회 위상 재정립과 회원 자긍심 회복 ▷서예의 초·중등학교 공교육화 추진 ▷공연, 체험, 학술 등 다양한 서예문화 창출 ▷영상·미디어위원회 설립 등 온라인 소통 강화 ▷협회 공식 후원사 모집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송 이사장은 "대구는 해방 이전부터 지금까지 자타가 인정하는 전국 최강의 서예 저력을 갖고 있다. 많은 이들에게 그러한 저력을 보여줘야겠다는 생각으로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회원들의 소통과 화합을 이끌어내서, 실천하고자 했던 것들을 함께 해나갈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겠다"고 했다.

이연정 기자 lyj@imaeil.com

나주영 회장 체육기금 1억2천만원 제37대 포항시체육회장 취임식서

나주영(사진 왼쪽 세 번째) 제37대 포항시체육회 회장이 취임하면서 체육발전기금으로 1억여원을 쾌척했다.

포항시체육회는 지난 23일 UA컨벤션 헤라홀에서 포항체육인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7대 포항시체육회장으로 연임 당선된 나주영 회장의 취임식을 개최했다.

나주영 회장은 이날 취임식과 함께 포항시체육회에 1억2천만원의 기부금을 전달, 포항체육발전을 위한 모범을 보였다.

한편, 지난 2020년 제36대이자 초대 민선 회장에 당선된 나주영 회장은 지난해 12월 단독 추대되며 연임이 결정됐다.

신동우 기자 sdw@imaeil.com

대구정책연구원 6개 전략 랩 단장 남광현·김태운·김주석 최용준·이상인·오동욱 임명

대구정책연구원(원장 박양호)은 새 조직을 구성한 데 이어 각 분야 업무를 이끌 수장들을 임명, 본격적으로 시동을 건다.

연구원은 6개 전략 랩(LAB)의 단장들을 27일 자로 발령했다.

6개 전략 랩 수장들은 ▷미래50년랩 단장 남광현 ▷신산업랩 단장 김태운 ▷신공항권랩 단장 김주석 ▷메가대구랩 단장 최용준 ▷스마트생활권랩 단장 이상인 ▷청년대구랩 단장 오동욱 등이다.

박양호 연구원장은 "6개 전략 랩 단장 발령을 통해 현장과 시민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채정민 기자 cwolf@imaeil.com

신순식 구미발전연구소 대표 방송대 학생에 장학금 200만원

신순식 구미발전연구소 대표(한국방송통신대 구미·칠곡·김천지역 장학회장)는 지난 26일 한국방송통신대 구미학습관에서 열린 신·편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 10명에게 장학금 20만원씩을 지원하고 격려했다. 또 향후 장학금 수혜 학생 20명을 추가 선발하기로 했다. 이창희 기자 lch888@imaeil.com

보이스피싱 예방 우체국 직원 경북 영주경찰서 감사장 전달

경북 영주경찰서(서장 안문기)는 지난 24일 영주의 한 우체국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한 직원 A씨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우체국을 방문한 B씨가 다급하게 현금 3천600만원을 인출하려는 것을 보고 사용처를 묻자 뚜렷한 이유를 밝히지 않는 것을 보고 보이스피싱이라고 의심, 112에 신고해 범죄를 예방하는 데 기여한 공로다.

안문기 영주경찰서장은 "의심되는 전화가 걸려 오면 112로 신고해 달라"고 했다.

마경대 기자 kdma@imaeil.com

인사

◆경산시
〈6급 승진〉▷기획예산과 김대환 ▷총무과 김연주 ▷체육진흥과 김종철 ▷감사담당관실 서봉준 ▷교통행정과 양영모 ▷회계과 최원철 ▷세무과 장재훈 ▷복지정책과 권정옥 ▷가족정책과 전현영 ▷회계과 이상진 ▷농정유통과 염성일 ▷보건행정과 곽민정 ▷허가과 이인승 ▷건설과 하보성 ▷토지정보과 박성욱 ▷디지털정책과 오도윤

◆영양군
〈6급 승진〉▷자치행정과 조은미

◆경일대 〈3월 1일 자〉
▷교학부총장 김성찬 ▷경영부총장 홍재표 ▷입학처장 김상범 ▷사무처장 장부환 ▷학생생활관장 유병선 ▷학생처 부처장 최우성 ▷기획처 부처장 장규하 ▷정보처 부처장 배광훈 ▷LINC3.0사업단 부단장 이진우 ▷청년창업사관학교 센터장 박충기 ▷대학혁신지원사업단 팀장 최효진 ▷자산관리위원회 실장 이영목 ▷수업학적팀 팀장 박수진 ▷IR센터장 김해수 ▷KIU스포츠단장 이원희 ▷KIU스포츠단 팀장 정진규 ▷취업지원팀 팀장 김영신 ▷입학팀 팀장 김홍석 ▷입학전형팀 부장 서석교 ▷입학사정팀 팀장 최호태 ▷기획평가팀 팀장 전철민 ▷기획예산팀 팀장 황태수 ▷자산관리팀 부장 전대하 ▷산학진흥팀 팀장 박청연 ▷국제학생지원팀 팀장 김정미 ▷스마트디자인공학부장 김용대 ▷스마트보안학과장 김현성 ▷전기전자에너지학부장 최종호 ▷건축디자인학과장(5년제) 이광현 ▷건축토목공학과장 박기범 ▷K-방송예술학부장 이재욱 ▷사진영상학부 실장 오창규 ▷이미지&테크놀로지전공 주임교수 김보성 ▷부동산지적학과장 박기헌 ▷콘텐츠디자인학과장 강형구 ▷뷰티학과장 박선민 ▷글로벌비즈니스학부장 오수정 ▷스포츠융합학부장 정지규 ▷엘리트육성전공 주임교수 김연 ▷노인체육복지학과장 김대영 ▷게임엔터테인먼트학과장 황규성 ▷원자력학과장 안현수 ▷스마트테크전공 주임교수 조현철 ▷산업환경안전(EHS)전공 주임교수 김충 ▷창업경영전공 주임교수 임경국 ▷BLS-TS센터장/재해구호전문인력양성센터장 강민주

오늘의 운세 2월 28일(음력 2월 9일) 더사주 인스타그램 제공

쥐

▶36년생 나의 주관을 확실하게 관철시키며 밀고 나가는 것이 현명합니다. ▶48년생 다툼을 피하고 싶다면 각자의 방식과 생각이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60년생 철저한 자기관리로 상대에게 허점을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한 날입니다. ▶72년생 생각이 많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으니 단순하게 생각하는 게 현명합니다. ▶84년생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면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며 기분 전환해 보세요.

소

▶37년생 일이 생각대로 진행되지 않더라도 마음의 여유를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49년생 다른 사람의 말에 크게 신경 쓰지 말고 자신의 방식대로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61년생 앞을 내다보고 일을 추진하면 침체한 기운이 물러가고 좋은 기운이 밀려온답니다. ▶73년생 진행하고 있는 일이 약간의 막힘이 있어도 그대로 밀고 가면 성사시킬 수 있습니다. ▶85년생 자신이 가야 할 목표를 분명히 정하고 현재의 일에 집중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범

▶38년생 내 뜻대로 진행되지 않더라도 감정적인 대응보단 이성적인 모습을 보여주세요. ▶50년생 행운을 불러오고자 한다면 바깥으로 나가서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좋습니다. ▶62년생 오늘은 노력하고 행동한 만큼 결과가 나오니 최선을 다하도록 하세요. ▶74년생 자신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해도 실망하거나 자책하지 말길 바랍니다. ▶86년생 자신의 능력과 끼를 발휘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좋은 날입니다.

토끼

▶39년생 건강을 우선으로 생각하며 무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날입니다. ▶51년생 지금은 나서지 말고 자신의 일을 묵묵히 하면서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좋습니다. ▶63년생 미리 짐작하지 말고 사태를 지켜보면서 정확하게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5년생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하나하나 정성을 다해 행동하면 빛을 볼 수 있습니다. ▶87년생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는 말처럼 지금 가는 길을 점검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용

▶40년생 사람들과 협력할수록 기운이 좋아지는 날이니 적극적으로 소통해 보세요. ▶52년생 마음을 차분하게 먹고 순리대로 일을 마무리 짓는 것이 중요한 날입니다. ▶64년생 운이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니 하는 일마다 성과가 드러나는 하루가 되겠네요. ▶76년생 말과 행동을 무겁게 하고 비밀을 잘 지킬 때 자신이 바라는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88년생 벼는 익으면 익을수록 머리를 숙이는 것처럼 자중하는 마음을 가지길 바랍니다.

뱀

▶41년생 여러 일로 분주하니 마음을 잘 다스리며 계획을 세워서 행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53년생 독단적으로 행동하기보다 팀원들과 의견을 모아 처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65년생 오늘은 무슨 일이든 이해득실을 잘 따져보고 결정해야 뒤탈이 생기지 않는답니다. ▶77년생 중요하지 않은 지출을 줄이긴 위해선 섣부른 판단으로 빠른 결정을 삼가는 게 좋습니다. ▶89년생 대인관계의 폭도 넓어지고 인간관계의 깊이도 깊어지는 날입니다.

말

▶42년생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야 자신이 하는 일들이 잘 풀릴 수 있습니다. ▶54년생 현 상황에서 한 발 물러서서 그동안의 일들을 돌아봐야 하는 날입니다. ▶66년생 그동안 침체되었던 기운이 상승하며 밝은 날을 맞이할 수 있겠습니다. ▶78년생 문제가 생겨나길 원치 않는다면 말과 행동을 하는 데 있어 주의를 기울이길 바랍니다. ▶90년생 어려움이 발생하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서두르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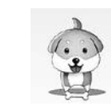
▶43년생 피곤한 몸과 마음을 잘 추스르며 휴식을 취할 필요가 있는 날입니다. ▶55년생 빠른 판단을 통해 지금의 문제에 적절하게 처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67년생 고민은 짧게 하고 할 말은 빠르게 내뱉어 버리는 것이 현명합니다. ▶79년생 시작은 다소 위태로우나 결과와 마무리는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겠습니다. ▶91년생 오늘은 새로운 일을 시도하거나 변화를 꾀하는 데 있어 아주 좋은 날입니다.

원숭이

▶44년생 어떤 일을 하든지 적당히 만족하고 양보하는 미덕을 보이면 행운이 찾아옵니다. ▶56년생 혼자 해결하려다 시기를 놓치지 말고 빠른 협조를 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68년생 개인의 이익보다는 주변의 어려움에 신경 쓰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80년생 다른 사람의 조언을 듣는 것보다는 내 스타일대로 밀고 나가면 좋겠습니다. ▶92년생 대인 관계에서 곤란한 상황에 처하고 싶지 않다면 자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닭

▶45년생 내게 주어진 일의 우선순위를 잘 구분하여 실행해야 하는 날입니다. ▶57년생 너무 적극적인 간섭을 지양하고 감정적 대립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69년생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고 버텨낸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날입니다. ▶81년생 기존에 진행하던 일을 그만두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93년생 괜히 나중에 더 고생하고 싶지 않다면 지금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개

▶46년생 한 부분에만 집중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바라보면 이익이 커지는 날입니다. ▶58년생 현재에 안주하지 말고 작은 것이라도 꾸준히 노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70년생 당신의 재주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으니 마음껏 솜씨를 보여주길 바랍니다. ▶82년생 지금은 일단 경험을 쌓아서 능숙해지는 것이 우선이랍니다. ▶94년생 지금의 연인과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 보고 재정립할 필요가 있는 날입니다.

돼지

▶47년생 충분한 수면을 바탕으로 체력을 비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날입니다. ▶59년생 아무리 아랫사람이라 하더라도 수평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71년생 오늘은 특히 스트레스에 취약하니 스스로 중심을 잡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83년생 주변 사람의 도움으로 나의 고민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날입니다. ▶95년생 인연의 기운이 좋으니 나와 잘 맞는 사람을 만나게 될 수 있는 날입니다.

2023 YEONGJU MARATHON
2023
2023
영주소백산
마라톤대회
2023년 4월 2일(일) 09:00 | 영주시민운동장
참가자 신청접수
신 청 기 간 | 2023년 3월 17일(금) 오후 4시 까지
종목및참가비 | 풀코스 - 5만원, 하프코스 - 4만원
10km코스 - 3만원, 5km코스 - 2만
참 가 자 격 | 신체 건강한 남.여
접 수 방 법 |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계좌번호 | 농협 301-0174-1882-51 (예금주 : ㈜파란상상)
환불규정 | 접수마감 3월 17일(금) 오후 4시 까지
100% 환불신청가능. 마감이후에는 환불 불가.
접수문의 | 마라톤사무국 (02) 2208-7242(파란상상)
영 주 시 청 (054) 639-3802
영주시체육회 (054) 631-3992, 638-7330
홈페이지 바로접속
NAVER
영주소백산마라톤대회
검색
www.sobaekmarathon.go.kr
문의처(운영사무국) : 02-2208-7242
대회기념품
풀, 하프, 10km코스 : 인견이불
5km코스 : 르까프 기능성 티셔츠
| 주최 | 영주시, 매일신문
| 주관 | 영주시체육회

바람과 파도가 만든 울릉도에 사는 사람들

EBS1 '한국기행' 오후 9시 30분

EBS 1TV '한국기행'이 28일 오후 9시 30분에 방송된다.

바람과 파도가 깎아서 만들어 놓은 울릉도를 걷는다. 도동마을의 해안 산책로부터 오래전 마을과 마을을 잇는 유일한 소통구였던 오솔길까지. 그림 같은 풍경의 길을 걷다 보면 그 속에서 살아가는 울릉도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

일평생 바다 돌김을 채취해 자식들을 먹여 살렸다는 이재희 씨와 유금순 씨 부부는 아찔한 해안 절벽을 거침없이 타고 내려가 까끌까끌한 바위에서 김을 채취한다. 그 손길에서 따듯한 정성이 느껴지지만 그 정성도 날씨가 추운 겨울에만 할 수 있다. 막 채취한 김을 일일이 펴는 것부터 말리는 일의 모든 과정이 까다로운 수작업으로 이루어진다.

바다 내음 가득한 그들의 일상을 따라 길을 걷다가 울릉도에서만 볼 수 있다는 바다 미꾸라지를 잡으며 눈이 부시게 신비로운 섬을 손에 한가득 움켜 담는다. 그 어디에서도 만날 수 없는 울릉도의 진짜 삶을 찾아 떠난다

이신혜 기자 tvbox@imaeil.com

cpbc FM 96.9 MHz 포항가톨릭평화방송
신앙 충전, 한낮의 산책 오후 2시
每日新聞 뉴스 낮 12시

오늘의 역사

1984년 2월 28일
마이클 잭슨 '팝의 황제' 등극

미국 LA의 시라인 오라토리움에서 존덴버의 사회로 열린 제26회 그래미 시상식에서 마이클 잭슨이 올해의 앨범과 올해의 레코드 등 무려 8개의 그래미 트로피를 거머쥐며 '팝의 황제' 자리에 등극했다. 이것은 1년여 전인 1982년 12월 발매됐던 전설적인 앨범 'Thriller'가 미국 내에서만 2천200만 장이라는 경이적인 판매고를 기록했고, 빌보드 앨범 차트에서 무려 37주간 1위라는 전무후무한 대기록을 작성했다.

박상철 일러스트레이터 estlight@naver.com

TV 프로그램

• KBS 053)757-7321 • MBC 053)740-9500
• TBC 053)760-2000 • EBS1 1588-1580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KBS1	KBS2	MBC	TBC/SBS	EBS1
5:00 생활의 발견 스페셜	5:00 해 볼만한 아침 M&W 스페셜(재)	5:00 두근두근 팜팜(재)	5:00 TBC 클리닉 건강 365(재)	5:00 왕초보 영어 / 30 클래스 e (2)
10 내고향 스페셜	6:00 생활의 발견 스페셜(재)	6:00 MBC 뉴스투데이	6:00 모닝와이드 1부 / 25 모닝와이드 2부	50 한국기행(재)
6:00 KBS 뉴스광장	1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7:20 대구 MBC 뉴스투데이	7:10 TBC 굿모닝 뉴스	6:10 세계테마기행(재)
7:50 인간극장	7:00 해 볼만한 아침 M&W	50 일일드라마(며녀의 게임)(재)	40 모닝와이드 3부	7:00 뽀롱뽀롱 뽀로로
8:25 아침마당	9:00 KBS 아침 뉴스타임	8:30 TV메디컬 약손	8:40 맨 인 블랙박스 스페셜	15 우당탕탕 은하안전단(종합)
9:30 KBS 뉴스	20 일일연속극(내 눈에 콩깍지)(재)	9:30 930 MBC 뉴스	50 좋은 아침	45 뽕뽕뽕뽕 부부맨
10: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0:00 인간극장 스페셜	45 기분 좋은 날	9:55 SBS 10 뉴스	8:00 딩동댕 유치원 / 20 출동! 슈퍼윙스
11:00 동행(재)	40 지구촌 뉴스	10:45 뽀뽀뽀 좋아좋아	10:15 TBC뉴스 / 30 특집 살맛 나는 오늘	35 명탐정 피트3 / 50 로보카 폴리
55 안녕 우리말(재)	11:00 월화드라마〈두뇌공조〉(재)	11:15 헬로키즈 체육교실(재)	11:00 꾸러기 탐구생활	9:05 슈퍼주퍼 잉글리시
12:00 KBS 뉴스 12	12:15 개는 훌륭하다(재)	30 반짝이는 프리채널3	30 요리 조리 맛있는 수업	20 빅 블루 / 35 타타와 쿠마
		12:00 12 MBC 뉴스	12:00 SBS 12뉴스 / 25 민방 네트워크 NEWS	40 고고다이노 우리동네공룡(종합)
		25 출발! 비디오 여행 스페셜	50 신발 벗고 돌싱포맨(재)	10:10 한국의 둘레길(재)
				30 한국기행(재) / 50 최고의 요리비결
				11:20 세계테마기행
1:00 KBS 네트워크 특선 세상다반사	1:50 영화가 좋다(재)	1:20 헬로키즈 글로벌 동물 뉴스(재)	2:00 뉴스브리핑	12:00 EBS 뉴스 12
50 생활의 발견 스페셜(재)	3:00 KBS 뉴스타임	55 앙코르 다큐 1960 대구, 민주의 봄	4:00 좋은 아침 스페셜	10 다큐영화 길 위의 인생(재)
2:00 KBS 뉴스 / 10 생로병사의 비밀(재)	10 두리둥실 뭉게공항 3(재)	3:55 기분 좋은 날(재)	5:00 SBS 오뉴스	1:00 바닷가 사람들
3:00 영상앨범 산(재)	30 TV 유치원	4:55 5 MBC 뉴스	30 TBC 대경뉴스광장	50 EBS 다큐프라임(재)
30 천상의 컬렉션 베스트	4:0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5:10 문화요 스페셜	50 싱싱 고향별곡(재)	2:45 한국의 둘레길(재)
50 세계는 지금 스페셜(재)	30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재)	40 전국시대 스페셜		3:05 나를 위한 매일 수업(1)
4:00 사사건건	5:50 통합뉴스룸 ET			35 나를 위한 매일 수업(2)
5:00 KBS 뉴스 5 / 30 라이브 오늘				35 레전드히어로 삼국전
				4:05 영어 스토리 타임 / 15 페파 피그
				25 명탐정 피트3(재)
				40 딩동댕 유치원(재)
6:00 6시 내고향	6:30 2TV 생생정보	6:05 생방송 오늘 저녁	6:50 생방송 투데이	5:00 EBS 뉴스
7:00 KBS 뉴스7 대구경북	7:50 일일드라마〈태풍의 신부〉	7:05 일일드라마〈며녀의 게임〉	7:50 SBS 8뉴스	20 못 말리는 어린 양 숀
40 이웃집 찰스	8:30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	40 MBC 뉴스데스크	8:30 TBC 8뉴스	30 뒤죽박죽섬의 빅풋패밀리(종합)(재)
8:30 일일연속극〈내 눈에 콩깍지〉				6:00 로보카 폴리(종합)
				30 번개망토의 비밀 스페셜
9:00 KBS 뉴스 9	9:50 월화드라마	9:00 PD수첩	9:00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7:00 미라큘러스: 레이디버그와 블랙캣
10:00 특집대담 공영방송 50년	〈두뇌공조〉	10:00 헛바닥 종합격투기 세치혀	10:00 신발 벗고 돌싱포맨	30 한국의 둘레길 / 50 극한직업(재)
미래를 묻다	11:00 스튜디오 K	11:30 100분 토론	11:20 금토드라마	8:40 세계테마기행
11:00 더 라이브 / 40 KBS 뉴스라인	12:10 아이 러브 스포츠	12:55 TV예술무대	〈모범택시2〉(재)	9:30 한국기행 / 50 EBS 다큐프라임
12:1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재)	35 더 시즌즈		12:40 TBC 스포츠 볼링(재)	10:45 건축탐구 – 집
1:00 KBS걸작 다큐멘터리	–박재범의 드라이브(재)			11:35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50 생활의 발견	2:05 KBS 재난방송센터(재)			55 클래스 e (1)
2:40 한국의 인류유산(재)				12:15 EBS 비즈니스 리뷰
45 해 볼만한 아침 M&W 스페셜				30 지식채널e(1) / 35 지식채널e(2)
3:45 아침마당(재)				40 글로벌 특선 다큐 스페셜

케이블·위성TV

•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02-735-6511 • 스카이라이프 1588-3002 • (주)이피지 02)569-5995
※지면관계상 모든 채널과 프로그램을 소개하지 못함을 양해 바랍니다.

스포츠

KBS N 스포츠	MBC 스포츠+	SBS 골프	SBS 스포츠	바둑 TV
10:00 V리그 최고의 세트	10:00 웰컴저축은행 웰뱅 LPBA 챔피언십 2023	11:10 당신이 골프를 못하는 이유4	11:15 22~23 V-리그 흥국생명 최고의 세트	9:30 제24회 농심신라면배 세계바둑최강전
14:50 여자프로농구 하나원큐:BNK썸	12:00 2022 학산배 전국 장사 씨름대회 HL	14:40 2022 보그너 프로 Vs 아마추어 슈퍼챌린지	14:45 '빙속여제' 김민선 스페셜	13:00 제27기 5육七 관절타이밍 한국기원 선수권전
16:50 V리그〈여자부〉GS칼텍스:흥국생명	14:00 2022 베이징 겨울올림픽 쇼트트랙 HL	17:40 2020 현대차증권·서산수맞수한판	16:00 V-리그 여자부 GS칼텍스:흥국생명	17:30 스피드 초점국 김은지 특집
18:50 V리그〈남자부〉KB손해보험:우리카드	17:00 2009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19:20 당신이 골프를 못하는 이유4	18:50 V-리그 여자부 한국도로공사 :KGC인삼공사	19:00 제24기 맥심커피배 입신최강전
21:30 EVERYDAY 스페셜V	19:00 스윙스타 in 사이판	21:20 SBS골프아카데미 이정원,배재희,이소희	23:00 SBS스포츠 주간 스페셜	22:00 스피드 초점국 김은지 특집
24:00 세계최강 대한민국 여자쇼트트랙	24:00 올림픽 탁구대표팀 실전대회	24:40 당신이 골프를 못하는 이유4	24:00 V-리그 남자부 KB손해보험:우리카드	23:00 바둑 전설과 함께하는 전자랜드 라이벌 대전

영화·경제

OCN	스크린	씨네프	SBS Biz	매일경제 TV
11:30 더스파이	12:15 NCIS:LA11	10:25 시카고메드3	11:25 백브리핑 시시각각	10:00 증권광장
13:50 세자매	14:15 캐스트어웨이	12:25 총알탄 사나이3	13:00 Pick Up! 트렌드 스페셜	14:30 시장 오늘과 내일
16:20 조선명탐정2:사라진 놉의 딸	17:10 서치	13:55 러브스파이:바브앤스타	16:00 용감한 토크쇼 직설	16:30 매일경제TV 뉴스
19:00 조선명탐정:흡혈괴마의 비밀	19:15 CSI:9	16:00 트윈머더스:살인코드	19:30 휴먼다큐 시장 사람들	18:00 경세제민 촉
21:30 콰이어트플레이스2	22:15 CSI:9	18:15 태양은 움직이지 않는다	21:30 내가 팔면 오르는 이유	20:00 스치면 상한가
23:30 아일랜드	23:15 컨스피러시	20:30 서유기:모험의 시작	22:30 재테크 끝판왕, 재테킹	23:30 생생한 주식쇼 生쇼

드라마·오락

KBS 드라마	MBC 드라마	SBS Plus	tvN	디스커버리
12:10 두뇌공조	10:20 나 혼자 산다	10:10 미운 우리 새끼	11:20 일타스캔들	12:30 걱정마수다#
13:30 삼남매가 용감하게	12:00 장미의 전쟁	13:50 모범택시2	14:20 서진이네	14:50 스트리트 푸드파이터 2
16:30 걸어서 환장 속으로	15:20 오은영 리포트 결혼지옥	16:30 미운 우리 새끼	16:20 내친나똑	16:10 나는 솔로
19:30 무엇이든 물어보살	17:00 전지적 참견 시점	18:30 동상이몽2 너는 내 운명	18:10 청춘월담	19:00 극한초보
20:50 개는 훌륭하다	22:10 오은영 리포트 결혼지옥	20:10 모범택시2	22:10 벌거벗은 세계사	20:20 지혜를 빼앗는 도깨비
23:30 두뇌공조	23:50 안싸우면 다행이야	24:20 미운 우리 새끼	24:00 내친나똑	23:00 요즘 육아 금쪽같은 내새끼

종편·보도

MBN	TV조선	JTBC	채널A	YTN
10:00 생생 정보마당	10:30 미스터트롯2:새로운 전설의 시작	10:00 대행사	12:00 뉴스A LIVE	11:40 뉴스N이슈
14:00 특종세상	13:00 보도본부 핫라인	13:25 한블리	14:20 결혼 말고 동거	13:50 더뉴스
16:10 뉴스파이터	16:00 조선의 사랑꾼	15:10 톡파원 25시	17:20 뉴스TOP10	15:50 뉴스Q
19:00 MBN 뉴스7	19:00 기적의 습관	17:00 정치부 회의	19:00 뉴스A	17:50 이브닝뉴스
20:10 엄지의 제왕	21:00 TV CHOSUN 뉴스9	19:50 JTBC 뉴스룸	21:20 오늘은 좀 매울지도 몰라	21:35 뉴스나이트
21:40 불타는 트롯맨	22:00 미스터트롯2 TOP16 스페셜	22:30 손 없는 날	23:50 요즘 육아 금쪽같은 내새끼	23:50 자정뉴스

어린이·다큐

투니버스	JEI재능TV	챔프	YTN 사이언스	내셔널지오그래픽
10:00 브레드이발소3	10:00 온고지신	12:00 브레드 이발소3	10:00 과학카툰 기발한 실험실	10:45 Dirty Rotten Survival
14:00 뱀파이어소녀 달자	14:00 인싸가족	14:00 블록나라의 알로스	13:00 글로벌 넘버원 최강기업	14:25 Chasing the Sun 2
16:00 마카앤로니	16:30 슈퍼텐 전설의 슈퍼리온	17:00 방울이TV	15:00 테마기행 세계의 절경	16:15 Is It Real? 3
18:00 마카앤로니2	19:00 고스트 게임:디지몬	20:00 신 도라에몽 스페셜	19:00 사이언스 투데이	18:05 Wicked Tuna
21:00 네모바지 스폰지밥13	21:00 웃짜가족	22:00 티티체리	21:00 월드베스트 세계의 절경	21:00 Ice Road Rescue 6
24:00 주술회전	23:00 파파독 개수상한 이웃	24:00 이누야샤	23:00 사이언스 투데이	23:00 Planet Possible Asia

종교·해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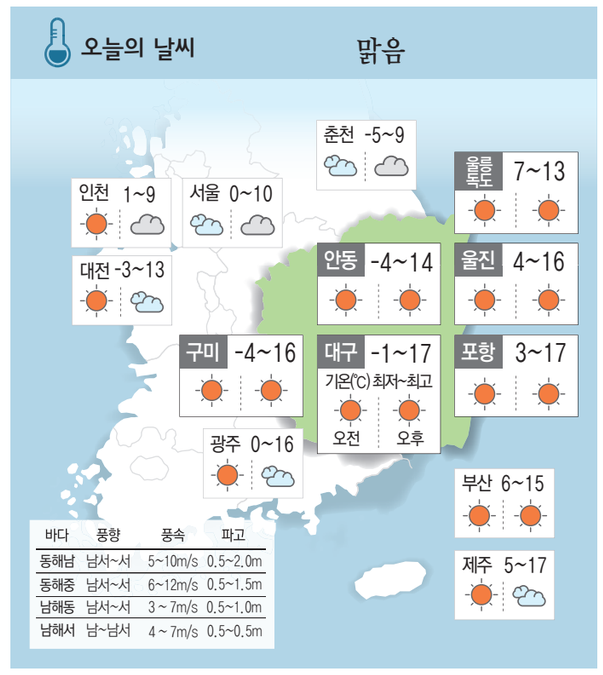
cpbc TV	불교BTN TV	CGN TV	BBC World	CNN Int'l
11:00 바보에게 길을 묻다	10:30 사시불공	11:00 구약의 세계로〈오십쇼〉2	10:00 Newsday	11:00 The Situation Room
13:50 채널고정! 건강을 드립니다	13:00 릴레이특강 지혜의 다락방	14:20 선교하시는 하나님	13:00 BBC World News	13:00 CNN Tonight
15:00 자비와 회복의 50일 여정	16:00 행복나무에 핀 법화경	16:00 어린이 공동체성경일기 고고 바이블	16:45 World Business Report	15:00 CNN Newsroom
19:20 현대영성가 토마스 머튼	19:30 화두의 바다 선문염송	18:50 말씀 유관재 목사(성광교회)	19:00 BBC News	18:00 CNN Newsroom
21:00 평화를 위한 고리기도	21:30 출가열반재일 특별법문	20:20 CGN 월드뉴스	21:00 Live With Lucy Hockings	21:00 CNN This Morning
23:30 인생은 어바웃 시즌2	23:25 몽이와 동이의 절따라 전설따라	23:30 생명의 삶	23:00 Impact with Yalda Hakim	23:00 First Move

교육방송

EBS플러스1				방송대학 OUN
5:00 [개념완성 문항편] 물리학 I	10:00 [2024 수능개념] 생명과학 II 의 주연은 너!	15:50 [개념완성] 정치와 법 (하위권을 위한 기초)	21:40 클래스 e (1)	9:00 미디어와 사회
50 [개념완성 문항편] 생명과학 I	50 [2024 수능개념] 박민아의 정치와 법 개념	16:40 [올림포스 고난도] 구명석의 미적분	22:00 [올림포스] 미적분 (상위권을 위한 발전)	11:00 상담자가 건네는 말
6:40 [개념완성 문항편] 화학 I	11:40 [2024 수능개념] 류성완의 완벽한 세계사	17:30 [올림포스 고난도] 김성우의 확률과 통계	50 [올림포스] 미적분 (하위권을 위한 기초)	14:00 조리원리
7:30 [2024 수능개념] 주혜연의 해석공식 기출구문	12:30 [개념완성] 윤리와 사상 (상위권을 위한 발전)	18:20 [2024 수능 기출의 미래] 물리학 I	23:40 대도서관 잡(JOB)쇼(재)	17:00 한국문화자원의 이해 2
8:20 [2024 수능개념] 노베이스탈출 개념시작, 서지나의 수학 I	13:20 [개념완성] 윤리와 사상 (하위권을 위한 기초)	19:10 [2024 수능 기출의 미래] 화학 I	24:10 [개념완성] 화학 II (상위권을 위한 발전)	20:00 통치의 기본구조
9:10 [2024 수능개념] 완전 초보를 위한 장인수의 물리학 II	14:10 [개념완성] 정치와 법	20:00 [2024 수능 기출의 미래] 생명과학 I	1:00 [개념완성] 화학 II (하위권을 위한 기초)	22:00 가족교육론
	15:00 [개념완성] 정치와 법 (상위권을 위한 발전)	50 [2024 수능 기출의 미래] 지구과학 I	50 지식채널e(1)	
EBS2				
6:00 EBSe 생활영어	12:00 그린조끼 구조대	16:00 스쿨랜드 – 과학	20:00 한국의 둘레길	
7:00 왕초보 영어	30 플루갈스의 지구 탐험	20 엉뚱남매 요리조리쇼	20 지식채널e(1)	
8:00 Seasame street	13:05 도전! 나도 과학자	17:20 나를 위한 매일 수업(1)	30 세계견문록 아틀라스(2)	
30 매일 10분 영어	30 직업탐구 별일입니다3	50 긴급상황 우리 몸 X파일	21:00 신계속의 맛터사이클 다이어리	
9:00 액티비티 잉글리시	14:00 뽕뽕뽕뽕 부부맨	18:00 지구탐사 이야기	50 지식채널e(1)	
10:00 뭐든지 뮤직박스	30 시몽	30 볼트론: 전설의 수호자	22:00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11:00 엉뚱남매 요리조리쇼	15:00 야옹! 클래식	19:05 도전! 나도 과학자	20 클래스 e (1)	
	45 세미와 매직큐브	30 그리스 로마 신화 – 올림포스의 별	23:20 EBS 비즈니스 리뷰	

TBN 대구교통방송 FM 103.9MHz
출발! 대구대행진 오전 7시
每日新聞 뉴스 오후 4시

오늘의 날씨 맑음



■ 5일간 예보

지역 \ 날짜	3.1(수)	2(목)	3(금)	4(토)	5(일)
영남					
서울					
충청					
강원					
호남					

해 뜸	06:58	
해 짐	18:19	
달 뜸	11:38	
달 짐	02:01	

지역	만조	간조
포항	20:29	05:16
	–	–
부산	01:26	07:29
	12:59	20:12

· 일기예보 자동응답 131

"밤에도 안심하세요"- 야간진료 병원

소방구급대---------119

대학교병원

- 계명대 동산병원(성서)-----1577-6622 계명대학교 대구동산병원(서문시장앞)250-8114 www.dsmc.or.kr
-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1688-0077 www.dcmc.co.kr
- 경북대학교병원----------1666-0114 www.knuh.kr
- 영남대학교병원----------1522-3114 www.yumc.ac.kr

종합병원

- 파티마병원----------1688-7770 www.fatima.or.kr 동대구역 옆
- 곽병원----------252-2401 www.kwakh.co.kr 서성네거리
- 구병원----------560-9114 www.gooh.co.kr 지하철 2호선 죽전역 4번출구
- 천주성삼병원----------790-0555 Sungsam21.com 지하철 2호선 신매역 5번출구
- 대구의료원----------560-7575 www.daegumc.co.kr
- 대구가톨릭대학교 칠곡가톨릭병원----------320-2500 www.tcmcch.co.kr 대구은행칠곡지점 건너
- 경산중앙병원----------715-0119,0129 www.gsjoongang.com
- 드림종합병원----------640-8575 www.dreamh.co.kr 지하철 1호선 안지랑역 4번출구

병 원

- 수성메트로병원----------743-7777 남부정류장네거리 지하철2호선 만촌역

요양병원

- 경주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054-743-6200 www.kjho.co.kr 동국대→영천, 고경 방향
- 상주연세실버타운------054-533-1600 www.syst.or.kr
- 연세한방병원----------054-531-9988
- 연세요양병원----------054-536-5588

대한의사협회의료광고심의필 제 090804-중-14127호

심야약국 · 365 연중무휴 약국

■ 심야약국(저녁10시~새벽6시) 768-3679 수성구 황금2동 757-3 대구시약사회관 별관 1층

■ 365 연중무휴 약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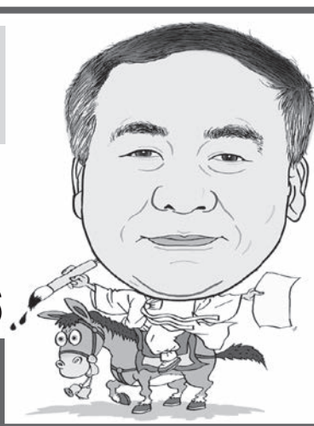
- 〈중구〉 대하약국----------254-8164
- 〈동구〉 팜프라자약국----------607-2733
- 〈서구〉 경명약국----------355-7255
- 〈북구〉 형우당약국---------- 358-9696
- 〈중구〉 한성약국---------- 425-5575
- 〈북구/칠곡〉 강북약국------323-8736
- 〈달서구〉 삼일약국---------568-3375
- 〈달서구〉 메디칼중앙약국 ----586-7900
- 〈달성군〉 중앙약국--------- 615-0007

■ 365 자정약국

- 〈중구〉 복음약국----------252-1325

당직 변호사 (28일)최우정 (1일)김효범 053)741-6338 FAX: 053)751-6006

작명전문
아기이름 · 개명
우리나라 대표 이름연구소·40년 전통
작명원제 큰이름
053-241-3456
큰이름 ▼
교보문고 옆 미도빌딩 9층



대한민국의 등불 3·1운동과 동학

기 고

신효철
더불어민주당
대구 동구갑
지역위원장

올해는 3·1운동 104주년이며 동학혁명 129주년이다. 1919년 3·1운동이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재출발점이라면 그 원점은 1894년의 동학혁명이다. 3·1운동 당시 한반도 전역에서 남녀노소와 빈부귀천, 도농산어(都農山漁), 직업 여하, 국내·국외를 물론하고, 전체 한민족이 궐기하였던 그 경험과 그 마음이 시민의식(市民意識)으로 싹터서 발화한 것이다. 그리고 그 씨앗이 뿌려진 것이 갑오년(1894) 동학혁명이었다.

그 근거 중 하나는 3·1운동의 발화점이 되었던 민족 대표 33인 가운데 9명이 동학농민혁명 당시의 지도자(大接主)들이었다는 점이다. 또 동학혁명 당시 황해도 지역 접주로 참전한 김구(金九) 선생은 3·1운동 이후 성립된 상해임시정부의 기둥으로서 광복 때까지 독립운동을 이끌었다. 김구 선생은 귀국 후 천도교를 방문하여 천도교(동학)-3·1운동-상해임시정부-광복으로 이어지는 역사의 도도한 줄기를 직접 증언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동학(혁명)과 3·1운동은 긴밀하게 연결되면서 우리나라 근대 역사의 분기점을 형성하였다. 또 3·1운동은 중국의 5·4운동, 인도의 비폭력·무저항운동 등 세계 민족해방운동사에 영향을 주었으니, 3·1운동이야말로 한류(韓流)의 원조이다.

3·1운동 민족 대표 33인의 대표 손병희 선생은 동학 교주 해월 최시형의 지휘 아래, 전봉준과 함께 결의형제(結義兄弟)하여 동학농민혁명군을 이끌고 공주(우금티) 전투를 지휘한 동학군 통령(統領)이었다. 3·1운동의 횃불은 표면적으로는 1년여 만에 진화된 듯하였으나, 그 불길은 만주와 중국 대륙으로 옮겨져 독립운동으로 계승되었고, 국내적으로는 신문화운동을 통해 민족적 역량을 재건하는 움직임으로 이어졌다.

해방 정국의 혼란과 분단, 민족 상쟁, 그리고 독재 정부와 군사 쿠데타 등의 흐름이 20세기 후반기 우리 역사를 암울하게 뒤덮었으나 그 저변에서는 4·19혁명을 필두로 한 민주화운동에서부터 촛불혁명에 이르기까지 도도한 흐름이 거대한 토대를 구축하고 있었으니, 이것은 다름 아닌 동학(혁명) 이래 3·1운동을 거치면서 형성된 거대한 '민족적 역량'이야말로 한국 근현대사의 근본적인 세력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동학농민혁명 120주년(2014)과 3·1운동 100주년(2019)을 지나면서 짧게는 개헌을 축으로 하는 '87년 체제' 개혁에서부터 길게는 새로운 대한민국 100년을 설계하는 움직임이 밑바닥에서부터 진행되고 있다. 후자는 건전한 자주국방 체제의 대한민국, 남북의 교류와 협력 체제의 굳건한 재건, 한류를 바탕으로 세계인의 마음에 감응하는 문화적 선도 국가로의 도약,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창조적으로 개벽해 나가는 한민족 지성의 발휘 등을 그 내용으로 한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동학혁명에서 3·1운동 시기까지의 역사적 경험과 내용은 바로 새로운 대한민국 100년을 위한 비전의 원형을 담고 있다. 동학혁명 주체 세력의 폐정 개혁안과 3·1운동 독립선언서, 대한민국 제헌 헌법을 비교 분석한 결과 동학혁명 당시 제기됐던 인권, 국권, 경제권 요구가 대한민국 제헌 헌법에 녹아들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대한민국헌법 전문을 보면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하고'로 시작한다. 오늘날 시대적 요구가 되고 있는 개헌에 즈음하여, 3·1운동의 뿌리인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헌법 전문에 포함함으로써 흐릿해진 민족사의 정통을 뚜렷이 빛나게 하고, 험난한 미래로의 항로를 밝히는 등대로 삼아야 할 것이다.

죽은 법의 사회

화요초대석

김영수
영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윤미향 의원 8개 혐의 중 7개 무죄
곽상도 전 의원 아들 50억 혐의 무죄
정권의 진영 논리 따라 판결 달라져
법·상식 무너지면 아무 대책이 없어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라고 한다. 법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하지만 법조차 무너지면 어쩌나. 최소한의 도덕조차 위태롭다는 징후다. 최근 우리 사회가 그렇다. 국민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판결들이 한꺼번에 쏟아지고 있다.

먼저 윤미향 의원에 대한 판결이다. 정의기억연대(정의연) 보조금 사기, 후원금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은 8개 혐의 중 7개가 무죄고, 1천718만 원의 횡령죄만 인정되었다. 2008년 별세한 고 심미자 할머니는 일기장에 "정대협은 교양이(고양이)고, 할머니들은 생선. 한마디로 정대협은 위안부 할머니의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 또는 "모금하는 이유는 윤미양(윤미향)의 재산 모우기(모으기)"라고 적었다.

1심 재판은 이런 의혹 대부분을 무죄로 판결했다. 하지만 윤 의원이 "후원금을 개인 계좌 등에 보관하면서 사용처를 확인할 수 없는 방식으로 자금을 관리했다"는 사실은 인정했다. 2020년 5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되놈이 버느냐"고 비판할 때, 윤 의원은 "정의연의 활동과 회계 등은 정말 철저하게 관리하고 감사받고 보고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판결대로라면, '철저'와는 거리가 멀었다. 재판부 역시 "시민이 십시일반 기부한 금액으로 운영되기에 누구보다 투명하게 운영될 필요가 있었다"며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런데도 이번 판결로 윤 씨는 국민의 혈세를 받는 국회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국민의 화를 더 돋운 건, 판결 뒤 미소가 가득한 윤 의원의 얼굴이었다. 더욱이 1천700만 원, "그 부분도 횡령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한술 더 떠, "인생을 통째로 부정당하고 악마가 된 그는 얼마나 억울했을까.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라고 했다. 윤 의원은 무죄가 아니다. 더욱이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를 위해 써야 할 돈을 횡령한 것이다.

곽상도 전 의원의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한 판결도 상식에 어긋난다. 대장동 개발업체에서 6년간 근무한, 평범한 30대 초반의 곽 전 의원 아들이 퇴직금으로 50억 원을 받았다. 그런데 법원은 곽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아들이 결혼해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아버지와 무관하다는 거다. 법은 물론 상식보다 훨씬 엄격해야 한다. 하지만 판결대로라면, 이제 어떤 뇌물이든 독립한 자식에게만 주면 된다. 소위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검의 딸도 대장동 업자로부터 11억 원과 판교 아파트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 금지 관련 불법행위로 기소된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이규원 검사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법의 수호자들이 가짜 사건 번호까지 만드는 등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그런데 재판부는 이런 행위가 불법이지만,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돼 직권남용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목적만 정당하면 절차는 아무래도 좋다는 뜻이다. 하지만 적법 절차(due process of law)는 법의 대원칙이다. 1966년 미국 연방대법원은 경찰이 묵비권을 고지하는 적법 절차를 어겼다는 이유로, 어니스트 미란다의 연쇄 성폭행조차 무죄로 판결했다.

한마디로 법의 위기고, 상식의 위기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나. 예전에는 권력에 대한 굴종이나 법조계의 이익 카르텔이 문제였다. 여기에 '진영화'라는 새로운 문제가 생겼다. 정치적 편향에 따라 판결이 다른 것이다. 진보 성향의 이른바 '우국민'(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민변)이 진영화를 주도했다. 김명수 대법원장도 그중 한 사람이다. 김영삼, 김대중, 이명박 대통령 때는 자식과 형님이 구속돼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문재인 정부는 정권에 불리한 수사를 막고자,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앞세워 윤석열 검찰총장을 심하게 겁박했다. "총장은 장관 부하가 아니다" "나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이 왜 나왔겠나. 그러나 권력에 붙고, 진영 논리를 추종한 판·검사들도 적지 않다. 조국 수사 때는 국민들조차 두 편으로 갈라졌다. 정권의 진영 논리가 사법부를 망치고, 국민까지 두 쪽 냈다. 재난·재해보다 더 무서운 게 법과 상식이 무너지는 일이다. 재난은 극복할 수 있지만, 법과 상식이 무너지면 아무 대책이 없기 때문이다.

김경수의 每日 희평

대탈출??

관풍루 觀風樓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 촉구한 박지현 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을 출당하라는 청원이 5만 명 이상 동의 얻어. 개딸(개혁의 딸) 파워 확인했지만 얻는 것 있으면 잃는 것도 있는 법.

○…지난해 가계 지출의 3분의 1은 세금과 이자 지출로 파악, 해당 지출 비중 통계 작성 기준 변경 후 가장 높게 나타나. "내 통장은 돈이 스쳐 지나가는 간이역" 비명이 안 나올 수 없네!

○…강진 덮친 튀르키예에서 수사 당국이 피해 규모 더욱 키운 건물 부실시공 관련자 184명 구속해 수사 중. 강진으로 5만 명 이상 목숨 잃은 참사에 비하면 구속자 수 너무 적은 듯.

每日新聞 The Maeil Shinmun | 땀과 사랑으로 겨레의 빛이 되리 | 매일신문 www.imaeil.com

발행인·인쇄인 정창룡 편집인 이동관 논설주간 김해용 뉴스국장 김수용 신문국장 이춘수

대표전화 053)255-5001
대표팩스 053)255-8902
광고 신청·안내 080-711-2001
구독·배달 안내 080-711-2002

본사 대구광역시 중구 서성로 20 (계산동2가 71) 우)41933
경북본사 054)855-1700 경북 안동시 풍천면 수호로 63 NK프라자 3층 우)36759
동부지역본부 054)276-0001 서부지역본부 054)453-3333 서울지사 02)733-0755

구독료 한달 15,000원 1부 800원
1946년 3월 1일 창간 1960년 7월 1일 등록 가-29호(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외부 필진의 글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잔치판의 구경꾼들

세풍 世風

최경철
논설위원

이제는 추억이 됐지만 두 아들을 키우면서 주말·휴일이면 꽤 바빴다. 아이들 운동 시합 관전이 있었기 때문이다. 몇 종목 있었지만 축구가 기억에 남는다. 평소에는 낙제점 아빠였지만 이런 날이면 100점 아빠가 돼 있었다. 그런데 아이가 공격수를 하지 못하고 수비수 또는 골키퍼를 맡거나, 심지어 벤치 신세가 되면 100점 아빠는 실망의 도가니로 빠져들었다. 꼬맹이들 축구 시합일 뿐인데 아이가 경기장에서 들러리를 섰다는 생각은 묘한 감정을 만들었다.

막판까지 열기를 뿜고 있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바라보는 '보수의 심장' 대구경북(TK) 지역민들은 꼬맹이 축구 시합과는 차원이 다른 들러리의 울분을 토로하고 있다. 당대표 선거 최종 후보 명단에 오른 4명 중 TK 출신 국회의원은 단 한 명도 없고, 최고위원 후보군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TK 현역 의원들은 전무하고, 원외의 김재원 전 최고위원만이 유일한 TK 출신이다. 최고위원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던 현역 재선 이만희 의원은 본선 구경도 못 한 채 컷오프에서 탈락하며 체면을 구겼다.

원내대표 주호영 의원, 비대위원 김상훈 의원은 중립성 시비를 불러올 수 있으니 이번 전당대회에서 당 지도부 도전이 어려웠다고 치자. 하지만 나머지 TK 의원들은 이런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잔치판의 주역이 되지 못하고 구경꾼이 됐다. 전례를 봐도 이번 전당대회에서의 TK 실종 현상은 심각한 지경이다. 비록 고배를 마셨지만 2021년엔 주호영 의원이 당대표 선거에 도전했고, 매번 전당대회 때마다 TK는 현역 의원을 최고위원으로 배출했다. 이철우 경북지사도 2017년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에 선출된 바 있다.

국가든, 개인이든 힘을 측정할 때 의지와 능력 두 가지를 본다. 전당대회라는 정당의 최대 잔치에서 주인공이 아닌 구경꾼에 머문 TK 국회의원들은 둘 중 하나가 없는 것일까? 아니면 두 가지 모두가 없는 것일까? 서울 근무를 하며 정치판을 몇 년 살펴본 결과, 후자에 과감하게 동그라미를 친다. 조수진·태영호 등 초선도 최고위원에 도전하는데 '초·재선이라서'라고 둘러대는 TK 의원들의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 의지의 박약 현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능력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정치인으로서의 재능이 갖춰져야 하지만 TK 의원들은 이 부분에서도 높은 점수를 주기 어렵다. 정치 입문 전에 쌓은 식견을 믿고 있겠지만 정치인의 능력은 여기에서만 그칠 수 없다. 말하기·글쓰기를 통해 자신의 주장을 명쾌하게 논증해 내고, 상대의 논리를 여지없이 무너뜨리는 웅변가가 정치인이다. 정치인의 유일한 무기는 말인데 웅변가적 능력이 모자란 사람은 당 지도부의 일원은커녕 정치인 반열에도 결코 오를 수 없다. 이번 전당대회에 나온 상당수 후보들 면면이 이를 방증하고 있다.

TK 국회의원들은 TK의 대표다. 그러나 이번 전당대회에서 보여준 TK 의원들의 모습은 보수의 심장이라는 TK의 대표라는 기대감을 무너뜨렸고 책임도 저버렸다. 대의제 정당민주주의 체제하에서 대표성, 그리고 책임성의 위기를 동시에 노출시킨 것이다. 전체주의와 달리 민주주의의 최대 장점은 주역으로 자라난 대표에게 보상을, 구경꾼으로 전락한 대표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심판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 장점을 활용할 수 있는 주권자의 계절인 내년 봄이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다.

야고부 野鼓賦

좌파 탈출 행렬

좌파(左派)의 유래는 프랑스 대혁명 당시 사회 변화에 상대적으로 온건한 지롱드당이 의회의 오른쪽에, 급진적인 몽테뉴당이 의회의 왼쪽에 자리한 것에서 시작되었다. 사회민주주의, 기독교사회주의, 종교사회주의에서 공산주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좌파들이 있지만, 사실 '좌파'라는 개념은 항상 역사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 기존의 사회계급을 반대한다는 측면에서 '좌파=진보'로 이해되기도 하지만, 이 역시 역사적으로 볼 때 상대적이다.

프랑스 혁명 당시 절대군주에 맞서 시민의 권리를 지키려 한 사람들이 좌파였고, 여기에는 부르주아지도 포함된다. 혁명 성공 이후 기득권층이 된 부르주아지는 우파로 불린다. 한국의 운동권은 '좌파'일까 '기득권층'일까 논란이 될 만하다. 자신들의 특권계급화를 추구한다는 측면에서 '진보'는 결코 아니고 '좌파 기득권 세력'이라고 할 수 있을 듯싶다. 좌파의 가장 큰 특징은 '평등'을 내세우는 것이다.

미국 인구조사국에 따르면 2022년 다른 주로 이사한 미국인이 120만 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전출자의 76%를 차지한 상위 5개 주는 캘리포니아·뉴욕·일리노이·뉴저지·매사추세츠로 소위 '좌파·진보'의 텃밭이다. 반면에 전입자의 68%를 점유한 5개 주는 플로리다·텍사스·노스캐롤라이나·사우스캐롤라이나·테니시이다. 노스캐롤라이나를 제외하면 모두 보수·우파의 보루이다.

원인은 '세금'이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플로리다는 경제가 성장해야 재정 지출을 늘릴 수 있는 반면, 뉴욕은 재정이 부족하면 바로 세금을 늘려 해결하려 한다"고 분석했다. 전출이 많은 주(州)의 유효세율은 11.5%가 넘은 반면, 유입 인구가 많은 주는 9.9% 이하였다. 좌파는 가난을 만들고 우파는 부유해진다는 사실은 플로리다와 뉴욕의 비교에서 극명해진다. 플로리다는 10년 전 뉴욕을 앞지르기 시작해 현재 257만 명이 더 많다. 과세표준 규모도 뉴욕이 2020년 195억 달러 줄어들 때, 플로리다는 237억 달러 더 늘었다. 주 GDP(총생산) 증가율도 뉴욕은 8%로 플로리다 17%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한때 '좌파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말이 유행했다. 좌파를 탈출해야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미국인 인구 이동 데이터'가 보여준다.

석민 디지털논설실장 sukmin@imaeil.com

사 설 社說

찬성이 한 표 더 많은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의원 297명이 투표해 찬성 139표, 반대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가 나와 찬성이 1표 더 많았다. 민주당에서 대거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부결인 것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인 체포동의안 가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회 회기 중 체포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에 따라 이 대표는 일단 구속 수사를 피하게 됐다. 하지만 민주당에서 대표직 사퇴 요구가 더욱 거세지는 등 정치적 타격은 물론 앞으로 구속되는 사태를 맞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검찰이 이번 구속영장에서 제외한 혐의들에 대한 '쪼개기' 영장 청구에 나설 경우 그때마다 민주당이 거당적으로 '이재명 방탄'에 나서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민주당에서 이탈표가 많이 나왔다는 것은 '정적 제거'라는 이 대표의 프레임이 당내에서도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음을 말해 준다. 이 대표는 표결에 앞서 신상 발언에서 "검찰에 목이 잡혀 궁박해진 이들의 진술 말고는 그 장기간의 대규모 먼지털이 수사에도 아무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며 "법치의 탈을 쓴 정권의 퇴행에 엄중한 경고를 보내달라"고 호소했지만 결과는 이 대표에게는 충격일 수밖에 없는 '찬성이 1표 많은 부결'이다.

이 대표 방탄은 처음부터 민주당이 나설 일이 아니었다. 검찰의 체포영장 청구 대상 혐의는 이 대표의 개인 비리, 그것도 대표가 되기 전의, 민주당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파렴치 범죄이다. 오랜 역사와 많은 지지자를 가진 정통 야당이 이런 범죄 혐의의 '방탄'에 나설 수는 없다.

이런 지극히 기초적인 상식을 외면하고 '방탄'에 올인하는 민주당의 행태를 두고 타 죽는 줄도 모르고 불에 뛰어드는 나방 꼴이나 다름없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이번 부결은 '사실상의 가결'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다. 이를 계기로 민주당이 상식과 정의와 양심을 회복하기를 기대한다.

주변국 군사 위협 계속 증대, 핵무장은 안 된다고 볼 일 아냐

매일신문이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만 18세 이상 대구경북 남·여 1천 명을 대상으로 핵 안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중 79.0%가 우리의 독자적 핵무기 개발이나 미군의 전술핵 재배치에 찬성했다. 반대는 18.7%였다.

한국의 핵무장 추진에는 여러 문제점과 정치적 어려움이 존재한다. 독자적 핵무장은 한미 관계를 악화시키고 동아시아의 핵무기 경쟁을 촉발할 수 있다.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일은 아니다. 우리를 둘러싼 중국, 러시아,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재래식 무기를 아무리 강화해도 이들의 군사적, 정치적 압박을 극복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일본도 군사력 강화에 나서고 있다. 일본 방위성은 2022년 방위백서에 중국을 '일본의 최대 위협'이라고 명시했다. 그 뒤를 북한, 러시아를 지목했다. 이들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은 '일미 동맹'을 넘어 '일미 일체화'로 변신 중에 있다. 20세기 내내 일본의 여론과 상식은 '무기를 버리고 전쟁에 관한 모든 것을 포기한다'였다. 하지만 21세기 일본은 '평화헌법'을 지키기 위해 군사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상황이 달라지니 여론도 달라진 것이다.

일본의 군사 대국화 추진은 우리에게 위협인 동시에 교훈이다. 북한과 중국의 위협이 일본에 한정되는가? 오히려 우리나라가 더 큰 위협에 노출돼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미국은 핵우산으로 한국을 지킨다고 장담한다. 하지만 국제정치는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알 수 없다. 가령, 미국 내의 복잡한 정치적 상황과 비상 상황이 맞물릴 경우 핵우산 작동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제 한국의 핵무장은 거론조차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을 넘어섰다고 본다. 핵무장 추진에 따른 여러 어려움은 정치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 동북아에서 중국과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한국의 역할 같은 당위성을 개발하며 미국에 협력과 이해를 타진할 문제인 셈이다. 핵무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한국은 어느 편이냐?'고 미국이 물었을 때, 분명하게 답할 수 있어야 한다.

대구의 2·28민주운동, 국가 정신 자산으로 키우자

대구에서 일어난 2·28민주운동이 63주년을 맞았다. 국가기념일로 제정된 지 6년째이다. 2·28민주운동은 1960년 대구 학생들이 주도한 대한민국 건국 이후 첫 민주화 시위로, 4·19민주혁명의 도화선이 됐다. 이런 역사적 의미에도 2·28민주운동은 60년 가까이 '잊힌 의거'로 저평가됐다. 정부는 2018년 지역민의 염원을 받아들여 2·28민주운동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했다. 2·28이 우리나라 공식 역사에 편입된 것이다.

하지만 2·28민주운동을 잘 모르는 국민들이 많다. 2·28민주운동으로 촉발된 마산의 3·15의거나 4·19혁명에 비해 국민적인 인지도가 낮다. 2·28민주운동에 대한 대구 시민들의 이해도 역시 높지 않다. 지난해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가 대구 시민 500명을 조사한 결과, 10명 중 3명이 '2·28민주운동의 국가기념일 지정'을 몰랐다.

2·28민주운동 홍보를 위해선 국정 역사 교과서 반영이 시급하다. 2·28은 한국 첫 민주화 운동으로 역사적 의미가 깊다. 그러나 교과과정엔 4·19혁명 내용만 있을 뿐, 2·28에 대한 언급이 없다. 초교 6학년 사회과 교과서 '우리나라의 정치 발전' 부분 중 4·19혁명 전개 소개 페이지에 '이승만 정부의 부정부패에 대항해 일어난 대구 학생 시위'라는 제목의 사진이 실려 있는 게 전부다. 대구시와 기념사업회는 2018년부터 2·28민주운동의 국정 역사 교과서 반영을 추진했지만 무산됐다.

25일 한국기자협회와 전국 시·도기자협회 임직원 30여 명이 대구 2·28민주의거기념탑과 2·28기념중앙공원을 찾았다. 이 행사는 전국 언론인은 물론 국민에게 2·28의 역사적 의의와 숭고한 정신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2·28이 국민들의 주목을 받기 위해선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 지역 다른 직능·사회단체들의 동참을 기대한다. 학계는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교과서 수록을 위해선 더 많은 연구 성과를 내야 한다. 2·28민주운동이 지역을 넘어 대한민국의 정신 자산으로 승화되길 바란다.

일반부동산

달 성 군

▣한국공인중개사(엄진섭,달성군)가18-321

테크노 특급공장 매매 대25,935㎡, 건14,052㎡ 고15M,HOIST12대(30T등) 당268만원 010-4504-6532

공장매매/국가산단 대16000㎡, 건7300㎡ 달성2차 대3309㎡, 건2458㎡ 010-4504-6532

★테크노폴리스★ ★지원시설 內 상가 임대, 매매★ 대지1950㎡(590), 건물948㎡(287) 30평10칸 010-6292-0203

북 구

▣더블리치공인(김태동,북구)가-15-2290

★창고, 공장★ 대255㎡ 건83㎡ 4억2천 층고6m, 최신축 검단동 도로변 준공22년11월 010-7437-5535

한백공인(조재봉,김천혁신도시)가-18-1197

은행 단층 통상가 월900出 상업지역, 대구북구 신도시, 대888㎡ 건600㎡, 매35억 010-6833-5433

이케아입점사거리 코너상가땅 매20억 대구안심지구 대530㎡,4면도로접010-6833-5433

브랜드입점1층상가 보8천, 月320出 35M 도접 급원가이하 태전동 대지권216㎡ 건120㎡, 매11억5천010-6833-5433

무인텔+호텔부지 김천구미 KTX역 독점 숙박비 9만 상업지역, 대2,685㎡, 건2,357㎡ 매115억 010-6833-5433

대형 스크린골프 신규 주차 150대 대출80% 초급매,전용920㎡ 전용테라스有 김천혁신 KTX 역세권, 1.3만세대 매25억(임대가능) 010-6833-5433

KTX 초역세권 땅 상업지역,주복가능 급매물땅값만 대1973㎡ 건2080㎡ 김천혁신12개공공기관6,000명상주 1.3만세대,매70억 010-6833-5433

달 서 구

▣LG부동산(박종수,달서)27290-2022-00098

★창고+공장 대1848㎡, 건546㎡, 논공읍 주위시세 반값, 초 급매물 3.3㎡당120만 053)643-8988

남 구

▣부자공인(최원정,남구)27200-2022-00002

※모텔 급매 모텔물건 다량보유 대지772㎡, 룸30, 물건다량보유 10억인수 月6000出, 융有 053)263-7101

※호텔 급매 20억인수 대1,056㎡ 룸35 月1억出, 장부공개 053)263-7101

현풍구지 동네입구 주택 지을땅 나대지 208㎡(63) 몽땅6천만 053)263-7101

동 구

▣모두부동산(안근희,동구)27140-2020-00130

★평화시장대로변 상가 826㎡(250) 당2,300만, 급매 053)942-4080

금탑부동산(박정자,동구) 27140-2016-00053

공장창고신축매매 ★동대구IC, 팔공산IC 10분 평광동 대180~240,건90~110 다수, 당380만

★동대구IC, 팔공산IC 10분 방촌동 대지180~250″ 건평80~150″다수 당620~650만 053)964-4849, 010-5100-5400

수 성 구

▣유명공인(박성현,수성)27260-2016-00126

급 月9000/100억(대출150억안고) 수성구, 대1421㎡, 건9421㎡, 대형병원,유명프랜차이즈,약국,커피숍 내과, 정형외과, 사무실, 대형매장 등 감정가이하 매매, 상권좋고

月4500만 특급빌딩 50억인수(대출안고)수성구, 지하철역, 대도로 코너 이비인후과, 치과외 병원5개 입점 대814㎡, 건3819㎡ 010-3701-0772

月3800만 대형프랜차이즈 35억 (대출60억 안고) 대지2980㎡, 건물2100㎡ 상권좋고, 대규모아파트, 전망좋음 투자가치최고 010-3701-0772

▣ 동진부동산(권영철,수성)가-16-3703

범어동대로상가 매3억5천, 보2천, 융2억 1억3천인수, 월150만出 25%DC, 초급매 010-3509-4725

▣황금수성공인(배현철,수성)27260-2017-00171

팔공산용수동 커피숍하실분 대3,636㎡(1100) 35억 053)765-9881

황금부경부동산(정자혜,수성)27280-2021-00122

약국건물초급매 月1100 대도로, 역세권 전문병원다수, 융無 14억인수 053)762-6100

사거리코너초급매 月840 대1090㎡, 건600㎡ 점x8, 공실無, 인산인해 매15억, 융無 010-5683-6100

동남부동산(沈宗燮,수성761-7501)가-16-1501

팔공산 땅넓은주택 대2547㎡, 건237㎡ 당180만 일반음식점 용도 053)761-7501

범어동아파트정문앞 상가주택 대360㎡, 건387㎡ 신축또는리모델링 몽땅65억 053)761-7501

月1500 병원약국, 역출구대로접 대135,대단지앞,매43억
月700 수성구, 대단지앞, 대85″ 공실無,EV,주차, 매22억
月500 대단지코너,병원,공실無 매18억010-6630-8648

경 산 시

물류 창고 공장 창고 혁신도시 2000″ 와촌IC 대700″ 9,000″, 당88만 010-9468-5022/ 010-3502-0322

고 령 군

▣양지공인(권영희,다산)가-4244-000049

고령다산월성산업 단지 700~9,000 내외 (면적다양) 별도수수료 없음, 성서공단15분 거리 010-2878-8945

현대공인중개사(조경식,고령)47830-2020-00004

급급매 고령IC 대470, 건150, 사30, 전기90kw 호이스트 5t x 1, 몽땅5억2천 054)956-9080

동고령일반산업 단지 매매 공장용지,대12,049㎡(3645) 최상위치 ★공장·창고, 개진면 개포리★ 대2800, 건1027 010-6292-0203

성 주 군

★참외재배답매매 성주, 선남면 명포리1004 2,466㎡(746), 2025.9.25임대 안고 당25만, 주인직 010-9355-2386

영 양 군

▣마루부동산(황시후,동구)27140-2017-00161

캠핑·야영지·농원 수비면 신원리 24번지 약2000평, 야영지및 식당 겸 농원 010-9879-7155

의 성 군

※상가 매매 의성군 매매2억 대지149, 점포5칸 보9백, 月100만出 010-4507-7849

♥법인·일반부동산 문의♥
☎ 053) 656-4448
FAX 053) 656-1118
대구은행 065-13-147595 (주)매일신문사

감도높은 광고효과! 바로 매일신문 광고입니다.
每日부동산 안내
TEL.053)656-4448
FAX.053)656-1118

광명한방병원
KWANGMYUNG Hospital of korean medicine

애미야 애비야 걱정마라!

광명한방병원

개편 된다!

장기입원이 필요하시다면?
공동간병이 필요하시다면?

내집같은 편안함!
균형잡힌 식단!
자유로운 면회 가능!
수준높은 양한방협진 의료체계!

입원상담 010-2509-5260
오시는길 1호선 상인역 2번출구 월배로 195